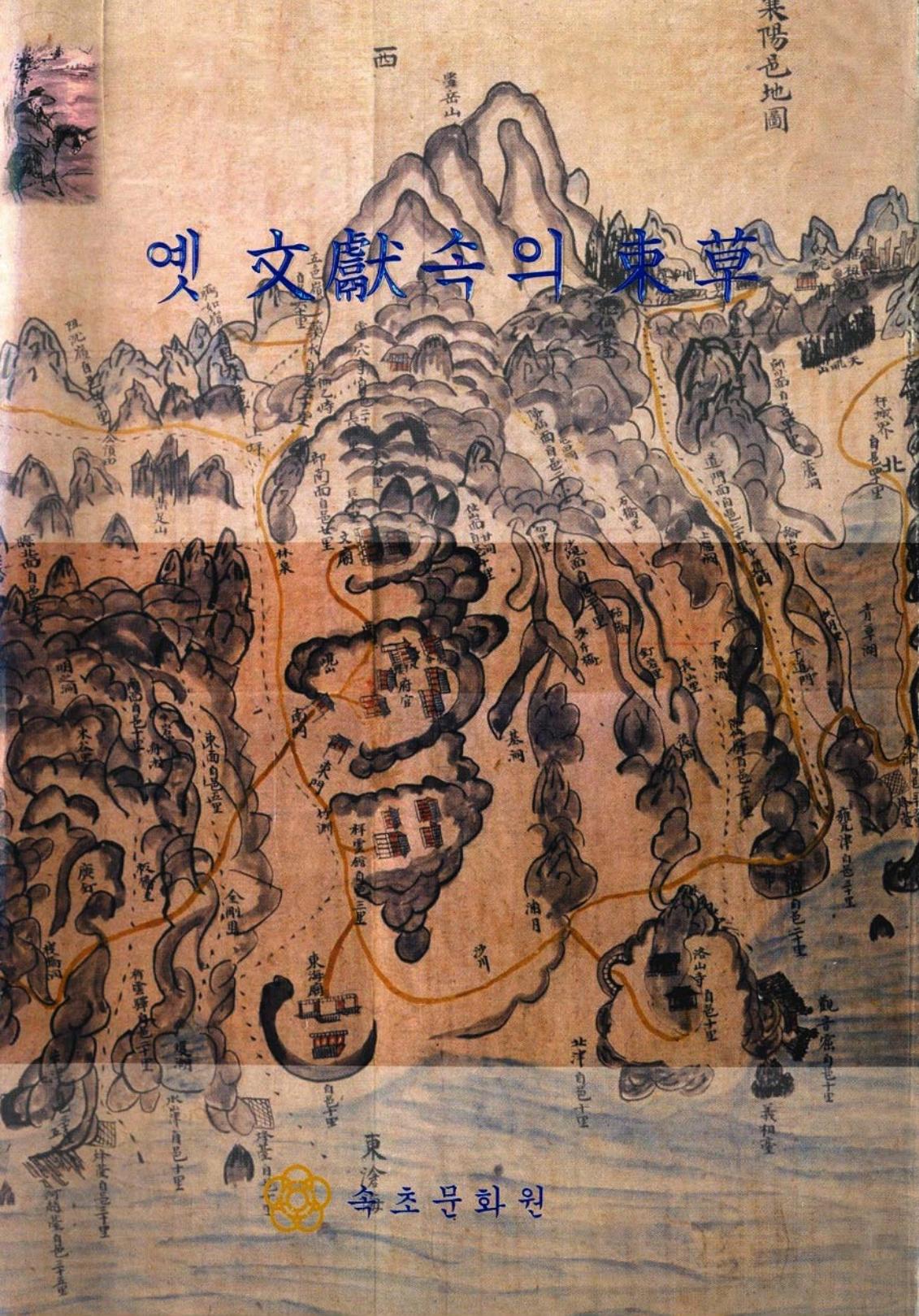


渠陽邑地圖

옛 文 속 献 草

西

嵩岳山



원화문초 東滄



徐陵自邑三十里
河越豐自邑三十里

水山洋自邑三十里

廣口

東面自邑五里

明之洞

斯足山

祖光殿

病如居

五色局

平里

藥水

七里

六事宮

子

長

南

御南面自邑三里

文廟

林泉

南

門

南

基洞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南

<p

옛 文獻 속의 束草

옛 文獻 속의 束草

차 례

발간사	최용문(속초문화원장)	5
총 론		7
제 1 장 연혁(沿革)		13
제 2 장 산천(山川)		29
1. 산(山)		31
2. 호수(湖水)		56
3. 령(嶺)		67
4. 친(川)		70
제 3 장 지명(地名)		73
1. 방리(坊里)		75
2. 일제시대의 지명		79
제 4 장 호구(戶口)		81
제 5 장 물산(物產)		91
1. 토산물(土產物)		93
2. 진공(進貢)		96
3. 시장(市場)		97
4. 금융조합		97
제 6 장 관방(關防)		99
1. 성(城)		101
2. 진보(鎮堡)		112
3. 이참(里站)		114
4. 봉수(烽燧)		114
5. 교량(橋梁)		119
6. 우편(郵便)		122

제 7 장 고적(古蹟)	123
1. 사찰(寺刹)	125
2. 누대(樓臺)	163
3. 사묘(祠廟)	169
제 8 장 풍속(風俗)	171
1. 풍속(風俗)	173
2. 성씨(姓氏)	175
3. 인물(人物)	176
제 9 장 설화(說話)	177
1. 동자승(童子僧)의 기지(寄智)	179
2. 영산(靈山)	183
3. 목탁바위	183
4. 매미의 낙원	184
5. 신흥사의 유래	185
6. 도문과 신흥사	187
제 10 장 한시(漢詩)	189
1. 영랑호(杆城郡邑誌)	191
2. 영랑호(關東邑誌)	193
3. 금강산 가는 길	195
4. 신흥사(현산지)	197
5. 설악산(동국여지지)	199
부 록 1 옛 文獻	201
부 록 2 옛 文獻 속의 地圖	305

발 간 사



속초문화원장 최용문

속초문화원은 2001년의 한 해가 속초 역사의 뿌리를 재조명하는 문화의 확립시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향토사료집 “옛 문현속의 속초”를 발간, 우리 지역의 전통을 비롯한 지명 등 역사를 정리하여 독특한 우리의 향토문화를 정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오늘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화 물결이 정보산업화로 바뀌면서 시대적, 정신적으로 전산화에 얹매어 글을 쓰던 시대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무자세로 바뀐 이 현실이 어쩌면 안타까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지금까지의 가치세계가 혼들리고, 무한 경쟁의 시대로 이어지면서 전통문화의 빛을 앗아 가는데에 깊은 주의와 인식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옛 문현속의 속초”를 통해 우리의 뿌리를 찾아 보다 향토애의 의식을 고취하여 나와 내 고장의 발전에 활력소가 된다면 더 없는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만족한 자료 발굴이라 믿지 않습니다. 또한 정확한 대입(代入)이라고도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 원에서는 우리의 아름답고 전통의 향기가 물씬한 문화요소(사료)들을 계속 발굴하고 다듬는데에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귀한 자료들을 모아 한 권의 사료집을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신 본 원의 향토사연구소 위원들과 그밖에 여러분으로 관계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총 론

속초지역은 1963년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이 양양군에 속해 있었다¹⁾. 따라서 속초 지역사를 연구하는 데 많은 한계점이 있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그와 더불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면 지역에 불과한 곳이었기에 역사적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속초지역의 역사연구를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뿌리 찾기’가 시급한 관계로, 확인할 수 있는 문헌들을 조사하여 차후 연구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자료집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명, 민속, 발굴 조사 등 상당히 많은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근·현대사 부분의 자료 보강과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재검토 등 필요한 몇 개의 과제 또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연구된 속초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장사동은 간성군에 속한 지역이었다.

속초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청동기 시대부터이다. 물론 양양이나 고성의 유적을 통하여 볼 때 연결통로인 속초에도 청동기 시대 이전에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 이후 군장국가였던 동예에 속했다가 삼국시대에 들어와 고구려의 영토로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했으며, 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익령(翼嶺)이라 불려졌다. 고려시대의 양양은 현령이 파견된 지역으로 전기에는 익령현, 후기에는 양주로 불려졌다.

속초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이다. 조선시대의 속초는 강원도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으로 되어 있었다. 양양도호부는 태종 16년(1416)부터의 이름이다.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갑오개혁 이후 양양군으로 고쳐졌다. 오늘날 속초의 토대가 된 것은 일제시대에 들어와 도문면과 소천면이 도천면으로 합치면서부터이다. 이 당시 대포리는 도천면의 소재지였고, 근대화에 따라 외지와의 교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 고장의 문호 역할을 담당한 상당히 큰 항구였다. 이와 더불어 일제시대 후기로 오면 청초호(靑草湖·쌍성호)를 항구로 개발함에 따라, 그에 인접한 속초리(束草里)가 점점 커져서 1937년에는 도천면(道川面)²⁾사무소가 대포리(大浦里)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동시에 면(面)이름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어, 속초는 동리 이름이면서 또한 면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확대되었다. 그 후 인구 증가에 따라 1942년에는 읍(邑), 1963년에는 시(市)로 승격되었으며,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 까지 포함하는 행정구역의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의 속초시에

2) 일제시대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道門面(도문면)과 所川面(소천면)이 합쳐져 도천면이 됨.

이른다.

대략 살펴본 연혁에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몇 가지 확인되었다는 것이 이번 사료조사의 큰 쾌거였다.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대략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초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둘째,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지명인 ‘속진리(束津里)’는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인가?

셋째, ‘천후산(天吼山)’은 울산바위와 어떤 관계인가?

넷째, 속초의 인구 변천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언제부터 커지기 시작했는가? 등이다.

속초라는 명칭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인되었던 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여지도서』의 기록이었다. 영조 때 만들어진 『여지도서』에 의하면 “속초리는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 거리에 있다. 편호 86호이고 인구는 남자 99명, 여자 182명.(束草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八十六男九十九女一百八十二口)”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료를 확인하던 중 조선 단종 2년에 편찬된 『세종 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³⁾』에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單) 10명이다.”와 같은 기록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보아 조선 전기에도 속초라는 이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지역향토사가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그 동안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속진리의 위치다. 속진리의

3) 1454년에 정인지 등이 편찬한 사본 8책으로 각 도의 연혁·고적·
물산·지세 등을 각 방면에 걸쳐 기술한 문헌.

위치는 “해동지도 양양부”, “양양읍지도” 등의 고지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속초에 인구가 몇 명이나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속초의 인구는 많지 않았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지금의 속초 지역은 소천면에 4개리(논산, 부월, 속초, 속진리), 도문면에 6개리(상도문, 하도문, 물치, 대포, 옹진, 신흥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인구는 천명 이내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자료인 도천면의 『면세일반(1926년)』에는 6,219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청초항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본다.

이번 조사에서도 인구에 관한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이 철저한 조사가 뒤따른 것이 아니라 앞서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많아 자세한 인구를 추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속초의 지명에 관하여는 여러 역사가나 향토사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지명총람』이나 『속초의 지명⁴⁾』에는 사라진 지명까지도 적고 있어 상당한 연구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도시의 팽창과 함께 자연지형이 변함으로 인해 많은 지명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지명을 어떻게 복원하고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다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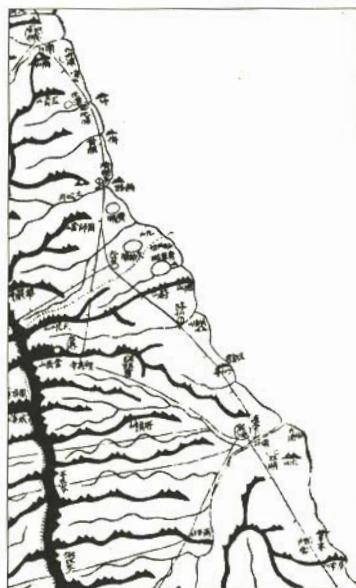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선대(秘仙臺)’의 존재여부, ‘침산정(浸山亭)’, ‘영랑호의 정자 위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최근까지 불려진 이름을 되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천(山川)’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옛 지명이 가리키는 곳이 현재의 어디인지 밝히지

4)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2. 20.

못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옛 지명에 있어 가장 큰 의문은 이산(籬山)에 관한 내용이다. 이산과 천후산(天吼山), 울산은 같은 지명이라고 대부분의 책에서 표기하고 있는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울산과 천후산을 다른 곳에 표기하여 놓았다. 또한 지금은 없어진 연수파령, 보현사라는 지명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 책의 편찬 목적은 연구를 위한 자료모음 성격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토대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학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해를 돋기 위해 간간이 주석을 달아 놓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이 자료집 발간과 더불어 속초 지역의 향토사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제 1 장 연 혁(沿革)



제 1 장 연 혁(沿革)⁵⁾

守城郡本高句麗達城郡景德王改名今杆城縣領縣二童山縣本高句麗僧山縣景德王改名今烈山縣翼嶺縣本高句麗翼峴縣景德王改名今因之

수성군(守城郡·375)은 본래 고구려 수성군(達城郡·376)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의 간성현(杆城縣·377)이다. 영현이 둘이었다. 동산현(童山縣·378)은 본래 고구려 승산현(僧山縣·379)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의 열산현(烈山縣·380)이다. 익령현(翼嶺縣·381)은 본래 고구려 익현현(翼峴縣·382)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도 그대로 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잡지 제35 제4》

5) 속초는 장사동을 제외하곤 양양군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따라서 양양의 연혁을 실는다.

翼峴縣 一云 伊文縣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177)이라고도 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잡지 제37 제6》

襄陽都護府使一人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改名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高宗八年辛巳以能禦丹兵陞改襄州防御使四十四年丁巳以降賊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庚申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丁丑以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癸巳例改都護府十六年丙申改襄陽別號襄山

부사(府使) 1인.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인데,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에 익령(翼嶺)이라고 쳐서 수성군(守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고종(高宗) 8년(남송<南宋> 영종<寧宗> 가정<嘉定> 14년) 신사에 거란 군사를 잘 막았다 하여 양주 방어사(襄州防禦使)로 승격하였으나, 44년(남송 이종<理宗> 보우<寶祐> 6년) 정사에 적에

게 항복한 까닭으로 덕녕감무(德寧監務)⁶⁾로 강등하였고, 원종(元宗) 원년 경신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회복하였다. 본 조 태조(太祖) 6년 정축에 외향(外鄉)⁷⁾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 계사(癸巳)에는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 병신(丙申)에 양양으로 고쳤다. 별호는 양산(襄山)이라 한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양양 연혁조》

翼嶺縣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景德王改令名爲守城郡領縣顯宗九年置縣令高宗八年以能禦丹兵陞襄州防禦使四十一年降爲縣令四十四年以降賊又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陞知襄州事別號襄山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현종(顯宗) 9년에 현령(縣

6) 덕녕(德寧)은 양양군을 이르는 지명이며, 감무(監務)는 고려시대 현령(縣令)을 둘 수 없는 작은 현의 감독관을 말한다.

7)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로서 목조(穆祖)로 추존된 이안사(李安社, ?~1274)의 외향이다.

令)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내었다 하여 양주 방어사(襄州防禦使)로 올렸다가 41년에 낫추어서 현령(縣令)을 삼고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낫추어 덕녕감무(德寧監務)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높혔다. 별호(別號)는 양산(襄山)이다.

《고려사 지리지(高麗史地理志)》

襄陽都護府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八年以禦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今名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익령으로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때 현령(縣令)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襄州防禦使)로 올렸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낫추어 덕녕 감무(德寧監務)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높혔다. 본 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에는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양양 연혁조》

襄陽府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今名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이름을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때 현령(縣令)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襄州防禦使)로 올렸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낮추어 덕녕 감무(德寧監務)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높혔다. 본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에는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여지도서(輿地圖書) 양양 연혁조》

襄陽都護府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景德王時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時復析置翼嶺縣高宗八年陞爲襄州以禦丹兵有功陞溪降爲德寧縣高宗四十四年以降賊降元宗初復爲襄州本朝太祖六年陞爲府以上之外鄉陞太宗十三年改爲襄陽都護府掌面

양양은 본래 고구려 익현현인데 다른 말로 이문현이라고도 한다. 신라 경덕왕이 익령으로 고쳐서 수성군이 거느리는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현종때 익령현으로 나누었고, 고종 8년에는 거란 군사를 잘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로 승격하였으나 고종 44년에 적에게 항복한 까닭으로 덕녕현으로 낮추었다. 원종 초에 양주로 회복되었으며, 본 왕조 태조 6년에 임금의 외향이라 하여 부로 승격되었다가 태종 13년에 양양도호부로 이름을 고쳤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양양 연혁조》

襄陽府本高句麗翼峴一云伊文縣新羅時改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八年以禦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今名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

도 한다. 신라 때 이름을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때 현령(縣令)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로 올렸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낮추어 덕녕감부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높혔다. 본 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에는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양양부읍지(襄陽府邑誌) 全 연혁조』

襄陽 高句麗翼峴縣 一云伊文 新羅改翼嶺 高麗陞襄州 降德寧
縣 復稱襄州 太祖丁丑陞府 上之外鄉 太宗改襄陽 襄山

양양은 고구려 때의 익현현, 다른 말로 이문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에는 익령현으로 고쳤고, 고려 때에는 양주로 올렸다가 덕령현으로 낮추었으며, 다시 양주라 일컬었다. 태조 정축년에 부로 올렸다. 임금의 외향이다. 태종 때 양양으로 고쳤다. 양산이라고도 한다.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별집 제16권』

本伊文縣後改翼峴新羅景德王三十六年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九年置縣令高宗八年陞襄州防禦使以御丹兵有功四十一年降縣令四十四年降德寧監務以降賊元宗元年陞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改都護府十六年改襄陽正宗七年降縣十六年復陞邑號襄山官員都護府使一員

본래 이문현 이었다가 후에 익현이 되었다. 신라 경덕왕 36년에 익령으로 이름을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9년에 현령을 삼고, 고종 8년에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襄州防禦使)로 올렸다가 41년에 낚추어서 현령(縣令)을 삼고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낚추어 덕녕감무로 하였으며, 원종 원년에 지양주사로 높혔다. 본 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에는 도호부로 고쳤고, 16년에 양양으로 이름을 고쳤다. 정종 7년 현으로 낚추었다가 16년에는 읍으로 승격하였다. 양산이라고도 하며 관원인 도호부사 1인을 두었다.

《대동지지(大東地志) 권16 양양 연혁조》

襄陽本高句麗翼峴一云伊文縣新羅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朝以禦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復以降敵降爲德寧監

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李朝太宗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爲府光海十年改爲縣仁祖元年改爲府高宗三十一年改爲郡併合後因之

양양은 본래 고구려 익현, 다른 말로 이문현이라고도 한다. 신라에서 익령으로 고쳐 수성군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때 현령을 삼고, 조선 고종 때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로 올렸다가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낫추어 덕녕감무로 하였으며, 원종 원년에 지양주사로 높혔다. 이조(李朝) 태종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13년에는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다가 16년에는 부로 바뀌었다. 광해 10년에 현으로 고쳐졌으며, 인조 원년에는 부로, 고종 31년에는 병합하여 군으로 고쳤다.

『강원도지(江原道誌) 권1 양양 연혁조』

襄陽府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今名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이름을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때 현령(縣令)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로 올렸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낫추어 덕녕감부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높혔다. 본 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에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관동읍지(關東邑誌) 양양 연혁조》

高句麗時翼峴一云伊文縣新羅...以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時置縣令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改爲都護府十六年改名

고구려의 익현(翼峴),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이름을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때 현령(縣令)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로 올렸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낫추어 덕녕감

무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로 높혔다. 본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에 도호부로 고쳤고, 1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강원도 양양군읍지(江原道 襄陽郡邑誌) — 연혁조》

襄陽府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爲水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改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令名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이름을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때 현령(縣令)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로 올렸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낫추어 덕녕감무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로 높혔다. 본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에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

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강원도 양양군읍지(江原道 襄陽郡邑誌) 2 연혁조》

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
令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爲
德寧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
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今名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
도 한다. 신라 때 이름을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때 현령(縣令)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로 올렸
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낮추어 덕녕감무
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높혔
다. 본 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
고, 태종(太宗) 13년에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에 현재
의 이름으로 고쳤다.

《관동지(關東誌) 13 양양 연혁조》

本高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爲水城郡領縣高麗顯宗時置縣令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爲襄陽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改知襄州事本朝太宗六年以穆祖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襄陽府光海戊午以逆亂降號爲縣仁祖元年癸亥陞府戊辰以逆亂降號爲縣丁丑陞府

양양은 본래 고구려 익현, 다른 말로 이문현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익령으로 고쳐 수성군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때 현령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로 올렸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낮추어 덕녕감무로 하였으며, 원종 원년에 지양주사로 높혔다. 본 조 태종 6년에 외향(外鄉)이라 공경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 13년에는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다가 16년에는 양양부로 바뀌었다. 광해 무오년 역란에 의해 현으로 낮추었으며, 인조 원년 계해에는 부로 올려졌고, 무진에는 역란에 의해 현으로 되었다가 정축에 부로 올려졌다.

《현산지(峴山誌) 연혁조》

제 2 장 산 천(山川)



제 2 장 산 천(山川)

1. 산(山)

가. 설악산(雪嶽山)

在府西北五十里鎮山極高峻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

부의 서북쪽 50리에 있는 진산으로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름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지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산천조》

강춘도(江春道) 양양에 서리가 내려 보리를 손상시켰다. 설악산(雪嶽山)에 눈이 겨울처럼 쌓였으므로 초목이 모두 얼어죽었다.⁸⁾

《영조실록 42집 영조13년 4월 20일》

8) 영조 13년(1737년)의 기록.

自淮陽金剛山來爲江陵五臺山主脉⁹⁾自官門北距五十里極高峻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

회양 금강산에서부터 강릉 오대산 주맥까지다.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오십리 거리이며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지었다.

《여지도서 양양 산천조》

在府西北五十里鎮山極高峻仲秋有雪至夏乃消故名峯巒聳列石色皆白俗稱小金剛南孝溫遊山錄金剛山一枚南延二百餘里山形竦峭略如金剛本岳者曰雪岳本朝金時習多住此山 ○ 本朝許穆詩雪岳之山高萬戈懸空積翠連蓬瀛千峯映雪海日晴縹渺羣帝集玉京

부 서북 오십리에 있는 진산으로 지극히 높고 가파르다. 중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에야 사라지므로 그런 까닭에 설악이라 부른다. 봉우리가 높이 줄지어 솟아 있는데 돌의 빛

9) 脈(맥)의 약자.

깔이 모두 희기에 세속에서는 소금강이라고 불린다. 남효온이 이 산에 여행 와서 “금강산 한 줄기가 남쪽으로 이백여리를 뻗어내 려 산의 형세가 우뚝 솟고 가파르며, 날카로운 것이 금강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나아가 설악이라고 불렀다.

본 조에 와서 김시습이 자주 이산에 머물렀으며, 본 조에 허목의 시에 이르기를

설악의 높이는 만장이고,

허공에 늘어진 푸른 소나무, 삼신산이 아니던가?

일출로 빛나는 설봉의 눈부심이여,

높고 멀리 수많은 체왕이 가지런히 늘어선 듯 하다.

《동국여지지 권7 강원도편 양양 산천조》

自淮陽金岡山來爲江陵五始山主脉自官門北距五十里極高峻仲秋
乃雪至夏而消故名峯巒聳列

회양 금강산에서부터 강릉 오대산 주맥까지다.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50리 거리이며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

《양양부읍지 全 산천조》

嶽外山歷神興寺內院庵轉向繼祖窟窟在天吼山下遍觀食堂瀑布

설악 외산 신흥사, 내원암을 지나 방향을 바꿔 계조굴을 향하면 굴은 천후산 아래에 있다. 두루 식당폭포(食堂瀑布)를 구경할 수 있다.

《연려실기술 별집 제16권 지리전고》

西北四十里麟蹄界雄盤高大石勢連天峯巒聳列洞府幽深 ○ 神興寺靈穴寺繼祖窟皆在山之東

서북쪽 40리, 인제와 경계를 이룬다. 웅장한 바위가 높고 크다. 돌의 모양이 하늘에 닿아있고 높고 낮은 봉우리들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 마을들이 벌려져 있으며 골짜기가 그윽히 깊다. ○ 신흥사, 영혈사, 계조굴이 모두 산의 동쪽에 있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산수조》

自淮陽金剛山來爲江陵五始山主脉自官門北距五十里極高峻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

회양 금강산에서부터 강릉 오대산 주맥까지다.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50리 거리이며,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

《관동읍지 양양 산천조》

自淮陽金剛山來爲江陵五臺山主脉自官門北距五十里極高峻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也

회양 금강산에서부터 강릉 오대산 주맥까지다.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50리 거리이며,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

《관동지 13 양양 산천조》

雪嶽山俗號小金剛在北五十里見麟蹄極高峻仲秋有雪至夏乃消故名峯巒聳列石色皆白如雪高名

북쪽으로 50리에 있으며, 인제가 보이고 지극히 높고 가파르다. 중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에야 사라지므로 그런 까닭에 설악이라 부른다. 봉우리가 높이 줄지어 솟아 있는데 돌의 빛깔이 모두 회기에 세속에서는 소금강이라고 부른다.

《증보문현비고 권23 輿地考 1》

北距五十里極高峻仲秋始雪故名

북쪽 50리에 있으며, 매우 높고 험하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렇게 이름지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산천조》

自淮陽金剛山來爲江陵五臺山主脉自官門北距五十里極高峻仲秋
始雪至夏而消故名

회양 금강산에서부터 강릉 오대산 주맥까지다.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50리 거리이며,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산천조》

雪嶽山靈 古有神興僧 採蔬入山方飯之際有一藍縷老嫗前來乞飯僧輒與之口之小項皆噴之僧怒而杖之嫗避去因忽不見僧下山翌日嘔血卽斃以爲山靈所謫云

설악산령 옛날에 신흥사 승려가 있었는데 채소를 구하러 산으로 들어갔다. 한참 밥을 먹으려 하는데 어떤 남루한 한 노파가 앞에 와서 밥을 구걸하였다. 스님이 생각 없이 그에게 밥을 주었는데 목을 조아리어 모두 토해내니 스님이 노하여 몽둥이를 휘둘렀다. 노파가 피하여 갔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스님이 산을 려간 다음날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죽으니 사람들이 산신령이 귀양온 것이라고 여겼다더라.

《현산지 산천조》

在郡北二里一名小金剛磅礴高峻地誌云白頭以南雪嶽最高每仲冬
10)始雪至夏乃消故名東有國師峰普門庵神興寺繼祖庵西有鳳頂庵
寬瀑十二瀑水簾洞萬景臺梨花洞愈弘窟五歲庵永矢庵 ○ 謠傳古
有神興僧採蔬入山方飯之際有藍縷一老嫗來前乞飯僧輒與之口之
小項皆噴之僧怒而杖之嫗避去人忽不見僧下山翌日嘔血卽斃人以

10) 冬(동)은 秋(추)의 오기 같음.

爲山靈所謫云 ○ 見麟蹄

군 북쪽 2리에 있으며, 일명 소금강이라 한다. 큰바위가 많고 높으며 가파르고 험하다. 지리지에 기록되기를 백두산 이남으로 설악이 가장 높은데 매년 음력 11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지었다. 동쪽에 국사봉, 보문암, 신흥사, 계조암이 있으며, 서쪽에 봉정암, 관폭 12폭, 수령동, 만경대, 이화동, 유홍굴, 오세암, 영시암이 있다. ○ 세속에 전하길 옛날에 신흥사 승려가 있었는데 체소를 구하러 산으로 들어갔다. 한참 밥을 먹으려 하는데 어떤 남루한 한 노파가 앞에 와서 밥을 구걸하였다. 스님이 생각 없이 그에게 밥을 주었는데 목을 조아리어 모두 토해내니 스님이 노하여 몽둥이를 휘둘렀다. 노파가 피하여 갔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스님이 산을 내려간 다음날 피를 토하면서 죽으니 사람들이 산신령이 귀양온 것이라고 여겼다더라. ○ 인제군 편에서도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다.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小祀 霜岳高城郡 雪岳達城郡 花岳斤平郡 鉗岳七重城 負兒岳

北漢山州 月奈岳月奈郡 武珍岳武珍州 西多山伯海郡 難知可縣
月兄山奈吐郡 沙熱伊縣 道西城萬弩郡 冬老岳進禮郡 丹川縣
竹旨及伐山郡 熊只屈自郡 熊只縣 岳髮一云髮岳 于珍也郡 于
火生西良郡

소사(小祀)¹¹⁾ 상악(霜岳) 고성군(高城郡), 설악(雪岳) 수성
군(達城郡), 화악(花岳) 균평군(斤平郡), 겹악(鉗岳) 칠중성(七
重城), 부아악(負兒岳) 북한산주(北漢山州), 월나악(月奈岳) 월
나군(月奈郡), 무진악(武珍岳) 무진주(武珍州), 서다산(西多山)
백해군(伯海郡)

《삼국사기(三國史記) 雜志 제1 祭祀條》

壇壝 新羅祀典係達城郡以名山載小祀

신라 제사의 제전은 수성군에서 계속되었다. 명산이기에 소사

11) 삼국시대에는 삼산 오악 이하 명산대천을 나누어 대사, 중사, 소사를
지냈다. 소사의 명산대천에는 설악산이 들어있다.

를 행했다.

『대동지지 간성 단유조』

小祀 霜岳 高城郡 今高城 雪嶽 遼城郡

소사(小祀) 상악(霜岳) 고성군(高城郡) 지금의 고성, 설악
수성군(遼城郡)

『증보문현 권61 禮考 十七』

나. 성황산(城隍山)

在府北二十五里

부 북쪽 25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산천조》

自雪嶽北麓來東之海岸自官門北距二十五里

설악 북쪽 산기슭부터 동쪽 해안까지 뻗어있고,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여지도서 양양 산천조》

在府北二十五里

부 북쪽 25리에 있다.

«동국여지지 권7 강원도편 양양 산천조»

北二十五里

북쪽 25리에 있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산수조»

自雪嶽北麓來東之海岸自官門北距二十五里

설악 북쪽 산기슭부터 동쪽 해안까지 뻗어있고,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관동읍지 양양 산천조》

自雪嶽北麓來東之海岸自官門北距二十五里

설악 북쪽 산기슭부터 동쪽 해안까지 뻗어있고,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관동지 13 양양 산천조》

在郡北三里

군의 북쪽 3리에 있다.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다. 이산(籬山)

在府北六十三里 雙成湖西卽大嶺東支也有奇峯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山

부의 북쪽 63리, 쌍성호 서쪽은 곧 큰 령의 동쪽 가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아서 옛부터 이런 이름이 지어졌으며, 세속에서 말하기 울산이라 하기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산천조》

自雪嶽東麓來爲青草湖西南岸有奇峯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山
亦稱天吼山

설악 동쪽 산기슭에서 시작하여 청초호 서남안에 이른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아서 울암 또는 천후산이라 칭한다.

《여지도서 양양 산천조》

在府北六十三里 雙成湖西卽大嶺東支也有奇峯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山

부의 북쪽 63리, 쌍성호 서쪽은 곧 큰 령의 동쪽 가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아서 옛부터 이런 이름이 지어졌으며, 세속에서 말하기 울산이라 하기도 한다.

《동국여지지 권7 강원도편 양양 산천조》

自雪嶽東麓來爲青草湖西南岸有奇峯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岩
亦称¹²⁾天吼山

설악 동쪽 산기슭에서 시작하여 청초호 서남안에 이른다. 기이
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아서 울암 또는
천후산이라 칭한다.

《양양부읍지 全 산천조》

自雪嶽東麓來爲青草湖西南岸有奇峯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山
亦天吼山

설악 동쪽 산기슭에서 시작하여 청초호 서남안에 이른다. 기이
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아서 울산 또는
천후산이라 칭한다.

《관동지 13 양양 산천조》

12) 稱(칭)의 약자.

在北六十三里

북쪽 63리에 있다.

《증보문헌비고 권23 輿地考 1》

自雪嶽東麓來爲青草湖西南岸有奇峰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山
亦稱天吼山

설악동쪽 산기슭에서 시작하여 청초호 서남안에 이른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아서 울산 또는 천후산이라 칭한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산천조》

在郡北六里雙成湖西卽大嶺東支也有奇峰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山

군의 북쪽 6리, 쌍성호 서쪽은 곧 큰 령의 동쪽 가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올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아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세속에서 말하길 울산이라 하기도 한다.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라. 천후산(天吼山)

在郡南七十里

군 남쪽 70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간성 산천조》

在郡南六十里西接彌時嶺南接襄陽新興寺¹³⁾主脉雪嶽山自麟蹄界
入來

군 남쪽 60리에 있다. 서쪽으로 미시령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 양양신흥사에 접해 있다. 설악산의 주맥으로 인제의 경계로부터 뻗어왔다.

《여지도서 간성군 산천조》

西北四十五里杆城界

서북쪽 45리 간성 경계.

《대동지지 권16 양양 산수조》

13) 新興寺(신흥사)로 이름을 바꾼 것은 최근이다. 神興寺의 오기가 아닐까 판단된다.

南七十五里襄陽界

남쪽 75리 양양 경계.

《대동지지 권16 간성 산수조》

在郡南七十里山多石巖風自中出謂之天吼世傳襄杆之間多大風以此云山有聖人臺有石狀似佛像故名其側大石如囷廩俗呼禾巖世傳昔有防戍於此而故以藁苦累¹⁴⁾此石示適以有峙糧仍以却敵故名之曰

군의 남쪽 70리에 있다. 이 산에는 바위가 많다. 바람이 산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天吼)’라고 전해오고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양양과 간성 사이에 찾고 큰바람이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 산에는 성인대가 있고 그 석상의 모양이 불상과 비슷하여 고로 이름을 붙였다. 그 옆에는 큰 바위가 쌀곳간(囷廩=균름)과 같은데 항간에서 부르기를 화암이라고 전해

14) 수성지에는 고점라(藁苦裸)로 되어 있음.

오고 있다. 옛날에 이 곳에 방수¹⁵⁾가 있었는데 이곳에 있는 돌이 마치 거적 대기를 쌓아놓은 것으로 보였다. 이 돌은 보여지기가 때마침 양식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여져서, 적이 퇴각했다는 고로 그 이름을 화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관동읍지 간성 산수조》

在郡南七十里山多石穴風自中出謂之天吼世傳裏杆之間多大風以此云山有聖人臺有石狀似佛像故名其側大石如囷廩俗呼禾巖世傳昔有防戍於此而故以藁苦累此石示適以有峙糧仍以却敵故名之云耳

군의 남쪽 70리에 있다. 이 산에는 바위구멍이 많다. 바람이 산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天吼)’라고 전해오고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양양과 간성 사이에 잣고 큰바람이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 산에는 성인대가 있고 그 석상의 모양이 불상과 비슷하여 고로 이름을 붙였다. 그 옆에는 큰 바위가 쌀곳간(囷廩=균름)과 같은데 항간에서 부르기를 화암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옛날에 이 곳에 방수가 있었는데 이곳에 있는 돌

15) 방수(防戍)-수자리 살며 국경을 지킴.

이 마치 거적 대기를 쌓아놓은 것으로 보였다. 이 돌은 보여지기가 때마침 양식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여져서, 적이 퇴각했다는 고로 그 이름을 화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관동지 13 간성 산수조》

在南七十里

남쪽 70리에 있다.

《증보문헌비고 권23 輿地考 2》

在郡北五里雪嶽之東北石峯高張撐挿半空中多竅穴大風將起山自先鳴故名尹判書淳篆刻山名于山下岩

군의 북쪽 5리 설악산 동북쪽에 있다. 돌 봉우리가 높게 펼쳐

져 있고 벼팀목처럼 박혀있다. 반은 공중에 떠있고 뚫린 구멍이 많다. 큰바람이 장차 불려고 하면 산이 먼저 올기 때문에 이름하게 되었다. 판서를 지낸 윤순이 산의 이름을 산 아래에 있는 바위에 새겼다.¹⁶⁾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蔚山 北三十里在青草湖西奇峯縱橫如設藩籬

울산 북쪽 30리 청초호 서쪽에 있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산수조》

16) 윤순이 계조암 입구에 계조굴이라고 쓴 사실을 말함.

마. 덕산(德山)

在府 北三十六里

부의 북쪽 36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산천조》

北三十五里

북쪽 35리에 있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산수조》

2. 호수(湖水)

가. 영랑호(永郎湖)

在郡南五十里周三十餘里汀回渚曲巖石奇怪湖東小峯半入湖心有古亭基是永郎仙徒遊賞之地

고을 남쪽 50리에 있다. 둘레가 30여 리쯤인데,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간 곳에 옛 정자터가 있다. 여기가 영랑(永郎) 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간성 산천조》

永浪湖¹⁷⁾ 在郡南五十里周二十餘諸山水流入湖溢則直破海口

17) 永郎湖(영랑호)의 오기 같음.

영랑호 군 남쪽 50리에 있다. 둘레가 20여 리며, 모든 산의 물이 호로 유입되어 가득 차 곧바로 바다입구로 흘려 보낸다.

《여지도서 간성 산천조》

郡南五十五里周三十餘里巖石奇怪湖東小峯半入湖心

군의 남쪽 55리에 있는데 둘레가 30여 리이다. 암석이 기묘하고 괴이하며, 호수의 작은 봉(峯)이 있는데 반은 호수의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

《연려실기술 별집 제16권 지리전고》

南五十里周三十里汀回諸曲岩石奇怪湖東小峯半入湖心有古亭基

남쪽 50리에 있다. 둘레가 30여 리쯤인데,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간 곳에 옛 정자터가 있다.

《대동지지 권16 간성 산수조》

在郡南六里餘汀回渚曲岩石奇怪湖東小峰半入湖心有古亭基是永郎仙徒遊賞之地

고을 남쪽 6여 리에 있다. 둘레가 30여 리쯤인데,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간 곳에 옛 정자터가 있다. 여기가 영랑(永郎) 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다.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在南五十里 周三十餘里 汀回渚曲巖石奇怪 湖東小峯半入湖心
是永郎仙徒遊賞地云

남쪽 50리에 있다. 둘레가 30여 리쯤인데,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가 있다. 여기가 영랑 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다.

《증보문헌비고 권23 輿地考 2》

나. 청초호(青草湖)

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 ○ 秘仙臺在湖之東北石峯峭拔其上
可坐

북쪽 40리, 간성군과의 경계에 있다. 둘레는 수십 리이다. ○ 비선대는 호수의 동북쪽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에 있는데 그 위는 가히 앉을 수 있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산수조》

在府北三十里周回數十里每冬冰合有千頃犁破之 是夜湖上民牛皆喘汗郡人謂之龍耕以此占歲豐凶一名雙成湖

군의 북쪽 삼십리에 있다. 주위 둘레는 수십 리이다. 매년 겨울 얼음이 밭을 갈아엎은 형상으로 안다. 이날 밤에 호수의 상류사람과 소들이 모두 땀흘리고 애썼으니 사람들은 그것을 용경¹⁸⁾이라 말했다. 이로써 점을 보아 그 해의 풍흉을 점쳤다. 일명 쌍성호이다.

《현산지 수원(水源)조》

在郡北三里周回數里每冬冰合有千頃劈破之狀是夜湖上民牛皆汗喘人謂之龍耕以此占歲之豐凶

군의 북쪽 삼 리에 있다. 주위 둘레는 수리다. 매년 겨울 얼음

18) 전설에 의하면 청초호는 겨울에 호가 어는데 얼음의 누워있는 방향을 보고 그 다음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고 한다. 즉 얼음이 어는 것이 꼭 논을 갈아 놓은 것 같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이 논을 갈아 놓았다고 해서 용경 또는 용갈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밭을 갈아엎은 형상으로 언다. 이날 밤에 호수의 상류사람과 소들이 모두 땀흘리고 애썼으니 사람들은 그것을 용경이라 말했다. 이로써 점을 보아 그 해의 풍흉을 점쳤다.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다. 쌍성호(雙成湖)

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부의 북쪽 40리, 간성군 경계에 있으며 둘레가 수십 리다. 호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¹⁹⁾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19) 조선시대 무관직의 하나. 만호·천호·백호 등은 본래 그 管領(관령)하는 民戶(민호)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차차 민호의 수와는 상관없이 鎮將(진장)의 품계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육군보다는 수군에 이 명칭이 남아 있으며, 조선 초기에도 만호·부만호·천호·백호 등이 있다가 점차 정리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산천조》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관문으로부터 북쪽 40리에 있다. 둘레가 20리이며, 호수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여지도서 양양 산천조》

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부의 북쪽 40리에 있다. 간성군과 경계에 있으며, 둘레가 수십 리다. 호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동국여지지 권7 양양 산천조》

府四十里杆城界周數十里形勝優於永郎湖

부의 북쪽 40리 되는 간성군과의 경계에 있다. 호수의 주위가 수십 리나 되며, 뛰어난 경치가 영랑호보다 더 좋다.

《연려실기술 별집 제16권 지리전고》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관문으로부터 북쪽 40리에 있다. 둘레가 20리이며, 호수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산천조》

在郡北四里周二里餘湖之形勝優於永郎浦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군 북쪽 4리에 있다. 둘레가 2여 리이며, 호수의 경치가 영랑포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관문으로부터 북쪽 40리에 있다. 둘레가 20리이며, 호수의 경
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양양부읍지 全 산천조》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
船今廢

관문으로부터 북쪽 40리에 있다. 둘레가 20리이며, 호수의 경
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관동읍지 양양 산천조》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
船廢

관문으로부터 북쪽 40리에 있다. 둘레가 20리이며, 호수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관동지 13 양양 산천조》

在北四十里周二十里有萬戶營泊兵船今廢

군 북쪽 40리에 있다. 둘레가 20리이며,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증보문헌비고 권 31 與地考 五》

3. 령(嶺)

가. 미시령(彌時嶺)

彌時坡嶺 在郡西南八十里許有路舊廢不行 成宗二十四年以襄陽府所冬羅嶺險阨復開此路

미시파령 고을 서남쪽 80리에 있다. 길이 있었으나 오래 전에 폐하여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간성 산천조》

在郡南六十里

군남쪽 60리에 있다.

《여지도서 간성 관애조》

彌時坡嶺 在郡南八十里許旧有往路今廢不行 成宗二十四年以
襄陽府所冬羅嶺險阨故復開此路襄杆兩邑官路

미시파령 군남쪽 80리에 있다. 예전에 다니던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하여 다니지 않는다. 성종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이
험하고 좁은 까닭에 다시 이 길을 열었다. 양양, 간성 양읍의 관
로이다.

《관동읍지 양양 산천조》

彌時坡嶺 在郡南八十里許旧有往路今廢不行

미시파령 군의 남쪽 80리에 있다. 예전에 왕래하는 길이 있었으
나 지금은 폐하여 다니지 않는다.

《관동지 13 간성 산천조》

在西南八十里見麟蹄右蔚山見總說 本朝 成宗朝以襄陽府所冬羅
嶺險阨復開此路俗稱麗水坡嶺

서남쪽 80리에 있다. 인제가 보이며, 우측에 울산이 보인다고 모두들 말한다. 본 조 성종 때 양양부 소동라령이 험하고 좁은 까닭에 다시 이 길을 열고 연수파령이라고 칭한다.

《증보문헌비고 권23 輿地考 2》

나. 연수파령(連水坡嶺)

西南八十里舊廢不行 成宗二十四年復開此路 ○ 華嚴寺在嶺之東環擁素嶂俯臨滄海寺之南嶺有聖人臺巨岩平廣可坐百餘人南挹天吼東俯永郎青草兩湖

서남쪽 80리에 있다. 예전에 폐하여 다니지 않았으나 성종24년 다시 이 길을 열었다. ○ 화암사는 령의 동쪽에 있으며 둘레는 하얀 바위산을 끼고있다. 창해사의 남쪽이고 령에는 성인대라는 거암이 있는데 평평하고 넓기가 가히 백여 명이 앉을 수 있다. 남쪽으로 천후산을 끼고 동쪽으로는 영랑, 청초 양 호수를 굽어본다.

《대동지지 권16 간성 산수조》

4. 천(川)

가. 도문천(道門川)

源出內院洞與食堂川合流爲湯淄川有橋

근원은 내원동에서 시작하며, 식당천과 합류하여 물치천을 이루고 다리가 있다.

《현산지 산천조》

道門水 源出內院洞與食堂川合流爲湯淄川

근원은 내원동에서 시작하며, 식당천과 합류하여 물치천을 이룬다.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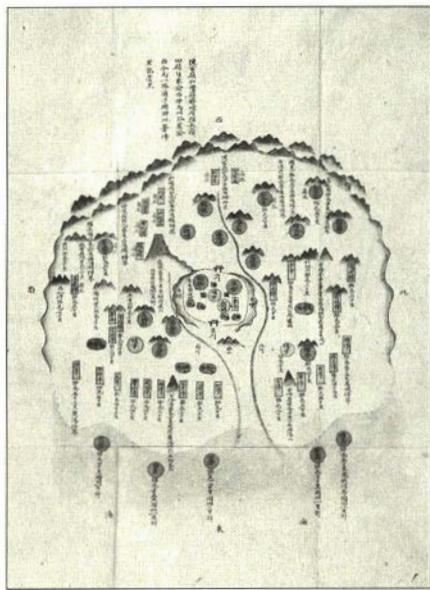
나. 사야지천(沙也只川)

在郡南五十里

군의 남쪽 50리에 있다.

«관동지 13 간성 산천조»

제 3 장 지 명(地名)



제 3 장 지 명(地名)

1. 방 리(坊里)

가. 도문면(道門面)

道門 西初二十 終三十 所川 西初二十五 終三十五

도문 서 시작 20, 끝 30. 소천 서 시작 25, 끝 35.

《대동지지 권16 양양 방리조》

上道門里北距三十里 下道門里北距二十五里 大浦里北距三十里
瓮津北距三十里合人戶一百五十八戶 神興寺在其西 所川面 論
山里北距三十五里扶月里北距三十五里東草里北距三十五里東津
北距三十五里合人戶二百四戶

상도문리, 북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다. 하도문리,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대포리, 북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다. 용진리, 북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다. 합인호 158호. 신흥사, 그 서쪽에 있다. 소천면 논산리, 북쪽으로 35리 떨어져 있다. 부월리, 북쪽으로 35리 떨어져 있다. 속초리, 북쪽으로 35리 떨어져 있다. 속진, 북쪽으로 35리 떨어져 있다. 합인호 204호.

《강원도 양양군읍지 2 방리조》

道天面 獐項里, 上道門里, 下道門里. 中道門里, 大浦里, 內沕
澗里, 蘆里, 論山里, 扶月里, 束草里, 外甕峙里

도천면 장항리, 상도문리, 하도문리, 중도문리, 대포리, 내물치
리, 노리,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외옹치리

《조선도부군면정동리개정구역표, 강원도 양양군》

나. 토성면(土城面)

獐川里 自官南距六十五里 沙也只津里 自官南距五十五里
沙也只里 自官南距五十里

장천리 관문남쪽으로부터 65리 떨어져 있다. 사야지진리 관
문남쪽으로부터 55리 떨어져 있다. 사야지리 관문남쪽으로부터
50리 떨어져 있다.

《관동읍지 간성 방리조》

土城面 土城里 自官南距三十里
東老洞里 自官南距四十里 獐川里 自官南距六十里 沙也只津里
自官南距五十里 沙也只里 自官南距五十里
較正 東老洞里 土城里 沙也只津里 今 沙津里 沙也只里

토성면 토성리 관문남쪽으로부터 30리 떨어져 있다. 동노동

리 관문남쪽으로부터 40리 떨어져 있다. 장천리 관문남쪽으로부터 60리 떨어져 있다. 사야지진리 관문남쪽으로부터 50리 떨어져 있다. 사야지리 관문남쪽으로부터 50리 떨어져 있다.
교정, 동노동리 토성리 사야지진리 지금의 사진리 사야지리.

《간성읍지 방리조》

章川里, 沙津里

장천리, 사진리

《조선도부군면정동리개정구역표, 강원도 양양군》

2. 일제시대의 지명²⁰⁾

종 별	지 명	언 문	위 치	비 고
寺刹名	神興寺	신흥사	도문면 토왕성리	
渡津名	青草湖	속식기목	소천면 속초리	
浦口名	東津	속식	소천면 속초리	
城堡名	權金城	권금성	도문면 토왕성리	
	土旺城	토왕성	도문면 토왕성리	
嶺崎峴名	馬騰峴	늘목영	도문면 토왕성리	
	天吼峙	호물지	"	
	牧牛峙	먹우지	도문면 상도문리	
	沙泥峙	싸리지	"	
	德峙	썩고기	도문면 중도문리	
	長鳴峙	장명고기	도문면 하도문리	
	南薰峙	나무고기	도문면 하도문리	
山谷名	青岱山	청디산	소천면 청대리	
	天吼山	호우지	도문면 토왕성리	
	達摩山	달마산	도문면 토왕성리	
	中旺山	중왕산	도문면 상도문리	
	青岱山	청디산	도문면 중도문리	
里洞名	論山里	론미	소천면 논산리	미?
	蘆洞	갈골	소천면 로동	
	束草里	속식	소천면 속초리	
	扶月里	비달리	소천면 부월리	
	外瓮津里	빠독지	소천면 외옹진리	
	丁庫里	정고리	도문면 정고리	
	土旺城里	토왕성리	도문면 토왕성리	
	獐項里	로루목이	도문면 장항리	
	上道門里	붓도문	도문면 상도문리	웃도문?
	中道門里	중도문	도문면 중도문리	
	下道門里	하도문	도문면 하도문리	
	內沕澗里	안물치	도문면 내물치리	
	大浦里	큰독지	도문면 대포리	
面名	所川面	소천면	양양군 소천면	
	道門面	도문면	양양군 도문면	

20) 조선지지자료(양양군편) 참조.

종 별	지 명	언 문	위 치	비 고
野坪名	所也坪	햇들우	소천면 논산리	
	何須遠坪	하수원드루	도문면	
	三城坪	삼성이드루	도문면 상도문리	
	陷穿坪	합정드루	도문면 중도문리	
	鐵坪	쇠판이드루	도문면 대포리	
江川溪澗名	蘆洞川	갈골니	소천면 노동	
	商山川	상산니	도문면 상도문리	
	雙川	쌍천	도문면 중도문리	
酒幕名	盤扶坪酒幕	반부둑쥬막	소천면 반부평리	
土產名	麻布	베	소천면	
	麻布	베	도문면	
	白紙	종우	도문면	
	土器	질그릇	도문면	
堤堰洑名	大浦里後堤堰	너더리방축	도문면	
	上洑	웃보	소천면	
	中洑	중보	소천면	
	末洑	쓰보	소천면	
	新洑	시보	소천면	
古蹟名所	飛仙台	비션디	도문면 신흥사지내	
	臥仙台	와션디	"	
	繼祖窟	계조굴	"	
古碑名	柳勿齋碑	유물지비	도문면내 물치리	
	神興寺事蹟碑	비석	도문면	신흥사 사적을 건립한 비

제 4 장 호 구(戶口)



제 4 장 호 구 (戸口)

道川面 上道門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二十男三十三口女三十三口 下道門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五男四十四口女八十二口 勿淄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十八男十九口女三十三口 大浦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四男三十五口女六十九口 瓮津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七十八男一百七口女一百三十一口 神興寺自官門西北間距四十里編戶二十僧四十九口

도천면

- 상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20 남33구 여33구
- 하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35 남44구 여82구
- 물치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0리에 있다. 편호18 남19구 여33구
- 대포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34 남35구 여69구
- 옹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78 남107구 여131구
- 신흥사, 관문으로부터 서북 사이 40리에 있다. 편호20 승49구

所川面 論山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二十男三十九口女五十八口 扶月浦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十八男四十八口女三十八口
東草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八十六男九十九女一百八十二口
東津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五十八男七十九口女九十六口

소천면

- 논산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20 남39구 여58구
- 부월포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18 남48구 여38구
- 속초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86 남99구 여182구
- 속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58 남79구 여96구

《여지도서 양양 坊里조》

所川面 論山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二十二男四十四口女四十口 扶月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十七男二十五口女二十五口
東津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二十七男四十六口女四十六口

소천면

- 논산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22 남44구 여44구
- 부월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17 남25구 여25구

- 속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7 남46구 여46구

《양양부읍지 全 방리조》

道川面 道門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二男四十口女三十九口
大浦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二男四十五口女四十五口
瓮津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三男三十三口女三十四口
神興寺自官門北距四十里僧四十口

도천면

- 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2 남40구 여39구
- 대포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2 남45구 여45구
- 옹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3 남33구 여34구
- 신흥사, 관문으로부터 북쪽 40리에 있다. 승40구

《양양부읍지 全 방리조》

道川面 上道門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六十一男九十五口女一

百四十五口 下道門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四男三十三口女五十八口 勿淄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二十一男二十五口女四十一口 大浦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三男二十四口女四十二口 瓮津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五男五十三口女七十四口 神興寺自官門北距五十里編戶二十一僧三十八口

도천면

- 상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61 남95구 여145구
- 하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4 남33구 여58구
- 물치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0리에 있다. 편호21 남25구 여41구
- 대포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3 남24구 여42구
- 용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35 남53구 여74구
- 신흥사, 관문으로부터 북쪽 50리에 있다. 편호21 승38구

《관동읍지 양양 방리조》

所川面 論山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三十八男五十一口女五十四口 扶月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五十二男七十二口女一百五口 東草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四十七男九十九女一百十一口 東津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五十一男七十口女一百六口

소천면

논산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38 남51구 여54구
 부월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52 남72구 여105구
 속초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47 남99구 여111구
 속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51 남70구 여106구

《관동읍지 양양 방리조》

道門面 上道門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六十一男九十五口女一百四十五口 下道門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四男三十三口女五十八口 勿淄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二十一男二十五口女四十一口 大浦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三男二十四口女四十二口 瓮津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五男五十三口女七十四口 神興寺自官門北距五十里編戶二十一僧三十八口

도문면

- 상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61 남95구 여145구
- 하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4 남33구 여58구
- 물치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0리에 있다. 편호21 남25구 여41구
- 대포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3 남24구 여42구
- 웅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35 남53구 여74구
- 신흥사, 관문으로부터 북쪽 50리에 있다. 편호21 승38구

《관동지 13 양양 방리조》

所川面 論山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三十八男五十一口女五十
四口 扶月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五十二男七十二口女一百
五口 東草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四十七男九十九女一百十
一口 東津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五十一男七十九口女一百
六口

소천면

논산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38 남51구 여54구
부월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52 남72구 여105구
속초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47 남99구 여111구
속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51 남79구 여106구

《관동지 13 양양 방리조》

道川面 在府北三十里 元戶一百八十五戶 男二百三十七口 女三
百四十七口

부의 북쪽 삼십 리에 있다. 원호 185호 남237구 여347구.

《현산지 방리조》

所川面 在府北三十五里

元戶一百八十二戶 男二百六十五口 女三百七十四口

부의 북쪽 35리에 있다. 원호182호 남265구 여374구.

《현산지 방리조》

(襄陽) 雪嶽尋常高等小學校 在道川面大浦里

大浦尋常小學校 在道川面大浦里

양양

설악심상고등소학교 도천면 대포리에 있다.

대포심상소학교 도천면 대포리에 있다.

《강원도지 권3 양양 방리조》

제 5 장 물 산(物 產)



제 5 장 물 산(物產)

1. 토산물(土產物)²¹⁾

苧 鐵 出西禪寺東峯下 竹箭 出竹島 海松子 五味子 紫草 人蔘
地黃 茯苓 蜂蜜 白花蛇 海衣 藕 瓢 紅蛤 文魚 大口魚 松魚
鱸魚 銀口魚 黃魚 魚 魚 古刀魚 廣魚 鮋魚 秀魚 雙足魚 海蔘
松蕈

모시 · 철(鐵) 서선사(西禪寺) 동쪽 봉우리 밑에서 산출된다.
죽전(竹箭-대나무 화살) 죽도에서 산출된다. 해송자 · 오미자 ·
지치(紫草) · 인삼 · 지황 · 복령 · 벌꿀 · 백화사(산무애뱀, 독사
의 일종) · 김 · 미역 · 전복 · 홍합 · 문어 · 대구어 · 송어 · 연
어 · 도루묵 · 황어 · 방어 · 고등어 · 광어 · 농어 · 숭어 · 쌍족어(雙足魚) · 해삼 · 송이버섯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토산조》

21) 토산(土產)은 그 지방의 특산품을 말한다.

苧 鐵 竹簡 海松子 人蔘 五味子 紫草 地黃 茯苓 蜂蜜 白花蛇
海衣 早藿 生蠻 紅蛤 文魚 大口魚 松魚 鱸魚 銀口魚 黃魚 古
刀魚 廣魚 鱸魚 秀魚 雙足魚 海蔘 松蕈

모시 · 철 · 대살 · 잣 · 인삼 · 오미자 · 지치(紫草) · 지황 · 복령 · 벌꿀 · 백화사 · 김(海衣) · 올미역 · 전복 · 홍합 · 문어 · 대구어 · 송어 · 연어 · 도루묵 · 황어 · 고등어 · 광어 · 농어 · 승어 · 쌍족어 · 해삼 · 송이버섯

《여지도서 양양 물산조》

麻 鐵 箭竹 海松子 五味子 人蔘 茯苓 紫草 蜂蜜 白花蛇 海衣
霍蠻 紅蛤 文魚 大口魚 松魚 鱸魚 銀口魚 黃魚 古刀魚 廣魚
鱸魚 秀魚 雙足魚 海蔘 松蕈 石蕈 鹽 ○ 黃腸封山-二處
高麗文宗十七年三司秦翼嶺縣產黃金請附貢籍

삼베 · 철 · 대나무화살 · 잣 · 오미자 · 인삼 · 복령 · 지치(紫草) · 벌꿀 · 백화사 · 김 · 전복 · 홍합 · 문어 · 대구어 · 송어 · 연어 · 도루묵 · 황어 · 고등어 · 광어 · 농어 · 승어 · 쌍족어 · 해삼

· 송이버섯 · 돌버섯 · 소금 ○ 황장봉산-2곳, 고려 문종 17년
삼사²²⁾는 익령현에서 산출되는 황금을 진상품으로 공적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토산조》

虎皮 熊皮 獐皮 獾皮 黃毛 猪皮 狸皮 海獺 水獺 海臘
海豚 紫蟹 紅蛤 海蔘 生鰻 大口魚 魚加魚 廣魚 文魚 沙魚
洪魚 松魚 連魚 黃魚 銀口魚 鱸魚 鯉魚 薑 鹽 茶 楂 竹 尊
梨 栗 楠 杏 桃 銀杏 樓桃 胡桃 木果 榛子 椒子 蓮子 柏子
五味子 五加皮 芝草 紅花 薯蕷 松蕈 晚耳 石耳

호피 · 웅피 · 장피 · 돈피 · 황모 · 저모 · 이피 · 단피(산돼지
피) · 해달 · 수달 · 해양 · 해돈 · 자해(개) · 홍합 · 해삼 · 생전복
· 대구어 · 방어 · 가어 · 광어 · 문어 · 사어 · 홍어 · 송어 · 연어
· 황어 · 도루묵 · 농어 · 잉어 · 미역 · 소금 · 차 · 닭나무 · 대나
무 · 순채 · 배 · 밤 · 감 · 살구 · 복숭아 · 은행 · 복숭아 · 호도 ·
목과 · 개암나무 · 대추 · 연밥 · 잣 · 오미자 · 오가피 · 지초 · 홍
화(잇꽃) · 서여 · 송이버섯 · 만이 · 석이

《현산지 물산조》

22) 삼사(三司)는 고려시대 국가의 전곡(錢穀)의 출납 · 회계를 맡아보던 관청이다.

2. 진공(進貢)

人蔘 白茯苓 白扁豆 赤茯苓 茅香 五味子 菊蔚子 何首烏 木通 白芍藥 羌活 當歸 川芎 蓼荊子 枳實 防風 茯神 獨活 牡丹皮 連翹 蟬殼 茄蔞仁 葛花 柴胡 金銀花 茵陳 藥皮 麻黃 白芨 山藥 蒜粟殼 犀羊角 猪 葛根 文魚 大口魚 松魚 鰣魚 銀口魚 廣魚 沙魚 鰣魚卵 海蔘 紅蛤 生鱉 大口卵 早蘿 生梨

인삼 · 백복령(흰빛깔의 복령) · 백편두 · 적복령(빛이 붉은 복령, 건위제 강심제로 씀) · 모향 · 오미자 · 충위자 · 하수오(새박뿌리) · 목통(으름덩굴 줄기와 뿌리를 말림) · 백작약(다년생초) · 강활 · 당귀 · 천궁(궁궁이) · 만형자(순비기나무의 열매) · 지실(썰어 말린 어린 팽자) · 방풍 · 복신(복령) · 독활(땅두릅의 뿌리) · 목단피 · 연교(개나리열매) · 선각(매미허물) · 고루인 · 갈화(칡꽃) · 시호(다년생초, 해열제로 씀) · 금은화(인동덩굴의 꽃) · 인진(사철쑥) · 벽피(황경나무껍질) · 마황(늘푸른 떨기나무) · 백급(대왕풀) · 산약(마의 뿌리) · 앵소각 · 영양각 · 산돼지 · 갈근(칡뿌리) · 문어 · 대구어 · 송어 · 연어 · 도루묵 · 광어 · 사어 · 연어알 · 해삼 · 홍합 · 생전복 · 대구알 · 올미역(일찍 따는 미역) · 배

《여지도서 양양 진공조》

3. 시장(市場)

束草市 在束草面三日七日開市

속초시 속초면에 있으며 삼일, 칠일에 시장을 연다.

《강원도지 권3 양양》

4. 금융조합

水產組合束草支部 在道川面 束草漁業組合 在道川面 農村振興
會婦人會 俱在各面

수산조합속초지부, 도천면에 있다. 속초어업조합, 도천면에 있다.
농촌진흥회부인회, 각 면에 함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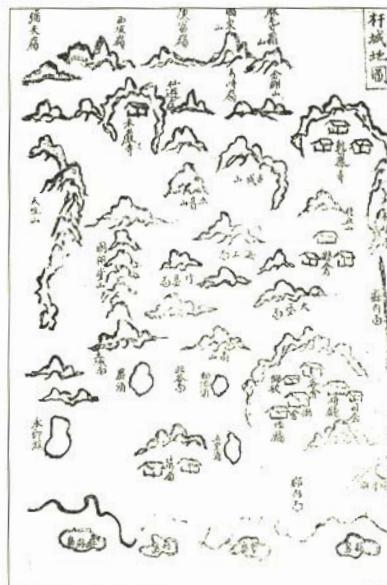
《강원도지 권3 양양》

大浦金融組合 在道川面

대포금융조합, 도천면에 있다.

«강원도지 권3 양양»

제 6 장 관 방(關防)



제 6 장 관 방(關防)

1. 성(城)

가. 권금성(權金城)

在雪岳頂石築周衛一千一百十二尺高四尺今半頽落俗傳昔有權金二家避亂于此故名洛山寺記所云天兵闖入我彊是州於雪岳山築城守禦疑即此

설악산 정상의 석성으로 둘레가 1,112척이고, 높이는 4척이다. 지금은 반쯤 남았을 뿐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권씨, 김씨 두 집이 이곳으로 피난한 까닭으로 권금성이라 이름하였다. 낙산사 기록에 몽고 침입으로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 성을 쌓아서 방어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고적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勢甚高絕石築周千餘尺廢堞尚在俗傳昔有
權金二姓避亂于故名

부의 북쪽 50리, 설악산 안에 있다. 형세가 매우 높고 가파르다.
석축의 둘레는 1천여 척이며, 허물어진 여장(女牆)이 있다. 속설에
전해 오기를 권, 김 2성을 가진 이가 피난 온 고로 이름을 붙였다.

《여지도서 양양 고적조》

在雪岳頂石築周一千一百十二尺今半頽落俗傳昔有權金二家避難
于此故名之

설악산 정상의 석성으로 둘레가 1,112척이고, 높이는 4척이다.
지금은 반쯤 남았을 뿐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권씨, 김씨
두 집이 이곳으로 피난한 까닭으로 권금성이라 이름하였다.

《동국여지지 권7 고적조》

廢山城 雪岳 在府北三十里 鎮山 城在山頂 石築昔有權金二家
避亂于此

폐산성 부 북쪽 30리, 진산 설악에 있다. 성은 산 정상에 석성으로 되어있다. 예전에 권씨와 김씨 두 집안이 이곳으로 피난했다.

《연려실기술 별집 제17권 변어전고》

雪岳山古城 在山頂稱權金城一云土王城 周二千一百十二尺

설악산 고성 설악산 정상에 있는데 권금성이라 칭한다. 다른 이름으로 토왕성이라 한다. 둘레는 2천 1백 12척이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성지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勢甚高絕石築周千餘尺廢堞尚在俗傳昔有
權金二姓避亂于故名

부에서 북쪽 50리, 설악산에 있다. 산 가운데 깊고 높은 곳에
석축으로 1천여 척으로 쌓여져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속설에 전
해 오기를 권, 김 2성을 가진 이가 피난 온 고로 이름을 붙였다.

《관동읍지 양양 성지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勢甚高絕石築周千餘尺廢堞尚在俗傳昔有
權金兩姓避亂于此故名

부에서 북쪽 50리, 설악산에 있다. 산 가운데 깊고 높은 곳에
석축으로 1천여 척으로 쌓여져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속설에 전
해 오기를 권, 김 2성을 가진 이가 피난 온 고로 이름을 붙였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성지조》

在雪岳之東神興寺南突兀縹渺不待秋衛登臨睡望氣像宏豁山腰有石築城俗傳權金二家避亂于此故名按益壯記癸丑丹兵闖入我疆是州於雪岳山築城守禦疑指此

설악의 동쪽 신흥사의 남쪽에 있다. 갑자기 우뚝 솟아 높고 면 모양이다. 가을을 기다리지 않고 올라 눈 가늘게 뜨고 바라보면 기상이 넓고 크다. 산허리에는 돌로 쌓은 성이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권씨, 김씨 두 집이 이곳으로 피난한 까닭으로 권금성이라 이름하였다. 익장기에 의하면 계축년 거란병이 우리 강토를 침범함에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 성을 쌓고 수어하였다고 했는데 이 곳이 아닐까 한다.

《현산지 성지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勢甚高絕石築周千餘尺廢堞尚在俗傳昔有權金二姓避亂于故名

부에서 북쪽 50리, 설악산에 있다. 산 가운데 깊고 높은 곳에

석축으로 1천여 척으로 쌓여져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속설에 전해 오기를 권, 김 2성을 가진 이가 피난 온 고로 이름을 붙였다.

《강원도읍지 양양 성지조》

在北五十里石築周二千一百十貳尺今廢

부의 북쪽 50리에 있으며, 돌로 쌓았다. 돌레는 2천 1백 12척이며 지금은 폐하였다.

《증보문헌비고 권28 與地考 十六 관방조》

在府北 五十里 石築 周 二千一百十四尺 今廢

부 북쪽 50리에 있다. 석성으로 둘레가 2,114척이나 지금은 없다.

《여지고 양양 성지조》

城址 道川面獐項里 私有 神興寺ノ 南方十數町ノ 岩壁上ニアリ
土王城及權金城址，一部石築ニシテ 周圍各約二千間，不完全

성지 도천면 장항리에 있다. 사유. 신흥사 남방 수십 정의 암벽 위에 있다. 토왕성 및 권금성지는 일부 석축으로 되어 주위 각약 이천 칸이나 불완전하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소화17년(1942), 조선총독부》

나. 토왕성(土王城)

在府北五十里雪岳山東 石築遺跡尚存俗傳 古有土姓王築此云
有瀑布數千丈飛下石間壁

부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석성으로 쌓은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토씨 성을 가진 왕이 이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폭포가 있는데 수천 길이나 돌벽 사이로 날아 떨어진다.

《여지도서 양양 고적조》

雪岳山古城 在山頂 稱權金城一云 土王城 周二千一百十二尺

설악산고성 산 정상에 있다. 다르게 권금성이라 칭한다. 토왕 성은 둘레가 2천 1백 12척이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성지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東 石築遺跡尚存俗傳 古有土姓王築此云
有瀑布數千丈飛下石間壁

부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석성으로 쌓은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토씨 성을 가진 왕이 이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폭포가 있는데 수천 길이나 돌벽 사이로 날아 떨어진다.

《관동읍지 양양 고적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東石築遺跡尚存俗傳古有土姓王築此云有瀑
布數千丈飛下石間壁

부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석성으로 쌓은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토씨 성을 가진 왕이 이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폭포가 있는데 수천 길이나 돌벽 사이로 날아 떨어진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권2 고적조》

在府北四十里 雪岳之中東 瀑布掛流數百丈 氣勢甚壯 有石築世
傳土姓王所造云。

부 북쪽 4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폭포가 수백 길이나 걸려 있는데 기세가 심히 웅장하다. 석성이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토씨 성을 가진 왕이 만들었다고 전한다.

《현산지 고적조》

在府北 五十里 石築 邑誌 土民王姓人築遺址尚存

부 북쪽 50리에 있다. 석성이다. 읍지에 토씨 성을 가진 왕과 백성들이 쌓았다고 한다. 터가 지금도 남아있다.

《증보문헌비고 권28 輿地考 一》

다. 기타 성지

城址 道川面大浦里 土木局所管 大浦里部落ノ 北數町ノ 山頂ニ 在リ 周圍約七十間 土築, 不完全

성지 도천면 대포리. 토목국소관. 대포리 부락의 북수정 산 정상에 있고, 주위 칠십 칸이며, 흙으로 쌓았다. 불완전하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소화17년(1942), 조선총독부》

城址 道川面束草里 私有 束草里部落ノ 西方ニ 近接セル 小丘上ニアリ 周圍約三百間土築, 稍完全

성지 도천면 속초리. 사유. 속초리 부락의 서쪽방향으로 근접한 작은 언덕 위에 있다. 주위 약 삼백 칸이며, 흙으로 쌓았다. 거의 완전하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소화17년(1942), 조선총독부》

2. 진 · 보(鎮堡)

· · · · 太祖六年丁丑始置鎮二鎮無留防軍有事則以侍衛牌充之
兵馬都節制使置司 江陵府都觀察使無之水軍萬戶守禦處六越松浦
在平海東舡一艘軍七十束草浦在襄陽北舡三艘軍二百單十 · · ·

태조 6년 정축에 비로소 진(鎮) 둘을 두었으나, 진에 유방군(留防軍)이 없어, 일이 있으면 시위패로 충당한다.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의 영을 강릉에 두고, 도관찰사(都觀察使)가 겸한다. 수군 만호 수어처(水軍萬戶守禦處)가 6이니 월송포가 평해(平海) 동쪽에 있고, 배가 1척 군사가 70명이다.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單) 10명이다.

《세종실록지리지 권153 진보조》

湧湍津 在府北二十里 束草津 在府北三十里 德山津 在府北二十五里

물치진 부 북쪽 20리에 있다. 속초진 부 북쪽 30리에 있다.
덕산진 부 북쪽 25리에 있다.

《현산지 진보조》

沕澨津 束草津 在郡北

물치진, 속초진, 군 북쪽에 있다.

《강원도지 1 양양 진보조》

海津 較正 沙也只津里 今沙津

해진 교정, 사야지진리 지금의 사진.

《간성읍지 진보조》

3. 이참(里站)²³⁾

汝淄○ 二十里 물치○ 이십리
德山○ 二十五里 덕산○ 이십오리
栗阜○ 三十里 율부○ 삼십리
束津地境○ 三十五里 속진지경○ 삼십오리

《현산지 이참조》

4. 봉수(烽燧)

德山烽燧 北應杆城竹島南應水山

덕산봉수 북쪽으로는 간성 죽도와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수산과 마주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봉수조》

23) 이참(里站)은 역마을의 의미이다. 물치 등은 역이 없던 곳이지만 여행자들이 숙박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 같다.

德山烽燧 在府北二十五里北應杆城竹島南應水山

부 북쪽 25리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간성 죽도와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수산과 마주한다.

《여지도서 양양 봉수조》

德山烽燧 在府北二十五里北應杆城竹島南應水山

부 북쪽 25리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간성 죽도와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수산과 마주한다.

《양양부읍지 全 봉수조》

德山烽燧 在府北二里五里北應杆城竹島南應水山

부 북쪽 25리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간성 죽도와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수산과 마주한다.

《관동읍지 양양 봉수조》

德山烽燧 在府北二十五里北應杆城竹島南應水山

부 북쪽 25리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간성 죽도와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수산과 마주한다.

《관동지 13 양양 봉수조》

德山烽燧 郡北三十五里

군 북쪽 35리에 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1 봉수조》

德山烽燧 在府北二十五里北應杆城竹島南應水山

북쪽 25리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간성 죽도와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수산과 마주한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봉수조》

德山烽燧 在府北十里甕津之東

부 북쪽 10리, 옹진의 동쪽에 있다.

《현산지 봉수조》

烽燧址 道川面外甕峙里 土木局所管 外甕峙里部落ノ 北東約百間ノ 海岸半島峰筋ニ 在リ 周圍約二十間ノ石積ノ 周ニ 半圓形ノ 土壘アリ 稍完全

봉수지 도천면 외옹치리, 토목국소관. 외옹치리 부락의 북동쪽 약 백칸의 해안반도 봉근에 있다. 주위 약 20칸의 석축으로 주변에 반원형의 토루가 있으며, 거의 완전하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소화17년(1942), 조선총독부》

5. 교 량(橋梁)

勿淄川橋 自官門北距二十五里

물치천교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여지도서 양양 교량조》

沕淄川橋 自官門北距二十五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양양부읍지 全 교량조》

勿淄川橋 自官門北距二十五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관동읍지 양양 교량조》》

勿淄川橋 自官門北距二十五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관동지 13 양양 교량조》》

沕淄川橋 自官門北距二十五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교량조》

沙也只川橋 在郡南五十里

사야지천교 군 남쪽 50리에 있다.

《여지도서 간성 교량조》

6. 우 편(郵便)

大浦郵便所 在道川面同上 汰濬郵便所 在道川面同上

대포우편소, 도천면에 있으며 위와 같다.(서울과 양양간 2일내지 3일)

물치우편소, 도천면에 있으며 위와 같다.

«강원도지 3 양양»

제 7 장 고 적(古蹟)



제 7 장 고 적(古蹟)

1. 사찰(寺刹)

가. 신흥사(神興寺)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 法堂六間 板閣三間 普濟樓七間 寮舍四間 房四十間

부 북쪽 50리, 설악산중에 있다. 법당 6칸, 판각 3칸, 보제루 7칸, 요사채 4칸, 승방 40칸.

《여지도서 양양 사찰조》

양양 신흥사 용암대사비명²⁴⁾ (襄陽神興寺龍巖大師碑銘)

有明朝鮮國龍巖堂大禪師碑銘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傅
李福源撰

資憲大夫原任漢城府判尹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姜世晃書
夫抱幽憂疾久謝筆硯 有浮屠弘慤者爲師乞銘 守東郭經歲不去祈
叩益堅 余始而疑卒而歎曰彼雖異吾道 而能竭其道之忠於身去之
後如此 殆有不斬然而然者存焉 是足以銘矣 按其狀 師法名體照
號龍巖 本鄭姓長城士族 幼失兩親與其兄北遊 兄歸而獨寓南漢
隨釋稔長老 入雪山祝髡受戒於白蓮堂智欽大師 後遇日庵法師益
肆力於內外典轉參南北諸宗 而歸日庵以所居內院屬師錫以法號
自此卓錫豎拂施教日廣 蓋於清虛爲七世孫云晚年謝遣門徒 一日
弟子洪波往省之師疾病 索筆書偈 曰與我有親 親 何時更 有親
親親返前昔在今 又無因我 今又得在前聖是吾親 今朝大笑去 楓
嶽萬峰濱乃浴身更衣 越三日示寂 卽己亥十二月二十一日壬戌也
壽六十七法臘五十一 門徒等建浮圖於內院之東寶藏舍利 師喜施
予 有心計自童歲解屬辭有詩文若干篇傳於其徒 余於少時游雪嶽
意有高禪逸士棲寄於巖洞松桂之間而未之見也 今聞師住此山
四十年竟以樂終其得於耳謨目營而融於心者必有神解妙證之
可以啞惺人性靈喜師之遇真境而恨余之無夙因也 銘曰 我不
識師 銘奚以爲 見師之偈 如真見師 東有雪山 桑海其隣 銘師
於是 是亦夙因 崇禎紀元後三己酉五月 日立

24) 용암대사비와 대원대사비는 본 연구소 이기영 위원의 해석을 실었다. 기존의 참고자료가 없고, 현재 쓰지 않는 한자가 많아 해석에 어려움이 많았다. 부분적으로 모르는 글자가 몇 자 있긴 하나 지역 불교사를 연구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된다.

유명 조선국 용암당대선사비명 (有明 朝鮮國 龍巖堂大禪師碑銘)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경연사감춘추관사이며 세자의 스승인 이복원이 짓고 자현대부로 전에 한성부판윤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지냈던 강세황은 쓴다.

노부가 울우병이 오래되어 글을 안 쓴지 오래되었는데 홍민이라는 중이 선사를 위하여 명을 지어주기를 청하여 동곽(東郭)을 지키며, 해가 지나도 가지 않고 기원하는 것이 더욱 견고하였다. 내가 처음에는 마칠 것을 의심했으나 탄식하면서 말했다. 저쪽이 비록 내 도(道)와는 다르나 능히 그 도(道)가 몸에 충만하기를 다할 수 있으니 선사가 떠난 후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명을 지을만하다 그 행장을 살펴보면 선사의 법명(法名)은 체조(體照)이고 호(號)는 용암(龍巖)이다. 본래 정씨(鄭氏)성으로 장성(長城)의 사족(士族)이었다. 어려서 양친(兩親)을 잃고 그 형과 함께 북쪽으로 유람(遊覽)왔다가 형은 돌아갔으나 홀로 남한 석임장로에게 일년간 의탁하였다.

설악산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백련당 지흡대사(白蓮堂 智欽大師)에게 계(戒)를 받았다. 후에 일암법사(日庵法師)를 만나 더욱 불경(佛經) 및 기타 전적(典籍)을 공부하였으며, 남북제종(南北諸宗)의 전적(典籍)들도 공부하였다. 일암(日庵)으로 돌아와 내원(內院)에 거할 때 스승이 법호(法號)를 주었다. 이로부터 석장(錫杖)을 세우고 닦음을 완성해 가르침

을 베푸는 것이 날로 넓어졌다.

대개 청허(淸虛)가 칠세손(七世孫)이 된다고 이른다. 만년(晚年)에 문도 들을 사절하여 보냈다. 하루는 제자 홍파왕(洪波往)이 선사를 보살폈는데 선사가 병이 위중할 때 붓을 찾아 계(偈)를 짓기를 나와 친함이 있는데 친함은 어느 때 바뀔까? 친했던 것은 예전에 것이 돌아온 것이니 지금(只今)은 또한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얻어진 것이니 성(聖) 이것이야말로 나의 친함이다. 오늘 아침 크게 웃으며 가리라.

만봉(萬峰)에 단풍이 들려 할 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지 삼일만에 입적하였으니 곧 개해 십이월 이십일일 임술(壬戌)이었다. 세수가 육십 칠세이고 출가한지 오십 일년이었다. 문도(門徒)들이 내원(內院)의 동쪽에 부도를 세우고 사리(舍利)를 보장하였다.

선사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으며, 또한 심계가 어렸을 적부터 뛰어났다. 문사와 시문(詩文) 약간편이 그 문도(門徒)에게 전해진다.

나는 젊은 시절에 설악산에 노닐면서 고선일사(高禪逸士)들이 석굴 송계(石窟 松桂)지간에 머물러 사는 것에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 지금 선사가 이산에 사십 년을 머무르다가 마침내 편안한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을 들었다. 선사는 귀에 들은 것을 눈으로 실천할 것을 도모했으며, 마음에 화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불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서이니 인성의 존엄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선사가 참된 경지를 만난 것을 기뻐하고 나에게 오래된 인연이 없음을 안타까이 생각한다.

그 명(銘)에 이르기를

나는 선사를 모르는데 명을 어떻게 지으리오.
선사의 계를 보니 선사를 봄는 것과 같아
동쪽에는 설악산이 있고,
상전벽해는 그 이웃에 있네.
이에 선사의 명을 지으니
이 또한 오래된 인연이리라.

崇禎紀元後三己酉년五月에 세우다

《양양신흥사대원대사비명(襄陽神興寺大圓大師碑銘)》

有明朝鮮國大圓堂大禪師碑銘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刑中樞府事原任奎章閣直提學俞彥鎬撰并篆
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曹允亨書雪
嶽名于域中古清寒子暨三淵翁遺躅尚在而淵翁所嘗與爲淨社之游
如隣道人雄大師其人皆靈淑所鍾超上津茂其道珠而其致一後之尚
賢者奚方內外之間焉余嘗居白城之墅有比丘道圓者自雪嶽走千里
爲師乞銘問其師乃賢道人高足大圓大師也嘻卽其淵源之所自可而
知師矣師法名無外號大圓堂本文姓高麗江城君益漸之後父壽遠母
金氏夢月而娠旣生肌膚淨潔不藉洗浴爲兒嬉戲皆作佛事見者異之
甫成童當戊申國難奔赴南漢守堞有勞難已賞射獲多當旦遂力辭而
歸忽自念人之寂於物者以有靈明也其可緣形役性喪吾神珠乎旣而
父母擇對將諫日送之乃中夜脫身走入雪嶽問道日庵大師大師卽賢

道人也賢與語奇之傳其心印繇其上有雪巖月渚楓潭鞭羊以接乎清虛於師六世也師夙有慧識於內外典深獨得以開衆覺中年苦眼眚於是面壁心灰回光內照行益苦道益尊蔚然爲一代業林之宗今上辛亥七月乙酉寂于雪嶽之極樂庵壽七十八臘六十臨化謂衆曰我將行矣其勿以彌文累我旣焚化有光燭天移日不去門僧慧遠得靈珠一顆爲浮圖以藏之云余仍誥之曰圓爾道以無爲爲宗顯揚褒大何有於師哉圓曰以爲無也則三千大界便作空華以爲有也則真妄皆境隨所在而致力亦人之道也圓頹古而氣清徧習竺典專心所事殆古所謂不見其山願見其木者歟遂爲之銘曰

赴難逃賞清虛之風兮
因性早覺月渚之通兮
五祖傳印臨濟之宗兮
由戎八宇水止鑑空兮
雪山嵯峨寶珠玲瓏兮
於千萬年皎皎靡終兮
崇禎紀元後三壬子十一月 日立

유명 조선국 대원당대선사비명

(有明 朝鮮國 大圓堂大禪師碑銘)

대광보국 승록대부(大匡輔國 崇祿大夫)로 전에 행판중추부사 (行判中樞府事)를 지냈고, 규장각 직제학(奎章閣 直提學)인 유언호(兪彦鎬)가 짓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공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工曹參判 兼 同知義禁

府事 五衛都摠府 副摠冠)인 조윤형(曹允亨)이 쓰다.

설악산은 나라에서 유명하다. 옛날 청한자(淸寒子)와 삼연옹(三淵翁)이 남긴 자취가 아직도 존재한다.

그리고 연옹이 함께 했던 정사(淨社)의 교유(交遊)로서 색도인(靄道人)과 응대사(雄大師) 같은 사람은 신령하고 맑은 기운이 모여 상무(上茂)를 초월한 분들이니 그 도(道)는 달랐으나 그 귀취점은 하나였다. 후세에 훌륭한 사람을 송상하는 사람이면 무엇 때문에 방내(方內)니 방외(方外)니 하는 차별을 하겠는가? 내가 일찍이 백성(白城)의 별장에 거(居)할 때 비구인 도원(道圓)이라는 자가 설악으로부터 천 리를 달려와 선사의 명(銘)을 짓기를 청하였다. 그 선사가 누구인가 물으니 곧 현도인(賢道人)의 제자 대원대사(大圓大師)였다. 아! 그 연원(淵源)이 그러하니 선사를 알만하다.

선사의 법명(法名)은 무외(無外)이고 호(號)는 대원당(大圓堂)이다. 본래(本來) 문씨(文氏) 성(姓)으로 고려(高麗) 강성군(江城君) 익점(益漸)의 후예(後裔)이다. 아버지는 수원(壽遠)이고 어머니는 김씨(金氏)이며, 태몽(胎夢)에 달을 보고 임신(姪娠)한 후 아이를 낳았는데 피부가 정결하여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아이 때 놀이를 하는데 모두가 불사(佛事)와 관계된 것이어서 보는 이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소년 때인 무신년(戊申年)에 국난을 당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난하여 성(城)을 지쳤는데 공이 있어 벼슬을 주려고 했으나 사양하고 돌아와 홀연히 사람이 사물에 적(寂)할 수 있는 것은 영명(靈明)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음이 육체적 생활(肉體的 生活)의 노예(奴隸)가 되어 사역(使役) 당하는 일은 자신의 신주(神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설악산(雪嶽山)에 들어가 일암대사(日庵大師)를 물어 찾았는데 대사(大師)가 곧 현도인(賢道人)이었다. 현인이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눠본 후 그에게 심인(心印)을 전해주었다.

그 위에는 설암(雪巖), 월저(月渚), 풍당(楓潭), 편양(鞭羊)이 있고 청허(淸虛)에 이르기까지 육세(六世)가 된다. 선사는 일찍이 불경(佛經) 및 기타 서적(書籍)에 깊은 지식이 있었으며, 깊이 있게 홀로 대중을 깨우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중년(中年)에는 안질(眼疾)로 고생하였으며, 이에 면벽(面壁)수련에 들어가 마음이 다하도록 수련한 결과 회광 내조(回光 内照)에 이르러 수행은 더욱 고통스러웠으나 도가 더욱 드높아져서 울연(蔚然)히 일대(一代)의 업(業)을 이루었다. 신해(辛亥)년 칠월(七月) 을유(乙酉)에 설악(雪嶽)의 극락암(極樂庵)에서 입적(入寂)하셨다. 세수(世壽)가 78(七十八)이요, 출가(出家)한지 60년(六十年)이었다. 입적(入寂)하기 전에 대중에게 이르기를 나는 장차 입적(入寂)할 것이다.

글을 지어 나를 얹매이지 말라, 이미 다비식을 치를 때 환희 비추는 빛이 하늘로 이어져 날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문승(門僧) 혜원(慧遠)이 영주일과(靈珠一顆)를 얻어 부도를 세우고 그것을 보장하고 이르기를 내가 거듭 밝히지만 선사의 도(道)는 무위(無爲)로써 기본을 삼는 것이니 선사에게 세상에 명예가 드러난다든가 칭찬 받는 것이 어찌 큰 것이 되겠는가? 선사가 말하기를 삼천 세계(三千世界)라는 것은 편히 지어낸 공상으로 없는 것이고, 진실과 허망한 것 모든 경우는 있는 곳에 따를 뿐이니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도(道)이다. 선사의 모습은 고풍스럽고 기는 맑으며 두루 학습하고 경전을 독실히 공부하였다.

하는 일마다 마음을 다하셨고 예전에 그 산을 보지 못하

며, 그 나무를 보기를 원하는 것인가? 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를 위하여 명(銘)을 짓노라.

어려움에 이르고 상을 피한 것은 청허(淸虛)의 풍이여,
인성(因性)을 일찍 깨달은 것은 월저(月渚)와 통한다.
오조(五祖)에 심인(心印)을 전한 것은 성취함의 으뜸이여,
마음으로 심복 시침은 명경지수 칠은 거울이다.
설산(雪山)은 우뚝 솟고 보주(寶珠)의 영룡(玲瓏)함이여,
천만년 후에도 고결함이 잊혀지지 않으리라.

崇禎紀元後三壬子년十一月에 세우다.

《유명 조선국 대원당대선사비명》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 法堂六間 板閣三間 普濟樓七間 寨舍四間 房四十間

부 북쪽 50리, 설악산중에 있다. 법당 6칸, 판각 3칸, 보제루 7칸, 요사채 4칸, 승방 40칸.

《관동읍지 양양 사찰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 法堂六間 板閣三間 普濟樓七間 寮舍四間 房四十間

부 북쪽 50리, 설악산중에 있다. 법당 6칸, 판각 3칸, 보제루 7칸, 요사채 4칸, 승방 40칸.

《관동지 13 양양 사찰조》

郡 北五十里 雪岳山中

군 북쪽 50리, 설악산중에 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1 사찰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 法堂六間 板閣三間 普濟樓七間 審舍四間 房四十間

부 북쪽 50리, 설악산중에 있다. 법당 6칸, 판각 3칸, 보제루 7칸, 요사채 4칸, 승방 40칸.

《강원도 양양군읍지 2 사찰조》

在府北五十里雪岳之東崇禎甲申以禪定寺移創今上丙子監司韓光筆設置禪教都僧統丁丑府使任公布教以關東緇營四字刻搨寺門壬午監司李公最中革罷甲申初設三寶

부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숭정 갑신²⁵⁾에 선정사를 옮겨지었다. 지금 임금 병자년에 감사 한광필이 선교도 승통을 설치하였다. 정축년에 부사 임포교가 관동치영이라는 4자를 새겨 절 문에 걸었다. 임오년에 감사 이최중이 혁파하고, 갑신년 초에 3보를 설치했다.

《현산지 사찰조》

25) 인조 22년(1644)을 말한다.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 法堂六間 板閣三間 普濟樓七間 寮舍四間 房四十間

부 북쪽 50리, 설악산중에 있다. 법당 6칸, 판각 3칸, 보제루 7칸, 요사채 4칸, 승방 40칸.

《강원도읍지 양양 사찰조》

在道川面雪岳山 新羅眞德王壬子慈藏律師創建稱香城寺

도천면 설악산에 있다. 신라 진덕여왕 임자년(652)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

《강원도지 권3 양양 사찰조》

朝鮮 仁祖 二十二年(甲申) 寺僧 灵瑞, 蓮玉, 惠元 等이 禪定寺 를 古址의 下十里 址에 重建하고 神興寺라 改名하고 事蹟碑 를 立하다.

조선 인조 22년(갑신)에 사승 영서, 연옥, 혜원 등이 선정사를 원 터의 10리 아래에 중건하고, 신흥사라 개명하여 사적비를 세웠다.

《신흥사 사적》

朝鮮 仁祖 二十五年(丁亥) 寺僧 灵瑞, 蓮玉, 惠元이 大雄殿을 創建하다.

조선 인조 25년(정해)에 사승 영서, 연옥, 혜원이 대웅전을 창건하였다.

《신흥사 사적》

朝鮮 顯宗 二年(辛丑) 海藏殿을 創하고 法華經, 中禮文, 結手文, 請文等의 版本을 藏하다.

조선 현종 2년(신축)에 해장전을 창건하고, 법화경, 중례문, 결수문, 청문 등의 판본을 넣었다.

《신흥사 사적》

朝鮮 肅宗 四十一年(乙未) 說禪堂이 火하다.

조선 숙종 41년(을미)에 설선당이 불탔다.

《신흥사 사적》

朝鮮 肅宗 四十三年(丁酉) 寺僧 就眞, 益成 等이 說禪堂을 重建하다.

조선 숙종 43년(정유)에 사승인 취진, 익성 등이 설선당을 중건하였다.

《신흥사 사적》

朝鮮 英宗 十三年(丁巳) 冥府殿을 創建하고 地藏菩薩像을 塑成하다.

조선 영종 13년(정사)에 명부전을 창건하고, 지장보살상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신흥사 사적》

朝鮮 英宗 三十七年(辛巳) 寺僧 弘微, 弘運 等이 大雄殿의 石階를 築하다.

조선 영종 37년(신사)에 사승 홍미, 홍운 등이 대웅전 계단을 쌓았다.

《신흥사 사적》

朝鮮 純祖 元年(申酉) 寺僧 碧波暢悟 等이 龍船殿을 創建하고 列聖朝의 位牌를 奉安하다.

조선 순조 원년(신유)에 사승 벽파, 창오 등이 용선전을 창건하고, 열성조(역대 왕들의 조정) 위패를 봉안하였다.

《신흥사 사적》

朝鮮 純祖 十三年(癸酉) 寺僧 周雲, 詰修, 潤贊等이 不二門과
斷俗門을 建하다.

조선 순조 13년(계유)에 사승인 주운, 철수, 윤찬 등이 불이문
과 단속문을 세웠다.

『신흥사 사적』

朝鮮 純祖 二十一年(辛巳) 寺僧 巨寬, 近旻, 美聰, 勝琦, 暢悟
등이 極樂寶殿을 重修하다.

조선 순조 21년(신사)에 사승인 거관, 근민, 부총, 승기, 창오
등이 극락보전을 중수하였다.

『신흥사 사적』

朝鮮 哲宗 九年(戊午) 碧河, 明成 等이 十六羅漢像을 九月山
貝葉寺로부터 海藏殿에 移安하고 海藏殿의 經板을 大雄殿에
移安하고 海藏殿을 應眞殿이라 改額하고 小香閣을 建하다.

조선 철종 9년(무오)에 벽하, 명성 등이 16나한상을 구월산 패
엽사로부터 해장전에 이안하고, 해장전의 경판은 대웅전으로 옮
기고, 해장전을 응진전이라고 현판을 바꾸고, 소향각을 세웠다.

《신흥사 사적》

大韓 降熙六年(壬子) 乾鳳寺의 末寺가 되다.

대한 강희 6년(임자) 건봉사의 말사가 되었다.

《신흥사 사적》

나. 내원암

在神興寺北十間

신흥사 북쪽에 있고, 10칸이다.

《여지도서 양양부 사찰조》

在神興寺北十間

신흥사 북쪽에 있고, 10칸이다.

《관동읍지 양양 사찰조》

在神興寺北十間

신흥사 북쪽에 있고, 10칸이다.

《관동지 13 양양 사찰조》

在神興寺北十間

신흥사 북쪽에 있고, 10칸이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권2 사찰조》

在天吼山下 今上丁未山入幸稔重修

천후산 아래에 있다. 지금의 왕정미년에 행임이 증수했다.²⁶⁾

《현산지 사찰조》

在神興寺北十間

신흥사 북쪽에 있고, 10칸이다.

《강원도읍지 양양 사찰조》

神興寺山內 新羅真德女王任子慈藏律師初建能仁菴 李朝仁祖甲
申用 菴大師重建改稱內院菴

26) 내원암은 신라 진덕여왕 6년(壬子年, 653)에 자장율사가 향성사의 창건과 함께 암자를 세워 능인암이라 하였으나, 화재로 인해 여러 차례 중건되었다. 이 기록은 정조 11년(1787)의 기록으로 추정된다.

신흥사에 소속되어 있다. 신라 진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능인암을 처음 만들고, 조선 인조 갑신년에 용암대사가 중건하고, 내원암이라 바꾸었다.

《강원도지 권3 양양 사찰조》

朝鮮 仁祖 二十二年(甲申) 龍岩大師 能仁庵을 古址에 重建하고 内院庵이라 改稱하다.

조선 인조 22년(갑신)에 용암대사가 능인암 옛 터에 중건하고, 내원암이라 바꾸었다.

《신흥사 사적》

朝鮮 哲宗 十一年(庚申) 内院庵이 火하니 慧峰이 重建하다.

조선 철종 11년(경신)에 내원암이 불탔으나 혜봉 스님이 중건하였다.

《신흥사 사적》

朝鮮 高宗 二十二年(壬午) 勁峯이 内院庵의 獨成殿을 建하고 山神幘을 造成하다.

조선 고종 22년(임오)에 경봉이 내원암에 독성전을 건립하고, 산신탕(화)를 조성하였다.

《신흥사 사적》

朝鮮 高宗 二十二年(乙酉)에 内院庵이 火하다.

조선 고종 22년(을유)에 내원암이 불탔다.

《신흥사 사적》

朝鮮 高宗 二十八年(辛卯) 內院庵의 後佛幘七星幘神將幘을
造成하다.

조선 고종 28년(신묘)에 내원암에 후불탱, 칠성탱, 신장탱을 조
성하였다.

《신흥사 사적》

다. 향성사(香城寺)

在府西四十里 雪岳之東 移爲禪定寺

부 서쪽 4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선정사로 옮겼다.

《현산지 사찰조》

新羅 真德女王六年(壬子) 때 慈藏律師가 雪岳山의 東에 香城寺
를 創하다. 慈藏이 九層石塔을 造하야 佛舍利를 奉安하다.

신라 진덕여왕 6년(임자) 때 자장율사가 설악산 동쪽에 향성사
를 창건하였다. 자장율사가 9층 석탑을 조성하고, 불사리를 봉안
하였다.

《신흥사기(神興寺記)중 일부》

新羅 孝昭王7년(戊戌)에 香城寺가 火燄다.

신라 효소왕 7년에 향성사가 불탔다.

《신흥사 사적》

朝鮮 宣組 二十五年(壬辰) 兵燹으로 因하야 九層塔이 破壞되다.

조선 선조 25년(임진)에 병화로 인하여 9층 석탑이 무너졌다.

《신흥사 사적》

寺址 道川面獐項里 私有 獐項里部落ノ 西方約三百間ニアリ
香城寺址, 新羅哀莊王時代ノ 建設ニシテ 現存神興寺ノ 舊基
ナリト 云フ 三重ノ 塔一基アルノミ

사지 도천면 장항리. 사유. 장항리 부락의 서방 약 삼백 칸에 있는 향성사지. 신라 애장왕 시대에 건설해서 현존하는 신흥사의 옛 터라고 한다. 3층의 탑 1기가 있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소화17년(1942), 조선총독부》

라. 보현사(普賢寺)

在天吼山 今廢

천후산에 있으며, 지금은 폐하였다.

《관동지 13 간성 사찰조》

마. 계조굴(繼祖窟), 계조암(繼祖庵)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고, 담 벽이 무너졌으며, 기와가 날아가 떨어졌다.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는데 마치 소리가 물이 끓는 것 같았고, 설악산의 신흥사 및 계조굴의 거암이 모두 붕괴되었다.

《숙종실록 38집 양양 사찰조》

在府東北五十里天吼山下 窟勢豁豁 中有僧舍 因石爲屋

부의 북쪽 50리, 천후산 아래에 있다. 굴세가 깊고 안에 절이 있는데 돌로 지었다.

《여지도서 양양부 고적조》

在府北五十里天吼山下 窟勢豁豁 中有僧舍 因石爲屋

부의 북쪽 50리, 천후산 아래에 있다. 굴세가 깊고 안에 절이 있는데 돌로 지었다.

《관동읍지 양양 고적조》

在府北五十里天吼山下 窟勢豁豁 中有僧舍 因石爲屋

부의 북쪽 50리, 천후산 아래에 있다. 굴세가 깊고 안에 절이 있는데 돌로 지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고적조》

在府北五十里天吼山下窟勢窟如屋子樣世傳繼祖禪師修道處屈之南盤石上有石一人動之有微動萬人動之動不加焉名以動石窟號三字大刻尹判書淳筆

부의 북쪽 50리, 천후산 아래에 있다. 굴세가 깊어 마치 집과 같다. 세상에 전하기를 계조 선사가 수도하던 곳이라 한다. 남쪽에 돌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움직이나, 만 사람이 움직이나 변함이 없다 이름하여 동석이라 한다. 계조굴 3자는 판서 윤순이 쓴 것이다.

《현산지 사찰조》

在府北五十里天吼山下窟勢窟中有僧寺因石爲屋此乃窟也

부 북쪽 50리, 천후산 아래에 있다. 굴세가 깊은데 안에 돌로 된 절이 있는데 이것이 곧 계조굴이다.

《강원도읍지 양양 고적조》

在神興寺山內新羅眞德女王壬子慈藏律師所創建

신흥사에 팔려 있다. 신라 진덕여왕 임자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

《강원도지 권3 사찰조》

新羅 眞德女王 六年(壬子) 慈藏律師가 繼祖庵을 創하다.

신라 진덕여왕 6년(임자)에 자장율사가 계조암을 창건하였다.

《신흥사 사적》

朝鮮 高宗 二十七年(庚寅) 應化大師 繼祖庵의 三聖閣을 創하다.

조선 고종 27년(경인)에 응화 대사가 계조암의 삼성각을 지었다.

《신홍사 사적》

大韓 降熙 二年(戊申) 東庵이 繼祖庵을 丹靚하고 東果 후를 정을 조성하다.

대한 강희 2년(무신)에 동암이 계조굴을 단획하고, 동과가 후 불탱을 조성하였다.

《신홍사 사적》

바. 능인암(能仁庵)

新羅 眞德女王六年(壬子) 慈藏律師가 繼祖庵과 能仁庵을 創하였다.

신라 진덕여왕 6년(임자)에 자장율사가 계조암과 능인암을 창건하였다.

《신흥사 사적》

新羅 孝昭王 七年(戊戌) 能仁庵이 火하다.

신라 효소왕 7년(무술)에 능인암이 불탔다.

《신흥사 사적》

사. 선정사(禪定寺)

舊在 今內院之基 崇禎甲申 以爲神興寺

옛날에 지금 내원암 자리에 있었다. 승정(인조 22년) 갑신년 이후 신흥사이다.

《현산지 사찰조》

新羅 孝昭王十年 辛丑에 義湘組師가 香城寺를 能仁庵址에 重建하고 禪定寺라 改稱하다. 義湘이 彌陀像觀音像大勢至像을 造成하다.

신라 효소왕 10년(신축)에 의상 조사가 향성사를 능인암 옛 터에 중건하고, 선정사라 개칭하였다. 의상조사는 아미타상, 관음상, 대세지상을 선정사에 조성하다.

《신흥사 사적》

朝鮮 仁祖 20년(壬午)에 禪定寺가 火하다.

조선 인조 20년(임오)에 선정사가 불탔다.

《신흥사 사적》

아. 소림암(小林菴)

在神興寺東八間

신흥사 동쪽에 있으며 8칸이다.

《여지도서 양양 사찰조》

160 옛 文獻 속의 東草

在神興東八間

신흥사 동쪽에 있으며 8칸이다.

《관동지 13 양양 사찰조》

今廢

지금 없다.

《관동읍지 양양 사찰조》

在達摩峰下今上甲戌山人冲鏡創之李公壽觀題樓柱曰寺創紅羅運
訖年獨擎中華大明天若教錢牧²⁷⁾聞茲寺何羨蘇仙赤壁船

달마봉 아래에 있다. 지금의 왕 갑술년에 승려 충경이 그것을
창건하였다.²⁸⁾ 이수관이 누(樓)의 기둥에 제목하여 말하길

절은 국운이 다하는 때에 창건되어,

홀로 中華의 명나라를 받들었네.

만약 전겸익(錢謙益)으로 하여금 이 절에 대해 듣게 했다면

어찌 소동파의 적벽선을 부러워했겠는가?

《현산지 사찰조》

在神興寺東八間

신흥사 동쪽에 있으며 8칸이다.

《강원도 읍지 양양 사찰조》

27) 錢牧(전목), 전겸익을 말함. 명(明)말 · 청(淸)초의 문인. 호는 牧齋(목제)

28) 금상(今上) 갑술(甲戌)년에 창건되었다라는 기록은 잘못인 듯하다.

현산지의 하한선은 1800년(정조 24년)인데, 그 이후 순조대에 증보되어
갔다고 볼 때 순조 14년(1814)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아있는 탑의 양식
이 고려시대 것임을 보면 신라 문무왕 때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더 신
빙성이 있다.

新羅 文武王 二年(壬戌) 寺僧 沖鏡이 少林庵을 創하다.

신라 문무왕 2년(임술)에 사승인 충경이 소림암을 창건하였다.

《신흥사 사적》

少林庵(廢庵) 新羅 文武王 二年(壬戌)에 創하나 廢한 年代는
未詳하니라.

소림암(폐암), 신라 문무왕 2년(임술)에 창건하였으나 폐한 연
대는 알 수 없다.

《신흥사 사적》

2. 누대(樓臺)

가. 비선대(秘仙臺)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峰峭拔上有獨松凝株望之如畫其上
可坐有徑如線通陸 海惡則不得渡

부의 북쪽50리, 쌍성호 동쪽에 있다. 돌 봉우리가 가파르게 빼어났고, 위에 노송 두어 그루가 있어서 바라보면 그림 같다. 그 위에는 앉을 만하며, 실같은 길이 육지와 통하는데 바다 물결이 사나와지면 건널 수 없다.

«동국여지지 권7 양양 누대조»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峰峭拔可觀舊有亭今廢

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

데 가히 볼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관동읍지 양양 누대조》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峰峭拔可觀舊有亭今則廢

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
데 가히 볼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관동지 13 양양 누대조》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峰峭拔可觀舊有亭今廢

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
데 가히 볼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누대조》

郡北五十里

군의 북쪽 50리에 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누대조》

在府北五十里 海上巖石 平寬 可坐數十人

부의 북쪽 50리에 있다. 해상암석이 평평하고 넓어 가히 수십
인이 앉을 만하다.

《현산지 누대조》

나. 비선대(飛仙臺) 와 와선대(臥仙臺)

飛仙臺 在府西五十里食堂洞白石平鋪清川中流或布而爲瀑或停而爲潭臺之北壁石嶂突聳森束如劒戟樣

설악산 동쪽 식당동에 있다. 하얀 돌이 넓게 펼쳐져 맑은 물이 가운데로 흐르면서 혹은 퍼져서 폭포가 되고, 혹은 머물러 소가 되었다. 대의 북쪽 벽은 돌이 높게 솟아올라 삑삑하게 둑여있는 것이 칼과 창같이 삼엄한 기세였다.

《여지도서 양양부 고적조》

飛仙臺 在府西五十里食堂洞白石平鋪清川中流或布而爲瀑或停而爲潭臺之北壁石嶂突聳森束如劒戟樣

설악산 동쪽 식당동에 있다. 하얀 돌이 넓게 펼쳐져 맑은 물이 가운데로 흐르면서 혹은 퍼져서 폭포가 되고, 혹은 머물러 소가 되었다. 대의 북쪽 벽은 돌이 높게 솟아올라 삑삑하게 둑여있는 것이 칼과 창같이 삼엄한 기세였다.

《관동읍지 양양군 고적조》

臥仙臺 在雪嶽之東食堂洞中白石平鋪清川中流或布而爲瀑或停而爲潭

설악산 동쪽 식당동 가운데 있다. 하얀 돌이 넓게 펼쳐져 맑은 물이 가운데로 흐르면서 혹은 퍼져서 폭포가 되고, 혹은 머물러 소가 되었다.

《현산지 고적조》

飛仙臺 在臥仙臺之上川石視臥仙尤勝而北崖石嶂之突慾松束令人驚吁亦蓬萊之所無三淵金公昌翕所謂東方川石中上乘者臺號三字大刻尹判書淳筆

비선대 와선대 위에 있다. 산수가 와선대보다 뛰어나다. 북쪽 절벽의 돌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고, 소나무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 감탄하게 하며, 봉래(금강산)에서도 볼 수 없는 절경이라고 감탄케 했다. 삼연 김창흡은 소위 동방의 산수 중 가장 뛰어나다고 했다. 대에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판서 윤순의 글씨다.

《현산지 고적조》

다. 침산정(浸山亭)

在府北四十里 靑草湖之東岸 陶庵李尙書綽 嘗遊山到此 數日誦
詠 見峴叟李參議彙晋 約以臨湖起亭 以作晚年 遊遙之所 而預
作名曰浸山 以雪岳峯嶽 薰倒湖心 而然也 今廢

부의 북쪽 40리, 청초호 동쪽 기슭에 있다. 도암 상서 이재가 일찍이 산을 유람하다 이곳에 도착하여 수일동안 시를 읊었다고 한다. 현수 참의 이휘진이 호수 인근에 정자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노년을 이곳에서 소요하고자 미리 이름을 지어 침산이라 불렀다. 침산이라 이름지은 이유는 설악산의 바위 봉우리가 거꾸로 호수 중간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없다.

《현산지 고적조》

3. 사묘(祠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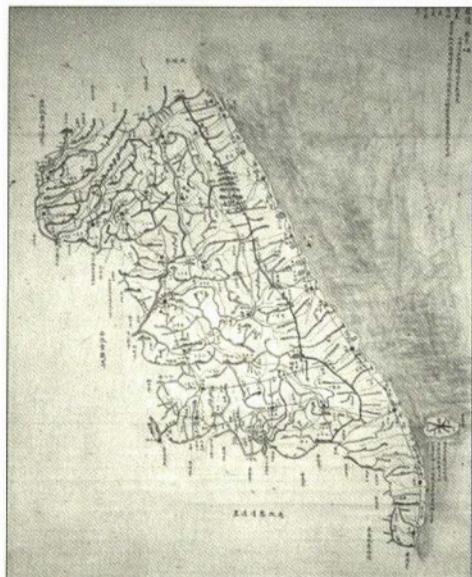
勿齋祠宇 在府北十五里卽勿齋²⁹⁾俞公晦一之祠

물재사우 부 북쪽 십오리에 있다. 즉 물재 유회일의 사당이다.

《현산지 사묘조》

29) 유회일(俞晦一). 호는 물재(勿齋). 창원 출생. 조선 후기 학자로 당쟁을
피해 이 곳 대포동(물치리)에 오랫동안 머문 학자이다. 그의 학덕과 부친에
대한 효성을 마을 사람들이 흠토하여 사당을 세워 추모하였으나, 사당은 사
라지고 지금은 유허비(遺墟碑)만이 대포동(내물치리)에 세워져 전한다.

제 8 장 풍 속(風俗)



제 8 장 풍 속(風俗)

1. 풍속(風俗)

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尚文學 貴禮義

농업과 양잠을 업으로 했으며, 장례를 불쌍히 여겨 도왔으며, 잔치를 열어 놀기를 즐겨했으며, 학문을 숭상했으며, 예의를 귀히 여겼다.

《여지도서 양양부 풍속조》

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尚文學 貴禮義

농업과 양잠을 업으로 했으며, 장례를 불쌍히 여겨 도왔으며, 잔치를 열어 놀기를 즐겨했으며, 학문을 숭상했으며, 예의를 귀히 여겼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풍속조》

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尚文學 貴禮義

농업과 양잠을 업으로 했으며, 장례를 불쌍히 여겨 도왔으며, 잔치를 열어 놀기를 즐겨했으며, 학문을 숭상했으며, 예의를 귀히 여겼다.

《관동지 13 양양부 풍속조》

喜遊宴 業農桑 恤喪葬 信巫鬼

잔치를 열어 놀기를 즐겨했으며, 농업과 양잠을 업으로 했으며, 장례를 불쌍히 여겨 도왔으며, 무격을 믿었다.

《현산지 풍속조》

2. 성씨(姓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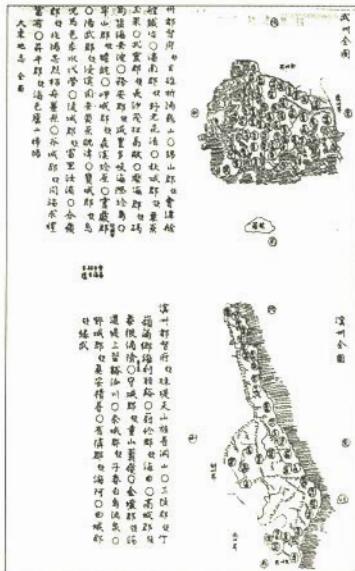
현산지		강원도 양양군 읍지1	강원도 양양군 읍지2	양양부 읍지
성씨	본관	본관	본관	본관
金	江陵, 金海, 慶州	江陵, 慶州, 金海	江陵, 慶州	江陵, 慶州
崔	江陵, 慶州	江陵	江陵	
鄭	延日	草溪	草溪	草溪
張	蔚珍	蔚珍	蔚珍	蔚珍
吳	海州			
李	咸平, 全義, 嘉山, 慶州	咸平, 全義, 慶州, 嘉山	咸平, 全義, 安城, 慶州, 完山	咸平, 全義, 安 城, 慶州, 嘉山
朴	清州, 密陽	清州, 密陽	清州	清州
孫	密陽			
林	羅州		羅州	羅州
黃	昌原		昌原	昌原
趙	漢陽, 豊壤			
尹	坡平	坡平	南原	南原
盧	光州	光州	光州	光州
高	濟州	濟州	濟州	濟州
咸	江陵			
河			晉州	
蔡			平康	平康
崔				江陵

3. 인물

세제 시강원(世弟侍講院) 진선(眞善) 김창흡(金昌翕)이 졸하였다. 김창흡의 자(字)는 자익(子益)이고, 호(號)는 삼연(三淵)인데, 영의정 김수항의 아들이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났고, 젊은 날 협기를 드날렸으며, 약관에 진사(進士)가 되었다. 일찍이 장자(莊子)의 글을 읽다가 마음속에 황연하게 깨달은 바가 있어 이때부터 세상일을 버리고는 산수(山水) 사이에 방랑하며, 고악부(古樂府)의 시도(詩道)를 창도하여 중홍조(中興祖)가 되었다. 또 선가·불가에 탐닉하여 오랫동안 스스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가화를 당하자 비로소 그 형 김창협과 함께 학문에 종사하니, 그 견해가 때로 크게 뛰어났다. 만년에는 설악산에 들어가 거처를 정하고 《주역》을 읽었는데 스스로 ‘정자(程子)·주자(朱子)’가 이르른 곳이라면 또한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경종실록 41집 양양』

제 9 장 설 화(說話)



제 9 장 설 화(說話)

1. 童子僧의 寄智<설악산·울산바위>

산신령이 금강산을 만들고 있을 때였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만들까’하고 며칠간 궁리하던 신령이 묘안을 하나 얻었다. 1만 2천 개의 봉우리를 각각 그 형체가 다르게 조각하면 훌륭한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금강산에는 그만큼의 바위가 없었다. 그래서 신령은 전국 각지 산에다 큰 바위는 모조리 보내도록 엄명을 내렸다. 큰 바위들은 모두 금강산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이때 경상도 울산 땅 큰 바위도 누구에게 뒤질세라 행장을 차려 금강산 여정에 올랐다. 원래 덩치가 크고 미련한 이 바위는 걸음이 빠르지 못해 진종일 올라왔으나 어둠이 내릴 무렵 지금의 설악산에 당도했다. 날은 저물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다.

“에라, 이왕 늦은 김에 이곳에서 하룻밤을 쉬어가자.”

하룻밤을 편히 쉬고 다음날 아침 금강산으로 떠나려고 막 한 발자국을 내디디려는데 금강산 신령이 보낸 파발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어젯밤 자정으로 금강산은 이미 1만 2천 봉을 다 채웠으니 오지 말라는 뿐부요.”

바위는 기가 막혔다. 어찌나 분하고 섭섭했던지 그만 엉엉 울고 말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길도 아득할 뿐만 아니라 체면도 말이 아닐 것 같았다. 한참 넋을 잃고 우는 바위의 모습을 지켜보던 금강산 사자는 뜡시 딱했던지 바위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이 설악산이 금강산만은 못하나 울산 땅보다야 나을 것
이니 여기서 머무는 것이 어떠하겠소.”

이 말을 들은 바위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작정
했다. 이 바위가 ‘울산바위’라 불리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울산에서 왔으니 그렇게 부르자는 설악산의 공론에 따른
것이며, 바위 밑에 지금도 맑게 흐르는 물은 그때 바위가 흘
린 눈물 탓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몇 천년이 지나
배불승유 정책을 쓰던 조선시대였다. 울산바위 얘기를 들은
울산 원님은 은근히 배가 아팠다. 울산바위를 뺏긴 것도 억
울한데 설악산이 금강산 다음으로 아름답다니 억울한 생각
이 들었다. 며칠간 꿩꿍거리던 원님은 어느 날 묘책을 떠올
렸다. 설악산 신흥사를 찾아가 스님들을 골탕먹이자는 계획이
었다. 유생들이 득세하던 그 당시 스님 몇 명 골리기는 어렵지
않았다. 어느 날 해가 으스름할 무렵 신흥사 뜰에 교자 한 채
가 놓였다.

“여봐라, 울산고을 원님의 행차시다. 주지 제시느냐?”

포졸이 거드름을 피우며 주지 스님을 불러댔다. 신흥사 주
지는 때아닌 손님에 놀라 방으로 맞아들였으나 원님은 인사
가 끝나기도 전에 불호령을 내렸다.

“이 방자한 녀석들아, 너희 설악산에 우리 고을 바위가
서 있음에도 모른 체하기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스님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러
나 원님의 다음 말은 더욱 뜻밖이었다.

“금년부터 바위세를 바치도록 해라. 만일 세를 내지 않을
경우 너의 절은 폐찰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엄청난 액수의 요구였으나 신흥사는 울며 겨자 먹는 격으
로 매년 꼬박꼬박 바위세를 원님에게 바쳤다. 절의 살림은
점차 어려워졌다. 새로 부임한 주지는 이 부당한 관례를 깨

기 위해 노심초사했으나 묘안이 떠오르질 않았다.

주지 스님은 식음을 전폐하고 궁리에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자승이 스님의 안색을 걱정하며 물어왔다.

“스님,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요?”

“너는 상관할 일이 아니다.”

“소승에게 혹시 좋은 방안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동자승이 캐묻자 주지 스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동자승은 그런 일쯤 가지고 무슨 고민을 하시냐며 바위세를 받으려 오거든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드디어 원님 행차가 당도했다. 주지 스님은 동자승의 말이 하도 당돌했던지라 슬며시 동자승을 불렀다.

“우리 절에선 울산바위가 아무 쓸모가 없소. 그 바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곡식을 심어 수확을 올릴 텐데 매년 손해가 큽니다. 그러니 세를 받기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지 당신네가 아닙니다. 금년부터 세를 못 내겠으니 바위를 당장이라도 파 가시오.”

동자승의 말이 한 치 빈틈없이 조리에 맞자 기세가 당당하던 원님도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그냥 지고 말수는 없는 터였다.

“그러면 네 말대로 바위를 파 갈 터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 놓아라.”

“원하는 대로 해 줄 터이니 꼭 가져가기나 하시오.”

“좋다. 새끼를 태운 재로 바위를 묶어 놓아라. 한 달 후에 와서 끌어 갈 것이니라.”

주지 스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새끼를 태운 재로 둘레가 십 리나 넘는 바위를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허나 동자승은 생글생글 웃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얼굴이었다. 그러더니 이튿날 마을 장정들을 수십 명을 사서 새끼를 괴게 했다. 스무 날쯤 지나 새끼가 산더미같이 쌓이자 동자승은

소금을 몇 섬 물독에 풀어 새끼에다 염국을 들였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을 데리고 울산바위에 올라가 바위둘레를 새끼로 매는 것이었다. 그리곤 이삼일 후 다시 바위에 올라가 새끼에 들기름을 바르더니 거침없이 불을 붙였다. 기름 묻힌 새끼줄은 잘 탔지만 소금물에 절였으므로 겉만 그을려 꼭 재같이 보였다. 동자승의 기지는 놀라웠다. 감쪽같이 불에 탄 재로 그 큰 바위를 뚫었으니.

“제 놈들이 감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원님은 약속된 날 바위세를 받아갈 마발이까지 끌고 왔다. 새파랗게 질려 세를 바칠 줄 알았는데 태연한 채, 어서 바위를 끌어가라는 말에 원님은 내심 놀랐다.

“이놈들 거짓말을 해도 볼수가 있지 나를 놀리려 드느냐.”

“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원님은 망신을 무릅쓰고 울산바위까지 올라갔다. 이게 웬 일인가. 정녕 불에 탄 새끼로 청청 갑아 놓은 것이 아닌가.

“허, 그놈들 꾀가 대단하군. 이제 바위세 받친 다 틀렸구나.”

그 이후부터 신흥사는 지긋지긋하던 바위세를 물지 않게 되었다.

2. 영산(靈山)

울산암은 설악산 어느 곳보다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생장 서식하는 곳이어서 산삼, 버섯을 비롯하여 많은 약초와 산양, 범, 사슴, 반달곰, 노루, 백사, 점사 등 뱀도 많아 심마니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입산하는 승려들도 많았지만 재미를 보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고 한다. 부정한 사람이 이산에 들어가기만 하면 때 아닌 안개가 끼여 지척을 분간하기 어렵고, 뜻하지 않은 청천벽력이 일어나고,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산을 영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속초문화 제3호》

3. 목탁바위

계조암이라는 이름이 생길 정도로 득도에 효험이 있어 전국각처에서 많은 고승들이 수도하러 왔다 갔는데 어떤 스님 한 분이 수도가 잘되는 이유를 알려고 무척 애를 썼다. 하루는 불상 앞에서 낮잠을 자다가 목탁소리를 들었다. “나 혼자만 있는데, 목탁은 누가 치는 것일까?” 하고 밖으로 뛰어

나갔으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굴 안으로 들어가 낮잠을 청하였는데 조금 전에 듣던 목탁소리가 또 들려 음으로 또다시 굴 밖으로 나와보았으나 사람은 역시 보이지 않고 사방은 고요하기만 하였다.

그 후부터는 하는 수 없이 수도에만 열중하여 득도한 뒤 이 암자를 떠나게 되었다. 떠나기 바로 전날 밤 꿈에 노승한 분이 나타나 “그대는 왜 목탁 속에 있으면서 목탁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 고민하느냐. 내일 날이 밝거든 계조암 앞에 있는 달마봉에 올라가 계조암을 바라보면 목탁이 보일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꿈이 하도 이상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달마봉에 올라가 계조암을 바라보니 계조암 바위가 큰 목탁 같고 그 옆으로 뻗은 산줄기는 마치 방망이 같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옳치, 목탁 속에서 불도를 닦으니 득도가 빠르구나”하고 깨닫게 되어 그 후부터는 이 바위를 목탁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속초문화 제3호》

4. 매미의 낙원

옛날 경상도 울산 지방에 한 도사가 있었는데 낮잠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밤낮으로 잠자는 것이 그에게는 큰 일과의

하나였다. 겨울에는 아무 장애물이 없어서 좋았지만 여름철에는 개구리 소리와 매미 등살에 통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느 해 여름, 도사는 도술로 부적을 만들어 들판에 던졌더니 그렇게 요란하던 개구리들은 울지 못하게 되어 밤잠은 마음놓고 잘 수 있었으나 낮이면 숲 속에서 우는 매미소리가 시끄러워 낮잠을 잘 수가 없었다. 도사는 하는 수 없이 매미마저 병어리로 만들 작정으로 부적을 써서 공중에 날렸다. 눈치 빠른 매미들은 이 깜새를 미리 알고 도술에 걸리기 전에 그 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동작이 느려 미처 떠나지 못한 매미들은 울지 못하는 병어리 매미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도술에 걸리지 않고 그 곳을 떠나게 된 매미들은 정처 없이 날아 가다가 이왕이면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강원도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다행히 정들고 낯익은 울산바위를 만나게 되어 울산에서 같이 살 때의 옛 정답을 서로 나누어 가며 이곳에서 살기 좋은 매미의 낙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속초문화 제3호》

5. 신흥사 유래

신흥사의 처음 이름은 향성사입니다. 신라 선덕왕 때지요. 저, 양양 상운이란 데가 있습니다. 상운이라는 데는 역 중에

서 우두머리인 찰방이 주재하던 곳입니다. 그러니 상운리에서 이 부근 고성, 양양을 관장했지요. 자장율사가 그 상운리에 와 보니까 지금 신흥사 있는 쪽에서 서운(瑞雲)이, 서기(瑞氣)가 비치더랍니다. 그래서 “야, 저기가 부처님이 계실 만한 곳이구나.”고 생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뭔가 서기가 어려있고, 둘레에 향기가 퍼져있어 반드시 부처님이 계실 만한 곳이구나 하고 여겼답니다.

지금 켄싱턴 호텔 앞 그 자리에 절을 짓고 향성사라 했지요. 바로 거기에 3층탑이 남아 있어요. 그 탑은 향성사를 처음 지었을 때의 탑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5층이라 했는데 임진왜란 때 없어지고, 지금 3층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후 절이 화재를 만나 나중에 다시 짓게 되었는데, 지금의 내원암에 의상대사가 옮겨지었답니다.

그리고 이름을 선정사(禪定寺), 선을 아주 중심해서 이루어진 절이라 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거기서 다시 화재가 나니 터가 나빠서 이렇다 해서 정보 원년 인조 22년(1644)에 영서, 연옥, 두 선사 꿈에 신선이 나타나서 “지금 있는 신흥사 쪽에 절을 지으면 번창하고 잘 될 것이다.” 해서 옮겨지었으며, 신이 나타나서 절을 이룩했다 해서 신흥사라 이름을 지었답니다.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6. 도문과 신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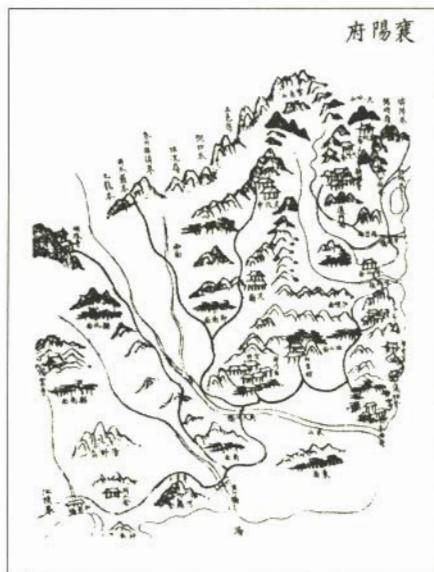
도문 용기마을의 유래는 자장율사가 낙산사 의상대에서 쉰 후 이쪽으로 들어오다가 설악산 쪽으로 들어오며 길을 물었데요. 그래서 하도문(下道門)입구에서 맨 먼저 길을 물었고, 이 사람이 올라오다가 길을 묻는 곳마다 중도문, 상도문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되었지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장항리가 노루 장(獐)자 하고, 목 항(項)자, 그때 전하는 말에 의하면 자장율사가 노루의 목을 베고 거기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 정확치는 않고 그래서 노루목이라고, 이렇게 됐지요. 자장율사가 쉰 후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기다가 맨 처음에 향성사라고 지었는데, 화재가 자꾸 발생해서 어느 날 스님이 꿈을 꾸었는데, “이 꼭대기를 더 올라가 서북방 쪽으로 더 가면 싸리나무가 큰 게 있으니 그 싸리나무가 있는데 절을 지으면 이제 좋다.”

그래서 꿈대로 절을 지었더니, 아주 절이 번성하고 잘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신이 가르쳐 주었다.’ 해서 신흥사(神興寺)라고 했다 그래요.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제 10 장 한 시(漢詩)



제 10 장 한 시(漢詩)

1. 영랑호(杆城郡邑誌)

永郎湖

平湖鏡面澄(평호경면정) 평평한 갯물이 거울처럼 맑은데
滄波凝不流(창파옹불류) 물결은 고여서 흐르지 않네
蘭舟縱所如(난주종소여) 아름다운 배를 가는데로 놓아두니
泛泛隨輕鷗(범범수경우) 등실등실 떠서 갈매기를 따르네
浩然發清興(호연발청흥) 호연한 홍취가 발홍하여
泝洞入深幽(소회입심유) 거꾸로 흐르는 듯 마음이 상쾌하다
丹崖抱蒼石(단애포창석) 붉은 벼랑은 푸른돌을 감도는데
向晚欲面頭(향만욕면두) 저녁때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소
徇山泊松下(순산박송하) 산을 돌아서 소나무밑에 대이니
玉洞藏瓊洲(옥동장경주) 옥같은 계곡이요 구슬같은 나루로다
荷葉淨如洗(하엽정여세) 연잎은 씻은 듯이 깨끗하여
空翠涼生秋(공취량생추) 하늘이 푸르러서 가을 기분 생기네

<안축(安軸)>

暮雲半卷山如畫(모운반천산여화) 검은구름 거쳐지니 산이 구름 같구나
秋雨新晴水自波(추우신청수자파) 가을비 활짝 개여 물결도 잔잔하다
此地重來難可必(차지중래난가필) 이 땅에 다시 오기 가필할 수 없나니
更聞虹上一聲歌(쟁문홍상일성가) 배 위의 노래 소리 다시 들어 보노라

<안축(安軸)>

安相情懷黃鶴月(안상정회황학월) 안씨 정승의 회포는 황학루의 달 같고
李生行止白鷗波(이생행지백구파) 이씨 선비의 행색은 백구정 물결 같도다
重來此地誠難必(중래차지성난필) 여기에 다시 오기는 기약할 수 없으니
空聽關東一曲歌(공청관동일곡가) 관동지방 노래나 한 곡 들어보자

<이곡(李穀)>

百頃清湖鏡面平(백경청호경면평) 넓고 맑은 호수가 거울같이 펼쳐지니
扁舟載興泛空明(편주재흥범공명) 조각배에 흥을 싣고 달밤에 띄웠도다

當時只擬遊踪秘(당시지의유종비) 옛날의 놀던 자취 감추어진 것인가?

餽舌何人強揭名(요설하인강계명) 말많을 어느 누구 억지로 이름 밝히랴?

<구사맹(具思孟)>

2. 永郎湖(關東邑誌)

영랑포에 배 띄우고(永郎浦泛舟)

平湖鏡面澄(평호경면정) 평평한 호수 거울인 양 맑은데,

滄波凝不流(창파응불류) 푸른 물결 엉기어 흐르지 않네.

蘭舟縱所如(난주종소여) 놀잇배를 가는 대로 놓아두니,

泛泛隨輕鷗(범범수경구) 둥실둥실 떠서 날으는 갈매기 따라가네.

浩然發清興(호연발청흥) 호연하게 맑은 흥 발동하니,

泝洞入深幽(소회입심유) 물결 거슬러 깊고 그윽한 데로 들어가네.

丹崖抱蒼石(단애포창석) 붉은 벼랑은 푸른 돌을 안았고,

玉洞藏瓊洲(옥동장경주) 옥동은 경주를 감추었네.

徇山泊松下(순산박송하) 산을 따라 소나무 아래 배 대이니,
空翠涼生秋(공취량생추) 하늘은 푸르고 서늘한 기운 이제 가을이네.
荷葉淨如洗(하엽정여세) 연잎은 맑아서 씻은 것 같고,
蓆絲滑且柔(순사활차유) 순 채 실은 미끄럽고도 부드럽네.
向晚欲回棹(향만욕회棹) 저물 널에 배를 돌리려 하니,
風煙千古愁(풍연천고수) 풍연이 천고의 수심일세.
古仙若可作(고선약가작) 옛 신선 다시 읊 수 있다면,
於此從之遊(어차종지유) 여기서 그를 따라 놀리라.

<안축(安軸) >

8월4일 북으로 가다 영랑호에서 배를 띄우고(北行泛永郎湖)

暮雲半卷山如畫(모운반천산여화) 저문 구름 반쯤 걷으니 산은 구름 같고,
秋雨新晴水自波(추우신청수자파) 가을비가 새로 개이니 물결 절로 생기네
此地重來難可必(차지중래난가필) 이 곳에 거듭 올 것을 가필할 수 없으니
更聞虹上一聲歌(갱문홍상일성가) 배 위의 노래 한 곡조 다시 듣노라.

< 안축(安軸) >

安相情懷黃鶴月(안상정회황학월) 안정승의 정회는 황학의 달이요,
李生行止白鷗波(이생행지백구파) 이생의 행지는 흰 갈매기 물결이네.
重來此地誠難必(중래차지성난필) 이곳에 다시 올 일 기필하기 어려운데,
空聽關東一曲歌(공청관동일곡가) 부질없이 관동의 한 곡조 노래만 듣네.

<이곡(李叡)>

3. 금강산 가는 길(율곡학회)

行盡長松沙岸東(행진장송사안동) 늙은 소나무 우거진 모래 언덕 동쪽,
澄清瀟灑更無風(징청소쇄갱무풍) 맑고 깨끗한 물결 바람도 없다.
明湖一曲真如畫(명호일곡진여화) 맑은 호수 한 곡이 정말로 그림 같은데,
雪嶽天峰倒鏡中(설악천봉도경중) 설악산 천 봉 거울 속에 박혔다.
歷遍金剛萬二岫(역편금강만이수) 금강산 만 이천 봉 두루 돌아서,
海棠千里踏鳴沙(해당천리답명사) 해당화 끝없이 피어 있는 명사십리
밟았다.

永郎湖畔初開眠(영랑호반초개면) 영랑호반에 이르니 비로소 눈 틀어,

手拍瓊壺浩浩歌(수박경호호호가) 술동이로 장단치며 호탕하게 노래 부른다.

<이세구³⁰⁾>

비선대(飛仙臺)

瓊臺俯金潭(경대부금담) 경대같은 맑은 물을 굽어보니,
右扇排青峰(우선배청봉) 부채같은 청봉이 그곳에 펼쳐있네.
融時備衆妙(웅시비중묘) 이곳이 생길 때 묘리를 갖추었던가?
豈惟勢奇壯(기유세기장) 그 형세가 어찌하여 이리도 기장한가?

<김창흡(金昌翕)>

채련곡(採蓮曲)

秋淨長湖碧玉流(추정장호벽옥류) 가을에 맑은 호수물 옥돌처럼 흘러

30) 조선시대 문신, 호는 양와(養窩), 본관은 경주.

가고,

蓮花深處繫蘭舟(련화심처제란주) 연꽃 피는 깊은 곳에 난초 배를
매놓고서,

逢郎隔水投蓮子(봉랑격수투련자) 당신보고 물 건너 연꽃을 던졌
는데,

或被人知半日羞(혹피인지반일수) 혹시 남이 알까봐 반나절 부끄
럽네.

<허난설헌(許蘭雪軒)>

4. 신흥사 〈현산지〉

寺創紅羅運訖年(사창홍라운흘년) 절은 국운이 다하는 때에 창건되어,
獨擎中華大明天(독경중화대명천) 홀로 中華의 명나라를 받들었네.
若教錢牧³¹⁾聞茲寺(약교전목문자사) 만약 전겸익(錢謙益)으로 하여금
이 절에 대해 듣게 했다면,

何羨蘇仙赤壁船(하선소선적벽선) 어찌 소동파의 적벽선을 부러워했겠

31) 전목(錢牧) : 전겸익. 명(明)말 · 청(清)초의 문인. 호는 목제(牧齊)

는가?

<이수관(李壽觀)>

관동별곡(關東別曲)

高고城성을 란 더만 두고 三삼日 일浦포를 츄자가니
丹단書서는 宛然호되 四수仙선은 어디가고
예 스흘 머문 後후의 어디가 쓰— 머문고
仙선遊유潭담 永영郎랑湖호가
거기 나가 있는가
淸청澗간亭명 萬만景경臺더 멋고더 안듯던고

<정철(鄭澈)>

5. 설악산 〈동국여지지〉

雪岳之山高萬丈(설악지산고만장) 설악의 높이는 만장이고,
懸空積翠連蓬瀛(현공적취연봉영) 허공에 늘어진 푸른 소나무, 삼신산
이 아니던가?
千峯映雪海日晴(천봉영설해일청) 일출로 빛나는 雪峰의 눈부심이여,
縹渺羣帝集王京(표묘군제집왕경) 높고 멀리 수많은 제왕이 가지런히
늘어선 듯 하다.

<허목(許穆)>

부록 1

- 고려사 / 203
세종장현대왕실록 / 207
신증동국여지승람 / 211
여지도서 / 219
동국여지지 / 223
양양군읍지 / 229
대동지지 / 233
강원도지 / 237
관동읍지 / 243
강원도양양군읍지(1) / 247
강원도양양군읍지(2) / 251
관동지(13) / 257
현산지 / 265
증보문헌비고 / 273
신흥사지 / 277
양양신흥사용암대사비명 / 291
조선도부군면정동리개정구역표 / 295
신흥사(강원도양양군도천면장항리)사적 / 299

高
麗
史

『高麗史』는 김종서·정인지 등이 1449년(세종31)에 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하기 시작하여 2년 뒤인 1451년(文宗 元年) 8월에 완성하고, 1454년(端宗) 10월에 정인지의 명의로 인쇄된 기전체 사서로 139권 100책으로 되었다.

地理志는 『三國史記』 地理志에 잇대어 고려시대의 변화된 사항을 추가기록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한 지역의 연혁을 살피는데 필요한 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翼嶺縣本高勾麗翼嶺縣

一云伊
文臣

新羅景

德王改今名爲守城郡領縣顯宗九年置

縣今高宗八年以能禦丹兵陞襄州防禦

使四十一年降爲縣今四十四年以降賊

又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陞知襄州事

別號襄山有東海神祠屬縣一

洞山縣本高勾麗穴山縣新羅景德王

世宗裝憲大王實錄

『世宗實錄』地理志가 수록되어 있는 세종장현대왕실록은 1454년(端宗2)에 163권 67책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 중에서 지리지는 제148권에서 제155권에 이르기까지 8권 8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지리지는 팔도의 지리역사의 연혁과 변천을 알 수 있도록 편찬된 전국지리지이며, 동시에 토지의 면적, 조세, 인구 등의 경제, 군사, 행정적인 면이 강조된 인문지리의 선구를 개척한 지리서이다.

村一在羽溪縣南瑪瑙寺洞_{皆下邑土城八十四步把嚴山石城在府西回七百六}
則小渠五其三旱渴其二不渴羽溪邑上城因回一百步鏡浦在府東北十里旁有峯峯上有亭寒松亭古在府東十二里今遺址尚存驛十三大昌安仁岳山木界高端橫溪珍富大和芳林雲交冬德在連樂豐臨溪羽灘要害大嶺在府西三十五里烽火五處於乙達在任內羽溪縣南_{南淮北淮三涉地庚吾斤北淮府}所伊洞在府東北隔南淮海令地海連谷_{北淮沙火連谷}
文北淮寨陽住洞山陽也
注乙文北淮寨陽住洞山陽也

襄陽都護府使一人本高句麗翼嶺_{一云伊新羅改名翼嶺為守城郡領縣高麗}
襄陽縣文縣定宋寧宗嘉四年丁巳以降賊降為德寧監務寶祐六年元宗元年庚申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丁丑以外鄉陞為府太宗十三年癸巳例改都護府十六年丙申改襄陽別號襄山屬縣一
洞山縣本高句麗穴山縣新羅改今名萬溟州領縣高麗顯宗戊午移屬翼嶺縣任內本朝因之名山雪嶽_{時為小祀}東海神祠堂在府東春秋降香祝致祭中祀四境東距海口七里南距江陵任內連谷五十里西距麟蹄三十六里北距杆城三十三里戶八百五十七口一千二百七十七洞山縣戶一百二十五口二百十八軍丁侍衛軍七十三舡軍一百

九十五土姓二金李亡姓四孫朴河鄭續姓三張林尹洞山縣姓四朴金崔陳來姓
一林亡姓一李厥土多堵俗棠海錯崇習武藝糧田一千八百三十三結水田五分之二強分土
宜五穀桑麻莞柿梨栗楮漆土貢峰蜜黃蠶松子胡桃五倍子芝草石葦孤皮狸
皮獐皮大口魚文魚沙魚年魚全鮓紅蛤水魚常葦席正鐵藥材人參五味子當歸
茯苓安息香秦芍药白花蛇熊膽防風白膠香白芨收丹皮土產篠石鐵產府西十
里鐵掘山鹽盆二十二洞山縣鹽盆十八邑土城周回一千八十八步擁金山石城在府北
一千九百八十步西則驛四連倉祥雲降仙麟丘在洞山縣要害自本府西去麟蹄境所
岩石間水湧流為泉等羅領三十六里烽火凹處水山在府東江南淮北內洞山廣德山江北淮府德山竹島陽也山在洞
山縣南大淮北淮廣汀乙廣汀在縣北淮南淮陽也山北淮德山

旌善郡知郡事一人本高句麗仍貢縣新羅改今名為溟州領縣高麗顯宗戊午仍
為任內後陞為郡本朝因之別號三鳳朱陳枕源鎮山飛鳳在郡北大川大陰江郡南有四境東距三陟五十三里西南距平昌西二十二里南三十一里北距羽溪三十二
里戶二百三口四百五十九軍丁侍衛軍十九虹軍二十四土姓三李全高賜姓一丈
續姓一安興寧來歛土墻風氣多寒墾田一千五結水田只土宜黍稷粟豆麥桑麻梨栗

新增
東國輿地勝覽

성종대에 盧思慎, 姜希孟, 梁誠之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우리나라 지리서다. 1481년(성종 12)에 50권으로 편찬되었고, 다시 1487년(성종 17)에 55권으로 재편집되었다.

이후 1499년(연산군 5)에 成倪, 任士洪 등에 의해 한차례 교정이 가해지고 다시 1530년(중종 25)에增修되는데, 현재 영인본으로 많이 이용되는《신증동국여지승람》은 1531년에 완성된 것을 내용으로 삼아서 1611년(광해군 3)에 복간한 목판본이다.

高秋空倍厭吟詩時日已紅但道關墻呼僧	<small>李蓮英詩</small>
海魚汎可數區區西屈指微風拂面	<small>詩面壁</small>
寒徒揮一束風○安軒詩伴鑿竹傍牆	<small>呼醉月未</small>
舍阿君未定僧無趣絕人識十臘客迎風○李	<small>詩官舍僧房隔砌竹花君竹共處立上牆無偶</small>
頗師有遺風	
襄陽都護府	<small>東至濟岸十二里南至江陵界十五里北至河城郡界四十里南至京郡五百一里</small>
建置沿革	<small>本高勾麗翼峴縣一云伊新羅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西東北十四三十四國</small>
今高宗八年以禦丹兵有功陞爲襄州	
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降爲德寧監	
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	
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今	
上之外鄉陞爲府	
太祖六年以	
名屬	<small>洞山縣山在府南四十里本高句麗縣高麗時改今名爲襄州領縣</small>
高麗縣宋時來	
官選	
府使	
教授各一	

學	校	在府東二里。安陸記曰：東山山水許 秀而襄陽居其中，其英靈之精氣流之。 氣必蘊於人，而於百餘年間未聞有懷才之士 出是邑者。自古處於藩境，愛亂屢興，學校之道 不脩也。今者區宇混一，而民不知兵，聖學重興，子弟 日滋，宜置學校，養育人才，才是邑者，惟以導禹為急。 而方為故山水之氣，聳焉雄傑，精神所聚，子弟 之性不搖，襟帶兩無以視此，豈非邑人之幸歟？然數 到是邑，聞之者皆色之。北有洞祖傳云：文宣、洞祖、 必古之三聖，而僧已矣。余心慕焉，則於其地命 邑人營之。邑人成喜曰：子之志也，姑於其地，命 邑人通州守正邵朴君，監督其役，始興而 邑中正邵朴君來莅任，朴君亦文儒名門之子也。實 來君子一
鄉	校	在府東二里。安陸記曰：東山山水許 秀而襄陽居其中，其英靈之精氣流之。 氣必蘊於人，而於百餘年間未聞有懷才之士 出是邑者。自古處於藩境，愛亂屢興，學校之道 不脩也。今者區宇混一，而民不知兵，聖學重興，子弟 日滋，宜置學校，養育人才，才是邑者，惟以導禹為急。 而方為故山水之氣，聳焉雄傑，精神所聚，子弟 之性不搖，襟帶兩無以視此，豈非邑人之幸歟？然數 到是邑，聞之者皆色之。北有洞祖傳云：文宣、洞祖、 必古之三聖，而僧已矣。余心慕焉，則於其地命 邑人營之。邑人成喜曰：子之志也，姑於其地，命 邑人通州守正邵朴君，監督其役，始興而 邑中正邵朴君來莅任，朴君亦文儒名門之子也。實 來君子一
學	校	在府東二里。安陸記曰：東山山水許 秀而襄陽居其中，其英靈之精氣流之。 氣必蘊於人，而於百餘年間未聞有懷才之士 出是邑者。自古處於藩境，愛亂屢興，學校之道 不脩也。今者區宇混一，而民不知兵，聖學重興，子弟 日滋，宜置學校，養育人才，才是邑者，惟以導禹為急。 而方為故山水之氣，聳焉雄傑，精神所聚，子弟 之性不搖，襟帶兩無以視此，豈非邑人之幸歟？然數 到是邑，聞之者皆色之。北有洞祖傳云：文宣、洞祖、 必古之三聖，而僧已矣。余心慕焉，則於其地命 邑人營之。邑人成喜曰：子之志也，姑於其地，命 邑人通州守正邵朴君，監督其役，始興而 邑中正邵朴君來莅任，朴君亦文儒名門之子也。實 來君子一
學	校	在府東二里。安陸記曰：東山山水許 秀而襄陽居其中，其英靈之精氣流之。 氣必蘊於人，而於百餘年間未聞有懷才之士 出是邑者。自古處於藩境，愛亂屢興，學校之道 不脩也。今者區宇混一，而民不知兵，聖學重興，子弟 日滋，宜置學校，養育人才，才是邑者，惟以導禹為急。 而方為故山水之氣，聳焉雄傑，精神所聚，子弟 之性不搖，襟帶兩無以視此，豈非邑人之幸歟？然數 到是邑，聞之者皆色之。北有洞祖傳云：文宣、洞祖、 必古之三聖，而僧已矣。余心慕焉，則於其地命 邑人營之。邑人成喜曰：子之志也，姑於其地，命 邑人通州守正邵朴君，監督其役，始興而 邑中正邵朴君來莅任，朴君亦文儒名門之子也。實 來君子一
學	校	在府東二里。安陸記曰：東山山水許 秀而襄陽居其中，其英靈之精氣流之。 氣必蘊於人，而於百餘年間未聞有懷才之士 出是邑者。自古處於藩境，愛亂屢興，學校之道 不脩也。今者區宇混一，而民不知兵，聖學重興，子弟 日滋，宜置學校，養育人才，才是邑者，惟以導禹為急。 而方為故山水之氣，聳焉雄傑，精神所聚，子弟 之性不搖，襟帶兩無以視此，豈非邑人之幸歟？然數 到是邑，聞之者皆色之。北有洞祖傳云：文宣、洞祖、 必古之三聖，而僧已矣。余心慕焉，則於其地命 邑人營之。邑人成喜曰：子之志也，姑於其地，命 邑人通州守正邵朴君，監督其役，始興而 邑中正邵朴君來莅任，朴君亦文儒名門之子也。實 來君子一

秀魚	雙足魚	海參	白花蛇	海衣	箬	鮓	紅蛤
黃魚	鯈魚	古刀魚	廣魚	鱸魚	文魚	大口魚	松魚
秀魚	雙足魚	海參	白花蛇	海衣	箬	鮓	紅蛤
城郭	邑城	石蓆周四百三尺高五尺土蓆周二千 八百二十尺內有二井令半縣落	閩防	大浦營	在府東十五二里成安仁浦治于此○水軍萬戶	一千四百六十九尺高十二尺	一千四百六十九尺高十二尺
烽燧	烽燧	北應從山南	烽燧	南應從山南	德山烽燧	北應	烽燧
新塘	烽燧	北應從山南	烽燧	南應從山南	德山烽燧	北應	烽燧
樓亭	東軒	吳澤詩裏陽來憶故人贊殘雪晴	烽燧	東軒	吳澤詩裏陽來憶故人贊殘雪晴	烽燧	東軒
橋亭	太平閣	莫知暫地庭正逢明月懷空館醉日不用香燒意	烽燧	太平閣	莫知暫地庭正逢明月懷空館醉日不用香燒意	烽燧	太平閣
名迹	青天朱絃	青天朱絃不用後織坐聽芳林間明月照象牙白眼望	烽燧	青天朱絃	青天朱絃不用後織坐聽芳林間明月照象牙白眼望	烽燧	青天朱絃
古跡	麻姑	麻姑未計拙未能乘輿利路若為漢室招金泉口道波詩	烽燧	麻姑	麻姑未計拙未能乘輿利路若為漢室招金泉口道波詩	烽燧	麻姑
古跡	經昔	自開前大平風月半千牛島還官問三竿	烽燧	經昔	自開前大平風月半千牛島還官問三竿	烽燧	經昔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觀壺中地
水闊閑壠草
煙迷望遠山
王笙遙聽蒼頭月
移時云西明
題鵝背大野東
頭看海日
雲長林一面見
江天

煙霞水店山村在白浪關之鄉
好風景千株松在後浪山
洛山寺在五峯山新羅僧義相所建故上
安羅松觀音一輕塵代宗奉願有靈
州以藏山舍臥雲山隱寺以藏仙蹟今新里有高
宇寺之東數里許巨海邊有窪其高可百尺其大可山
本萬斛之舟其下淹滯常出入為不測之中堅石獨孤
窟大一席所住也窟前距離五十許步僧欲觀窪處上乃
鋪一席出水面西面新羅五十許步僧欲觀窪處上乃
倚於石上長坐仰瞻精勤至二七日尚未疲倦便投身
於海中東宿龍捨出石上大聖即於窟中伸臂手授水
持金珠曰我身未可親覩雖窟於此可管一院安船像設也
是吾頂上所居也聖徒受珠而來有雙竹湯立乃玉祖也
是吾安像也聖徒受珠而來有雙竹湯立乃玉祖也
以龍所戲王造像安之斯莊也十四
東覽十四
三十九

七日它心尙觀 宿定先通納衣僧來求我度相送以吾來名之	靈穴寺
捨寺 <small>俱在雪岳山</small>	道寂寺 <small>在翁山</small>
祠廟社稷壇 <small>在府西</small>	文廟 <small>在縣城</small>
海神祠 <small>在府東春秋屬壇社</small>	城隍祠 <small>在城東</small>
吉跡壇 <small>在雷岳頂石梁周一千一百十二尺高四尺今半頃落俗傳有損大二尺零丈亂是州名雷岳山落坡中俗謬即此</small>	冷泉 <small>在翁山下此傳觀音化作女姓稻元晚日取狀冷泉之號也</small>
金城 <small>在雷岳頂石梁周一千一百十二尺高四尺今半頃落俗傳有損大二尺零丈亂是州名雷岳山落坡中俗謬即此</small>	因泉 <small>四十步</small>
年秋涵霞晚公遺跡樹遠天登樓眺望如思夢蕉裏還存	年秋涵霞晚公遺跡樹遠天登樓眺望如思夢蕉裏還存
鵠吟五色驛 <small>在府西四十步</small>	鵠吟五色驛 <small>在府西四十步</small>
名宦高麗崔宰 <small>字知州府有降香使慶序存撫</small>	名宦高麗崔宰 <small>字知州府有降香使慶序存撫</small>
金匱 <small>竹虛景峰賦</small>	金匱 <small>竹虛景峰賦</small>
題詠鵬路森茫連北漫	題詠鵬路森茫連北漫
山城却月楓排上	山城却月楓排上
六云錄塔迎遠接東流波問勞苦瘦來客水底依稀見海人我欲張帆起且整天其鼓怒若為神風	六云錄塔迎遠接東流波問勞苦瘦來客水底依稀見海人我欲張帆起且整天其鼓怒若為神風
雪落序曉急下銀無風決水洞中應有武陵人食程不得尋化境步步近墳一吟伸倚山松	雪落序曉急下銀無風決水洞中應有武陵人食程不得尋化境步步近墳一吟伸倚山松

山在郡西二十里詳淮陽府天吼山在郡南五音山在郡南十五里山頂有池名古城山在烈山縣北一里鄉縣三十里於丘山在烈山縣西四里之鎮山鄉三十里五十九里一名算的只山光已神雄奇少石破嶺空雲覽虎岩若翠屏草堂谷路直一帶山峰三百里屢有掛移指掌通幽林間藏虎兒何復更說司馬所坡嶺在郡西南五十九里一名石破嶺金道險坡量未嘗難易彌蒼坡嶺在郡西南八里許有路陽府所行冬蕭蕭陰陰後聞此跡潭郡南十一里許山麓同遭成公谷中有單口仙遊有小卒年壯起平心上有長松數株皆有亭今春則晴曉快嚴亂發夏則茶葉滿潭有蘇軾詩源風煙盡散淡然似與故人逢也薄寒我忘憂入閑東宮四十五一知恐重來永郎湖汀曰南五十里至南三十八里半入湘心有古亭蓋是永郎仙使遊賞之地○安軒詩平湖鏡面澄蒼波競不流蘭舟疾所如之也○隨經陶冶熙熙濟濟興濟汨入深幽丹崖抱蒼石王潤復及湖猶山泊松下空翠深秋載蘋浮葉落清漪散游而委雲半掩山如畫秋雨霏霏水自波也○董衣月可必更聞飲父一聲歌矣○蘇詩飲必空窮開東一月李生行止廣湖此地無能安樂惟君一念知歌曲廣湖在郡南四十五里余謂湖北十里許有大湖陽映亂松間曰齊魯陰陰曉露沾衣薄陵山湖在北諸山東二里得大湖用數大木包然之谷新修築山龍而舊縣汎在水底天庸故靜則墻屋依然可見

輿 地 圖 書

1757년(영조 33)부터 1765년(영조 41)까지 펴낸 것을 합한 것으로 295개의 읍지와 17개의 영지(營誌), 1개의 진지(鎮誌)가 포함되어 있다.

책은 55책으로 되어 있으며, 제14책부터 제17책까지가 강원도편이다.

내용은 강역(疆域), 방리(坊里), 도로, 전치연혁(建置沿革), 구명(郡名), 형승(形勝), 성지(城池), 관직, 산천, 성씨, 풍속, 능침(陵寢), 단묘(壇廟), 제언(堤堰), 창고, 목장, 불수(烽燧), 물산(物產), 교량, 역원(驛院), 누정(樓亭), 사찰, 고적, 인물, 한전(旱田), 수전(水田), 진공(進貢), 전세(田稅), 대동(大同), 구병(軍兵)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간행된 지 270여 년이나 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다시 고치고 그동안 달라진 내용을 실기 위해서 편찬되었으며, 1757년 홍양한(洪良漢)의 건의로 왕명에 따라 홍문관에서 각읍의 읍지를 수집하여 간행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을 토대로 하여 조세수취와 연관된 진공·전세·대동 등이 독립적인 조항으로 정해졌으며, 방리·제언·도로·전결(田結)·부세(賦稅)·구병 등의 항목이 더해져 사회·경제적인 내용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각 읍지의 첫머리에 채색지도가 실려 있고 거리와 방위 등이 정확한 대축척지도가 덧붙여져 18세기 중엽 지방사회의 실제 모습을 아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江陵縣管所屬嘉陽府東至東海五十里西至嘉州界三十五里南至巴監營四百里北至巴陵界七十里北至巴王程西而南至巴陵界五十五里西至巴陵

東國輿地志

洋海城主都鎮
事者以寫李聞

早
田

大一

水田

改異嶺爲守城郡領縣高麗肅宗時復折玉異嶺
縣高宗八年降爲襄州以襄陽流降爲德寧縣
高宗十四年以降廢元宗初復爲襄州本朝
太祖六年陞爲府外屬太宗十三年改爲襄陽

形勝

風俗習俗同漢州者
雪岳山本名西山。五十五里。接山經高峻。峰林
奇秀。有天池。萬松。故號爲天池萬松山。又曰白雲
山。小金剛山。有玉柱峰。金剛峰。白雲峰。南面之
百丈山。金剛山。有玉柱峰。金剛峰。白雲峰。北面之
百丈山。金剛山。有玉柱峰。金剛峰。白雲峰。北面之

郡名介於荆楚

形勝東南據海西北負山本朝新編卷之三
東濱海西宋明李山海風上

北多峻嶺無平原駕以之

風俗不喜養蚕績麻為衣。李山海記。俗尚鬼。同上。俗尚鬼家。族小。

金子昇的詩稿奉此八首
待女入之倘富者皆五

山川名山立鐵山金華山十二里古巖山
西二十里厚山在郡南袁山在郡北沙銅山在
九里十一里八里三郎

十九 辛来峯在郡西六里。一名山海山。又名叱里峯。在郡西面十一里。

人主三聖山於廣東西南高而在其城者馬珠

廢之一坡東界三十鄉里為三聖山之又東走遠逺而回抱者為卽鷲巖在郡山海北縣南山之外有新峯平起直南而導其水

如飛鳥昂首欲真而立是曰巖巖之高不知其幾
千丈也巖之上地勢平坦草木皆可直顧百人
當登巖而賞焉全定志者欣然一望不以疑百人

津梁但見日月星漢出天海東界南大川在於蒼茫森然之中真壯觀也

北二里宋山也。泰山南仙洞里天旱祷雨仇於
置縣東南八千海仙洞里天旱祷雨仇於
南正明浦在郡北二里里浦在郡南十五

濟有溫川在郡西二十六里石門在郡北二十八
九里山下山谷石門里縣界云

云

五加竹葉 南山人參 桂苓 茶草 桂草 石

卷之三

襄 陽 府 邑 誌

『여지도서』의 양양읍지와 편목과 내용이 동일하다. 전결수도 「여지도서」와 마찬가지로 기묘년(영조35년, 1759)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호구는 1759년을 기준으로 한 「여지도서」의 수치와 각 면리 별로 근소한 차이가 있고, 궁병 역시 궁종은 같으나 궁액에 미세한 차이가 있은 것으로 보아 「여지도서」 이후에 작성된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편찬 시기를 추정할 만한 다른 근거가 없다. 다만 위에서와 같은 미세한 차이로 미루어 볼 때 양양군에서 기묘년 기준의 「여지도서」가 편찬된 시점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양양부읍지」는 19세기에 「관동지」의 양양읍지가 편찬되는 데 활용되지 못했던 것 같다. 「관동지」의 양양읍지에는 기준년도 없는 새로운 호구수, 갑오년(영조 50년) 기준의 전결수, 「여지도서」와 일치하는 궁종·궁액수가 적혀 있다 樓亭 항목의 내용을 보면 「관동지」의 양양읍지가 「양양부읍지」보다는 도리어 「여지도서」의 양양읍지에 가깝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界限沈水在府西四十里南流經縣界而南至九龍峯在府東北三十里南流經縣界而南入海

大東地志

『大東地志』는 조선조 후기에
金正浩가 편찬한 32권 15책 筆
寫本 地理書이다. 1865년(高宗
元年)에 編撰된 것으로 추정되
는 본서는 大東輿地圖와 자매편
을 이루고 있으며, 地志의 면
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記錄을
고증적으로 인용하면서 철저한
현재적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
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沿革本伊文峴後改翼峴新置景德至十六年改翼
嶺為守城郡領縣高麗顯宗九年置縣今縣東界○
高宗八年陞襄州防禦使兵有功四十一年降縣令
四十四年降德寧監賤賤改降元宗元年陞襄州事
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為府太宗十
三年改都護府十六年改襄陽正宗七年降縣十
六年復陞襄州都護府使一員
邑洞山洞山為漢竹部督府領縣高麗顯宗九年改
縣名

嶺西六十里後陰有九龍嶺西南六十里兩寒山二
十五所良時西十三○海東南江一出峰多雲氣
流合于邑青草湖北四十里有城界名殿子口○松
南入海居十麻湖鹿大水在湖中里望之如小島
岸有石曰如檣磨礪其中音響絕絕于上
坊里府南面望八府內得二位山西終而西初
東面終十南面初十修沙北初十五峰仙五初十
十道門西初十二十二所川終三十二十五縣北
縣南初四十四終七十二所川終三十五峰仙五
二面洞山地十八三十二日二雪岳山古城立山頂
城池邑城周八丈井二日二
余十年城翼指二百四十八間門四
十六年城翼指一百四十百青草湖高兵卒真革被木被
六十九尺植革被木被木被木被木被木被木被
谷鹽南古云鑿鵝卵峰仙
馬元岩等游于
津渡南江津里
全盧麻織箭竹海松子五味子人蒸伏茶紫草蜂蜜

白花蛇海衣薈鱗紅培文魚大口臭松魚鱗魚銀口

臭黃魚紡臭舌刀臭寶魚鱗臭牙臭婆足臭海葵松

葦石葦蘆○黃勝封山二高麗文宗十七年三司

泰翼嶺縣產黃金鑄附貢籍

樓臺太平櫻色醉山樓

雲龍東海神壇載十三里高麗以東海

無愁高麗顯宗二十年東女真四百餘人寇洞山

高麗四十年蒙兵陷襄州恭愍王二十三年倭寇

襄州我軍與戰斬百餘級禍九年倭寇妄造欲殺

四出虜掠如踏無人之境以趙浚李乙珍等擊倭于

洞山斬二十餘級獲馬七十二匹據見高
成興政 十一年

倭寇襄州

平海

沿革本斤乙於新羅景德王十六年改平海為平海
母高麗宗九年屬禮州寧明宗二年置監郡忠烈王

時陞知郡事以縣人金構許隱黃璣本朝世祖

十二年改郡守鶴翼城陞郡守一員

山水
金藏山西三白岩山西四十里
金藏山南十表山北三十里白岩山
青鶴山西二十里花山西二十沙銅山光三
慶懷寺花山西二十勤八里山林北三十里
寺西四十里白岩山林北三十里白岩山
金藏山西三十里白岩山林北三十里白岩山

江
原
道
誌

外鄉改烏府十三年例改烏都護府十六年改烏尤海十年
改烏縣仁祖元年改烏府高宗三十一年改烏都護府
屬潤洞山縣註五里本高句麗次山縣都護府之名也
舊郡名瀕況伊文翼續德得襄山

增補本句舊見吳文新編改置爲守城使領屬將軍司
宗遣將令高宗朝以案大功陞爲翼州防禦使復以降
爲冀州刺史朝太宗元年復知翼州事

蘇州本道出京東端東接日本海南隔江陝西連蘇浙北界高
城東西狹而南北長磨天爐白腦體雲山蜿蜒南走興金剛
山麓相連接于大關崖大小支脉臨海而盡廣虞河縱東
流沿海多新地肥沃

不遠聞。以門戶之聲，聽其風氣，則知其人也。故曰：「觀音不面，而知其人。」蓋人之言談，固有善惡，而其音節，亦有清濁。故人之音節，可得而知也。如西漢之張良、陳平，皆有清音，故其後多成大器。又如東漢之崔駰、許慎，皆有濁音，故其後多敗亡。故知音節者，可以觀人也。○

關
東
邑

誌

총천, 을진 등 읍지의 제목 부
분에 同治10年(고종8년, 1871)에
성책하였음이 명기되어 있다.
『관동읍지』는 이 해에 전국에
내려진 “邑誌謄上之令”에 따라
다른 도의 統誌들과 함께 편찬
된 것이다.

1871년은 서원이 철폐되고,
신미양요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해였
다. 이러한 중에 각종 개혁 조
치의 시행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이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 특히 재정, 군사면에서 지방
의 실정 파악이 절실히 요구되
었고, 이를 위해 “邑誌謄上之令”
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予老或羞龍冬渡山云只其古廟方鑄山以普皆壯狀
廟者廟暗不靜解山下松人廟山崖有石碑篆文
仙洪東波水隨本花有三石刻碑文碑陰刻篆文
道水海或當在津龍人莫時山腰刻篆文碑
灘所造亭夏可期湖盡相上北焉在仍於故之
有在臨步或游池十一陵以從山雞鄰以此地名謂
潭即之湖入省見從山名可恨名經山南却而其多
周南流永其靈境為賢然三神安城一二般則大
可十圍中電厓洪源山里故以大篆石篆風吹此
三二巴渝多俗云水山廟名國廟舊名之榮州
里裏與水情淒然所容在焉祠宇崇華此廟山
而山橫挺風龍湖隨山然此廟宇崇華此廟山
麓麓而地北野承水鳥歸山山一在古之南
一廟中號殿深湖東山一在峯郡即南支
枝遠見人村黑馬最二里一在南郡即南支
冲成境邊不此不可至大里一在南郡即南支
八公室嘗有廟今可存志山秀五十丈爲馬首
碑之出處故測天傳曰夷土上十洲沙山然即傳
心中言而見有空晴然數的四在黑沙山然即傳

按湖水非山谷之水流入停蓄而成者乃海水自地中相速穿出而山谷之水特派而益之耳是故湖水必在海邊至近之地味又鹹不可以灌溉其理易驗

江原道襄陽郡邑誌

「一」

[光武三年一月日 襄陽郡邑誌]
라는 내題는 이 읍지가 1899년 전
국적인 읍지 편찬 사업의 일환으
로 제작된 것임을 말해준다. 1책
의 전반부에는 일반적인 읍지의
기재사항과 함께 결총·호총·환
총·봉급의 수치가 파악되어 있으
며, 후반부에는 선생안이 적혀 있
다. 선생안에는 1895년에 金靖眞
이 부임한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
고, 1책의 말미에는 이 읍지의 편
찬자가 趙觀顯임을 말해주는 표시
가 있다.

2책도 일반적인 읍지 기재사항
이 기재된 전반부와, 선생안이 기
록된 후반부로 구분된다. 1책에서
파악되지 않은 호구수가 기증연도
없이 적혀 있고, 기타 산천·누
정·사찰 등에 대한 설명이 1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세하다. 2책의
선생안에는 1책과 달리 趙觀顯까
지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1책과 2책은 전
체읍지의 상·하편이라기 보다는
별개의 읍지에 가깝다. 읍지편찬
명을 받은 조관현이 군현 내에 통
용되던 2종류의 읍지가운데 하나
를 택해 결총·호총·환총·봉급
의 수치를 반영한 후, 선생안을
추가한 異本과 함께 옮겼을 가능
성도 없지 않다.

十一 鄭山自官門一里往山南自官門北距十二
沙曉自官門北距十二里降山自官門北距二
十五里道向自官門北距三里行二十里向自
山門北距三里高南向自官門西距二里
西南自官門西距三里東向自官門東距三
南甸自官門南距三十里縣北向自官門
距三十里縣南向自官門南距七十里

高麗府西境時賊犯一士仔丈縣并羅城為守城
郡裡縣高麗鄉守將藍廷桂令高宗八分以御
賊得失有功陞為襄州防禦使等九人以降
賊本降馬慶寧藍廷桂元宗九年復授襄州
事本綱

不平樓
官門西
望玉閣
秋仙堂
鄧九公
樓臺
軍銳宇
廢
奇劍
龍王宮
觀音窟
塔寺
舍利
望天臺
沖興寺
弘聖寺
明珠寺
鄧九公
塔
水止
持地
御金光
德山
烽燧
鄧九公
草津山
燧
御金光
陽野山
烽燧
鄧九公
結海
九曲
寶幢
旌旗
九百六十七
烽
七十一
七束
大德
辛酉年九月
還檢社米
六百二十五石
石十四个

南人川而望里俗復漢竹島而望漢室猶有後生
風俗
勞農樂極喪莫喜筵宴尚文學竟祀
姓氏
金江陵侯金海李成金成侯君士朴清源鄭
裴善尹承寧崔江陵張弱於盧州高濬川
人物名宦
本士文特賢王允善李承福世門之子居士玄
崔基伯大將軍司空李榮晉大將軍承
崔達恭大科官主玄知敏教李崇極文昇公九

江原道襄陽郡邑

「二」

<p>沙峴面 沙介橋北距二十里北洞北距二十里勿勿里 北距二十里春洞北距二十里長山里北距二十里北 北距二十里大津北距二十里金人广二十八人</p> <p>降仙面 沙介橋北距二十里北洞北距二十里勿勿里 北距二十里春洞北距二十里長山里北距二十里北 北距二十里大津北距二十里金人广二十八人</p>
<p>道門面 上道門里北距二十里下正門里北距二十里 大浦里北距二十里笑津北距三十里金人广一白三十 八人</p> <p>神鄉寺 在裏西</p> <p>川面 補山里北距二十里月里北距三十里金人广二十八人</p> <p>東華里 北距三十里東津北距三十里金人广二十八人</p>

<p>翼見里 伊文翼嶺德寧襄州見山</p> <p>雪岳山 雪岳山自汝陽金剛山東海波上臺山主脈自官 門北距五十里北接高峻峰松柏皆玉髮而消散石 城隍山自空城九星東來至海此自官門北距五十里 五峰山自雪岳東聚系東上海岸自官門北距五十里 雞山 自古歌樂集系會平湖西南此有奇峰縱橫如火 壁壁峰名於金城山主脉人北山</p> <p>骨足山 古上臺山木馬道改亨主脈自官門南距二十里北 峰沒處形如鼎故云</p> <p>雙成湖 自官門北距二十里北洞東海神子紀</p>
<p>橋梁 南大川自官門南距二十里復則同舟</p> <p>廣江橋 白官門南距三十里</p> <p>勿勿川橋 白官門北距二十里</p> <p>勿勿湖橋 白官門北距二十里</p> <p>勿勿河橋 白官門北距二十里</p> <p>勿勿川橋 白官門北距二十里</p> <p>勿勿湖橋 白官門東距二十里</p> <p>勿勿河橋 白官門南距五十里</p> <p>勿勿湖橋 白官門北距二十里</p> <p>勿勿河橋 白官門南距五十里</p>

觀音堂 在右東上土生土峰之下海澗石經
海入其甲嘗作聲其上螺小觸音響
音微城巒相應 貝歌工后詔以折嗣學有一相
借來當以父女童子共詳審事不勝度趾
避人善詳

德山	峰燧	在府北二十五里北應村城竹島南
竿津山	峰燧	在府南二十九里南應屬竿津山北
	應水山	
陽野山	峰燧	在府南五十五里南應江陰注文山北
	應竿津山	以上峰燧皆新府所設今廢
太樓亭	在谷館南十六里元仁宗延祐二年	
太平樓	在谷館南十六里元仁宗延祐二年	
物建辰官重慶		
醉山	樓石碑	御外三間
觀覽亭	在府南五十五里洞山縣東今廢	
秋仙台	在府北五十里墳	據湖東有石峰拔
可觀望有亭今廢		

寶蓮菴 在明珠寺北上間
古跡 相臺 在府東二十里觀古窟之南臨海所絕
經野神 深美相可遊處去
龍仙台 在北山之東九仙山下穿於磚石中有
掌金石為屋

聖因十輪人處深幽在佛學苦行難全口性過千
心設舌
冷泉在宿州土上峰山中西清觀北化高遠女房指
於九天曉日秋林冷泉流於廟壇安都極詩曰
德女房春游委羽飄飄空蓮樹迷天
色默在深而口上生言百鳥吸風涼雨夜孤月移
為飛城元氣凝成已
沙林寺在宿州土峰山中寺林泉造境爲得全時智
東土空家弘法禪洋身寄空經古南面以爲寶中
宇名竹石塊圓徑曲不當在於中
默達洞在宿州土峰山中金時智子名義嘗至後得上
房寺主所授土
王城在宿州土峰山中寺名華嚴塔林焉

盧崖蔡林尹張鄭河朴李金

光江平羅遜蘇草書清江平
州後廣州原序

姓氏

五

卷之三

存古者土也。至若几无存焉，存數千人而已。不聞歲之豐

李家音

大經言

大科官至司藝。先客河仁安。祖率太學諸生。僑廢母之墓。墓碑隕。故四人之孫。深失。請碑。碑疏見附。遂近碑。

李承
世

文軒宦至執事

人物

性
本
草

卷之三

卷之三

高
清

卷之三

卷之三

關
東
誌

「十三」

관동지의 편찬 시기는 명기되어 있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관동읍지』(1871)의 「선생안」에 군수의 도이임(到離任) 년월이 기록된 읍지가 14개나 있다. 이를 토대로 『관동지』의 「선생안」과 비교해 보면 각 읍지를 종합하여 成冊한 것은 1829년에서 1831년 사이로 추정된다.

관동지는 총 1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3권에 양양과 찬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縣	西
<p>樂昌子宮正里五南 北 九口南四口 西 丁大業士白十男 六口二三四南里四 南三元屏里大門二女 南口五福口里里十 上宣正五九南大口白 女士十女自編三女 百福口口口南丁女宿 三五自里五五會戶口宿 丁才官福男十門二女門 五一門戶八九南南七南 南口南四口口東一个 六井口十一大三三上之 十國四會七時十五口十 一峰十口里里十本里 口里里十東南自編三女 女自編八城官口口里十 五南戶口口門二女白四 十門二女聖南十口南十 二南十方自里六丁門一</p>	<p>九十七里青男五宮百口泉面 九口自里二十門里十西三口自編青福十木 十一一會口十九西福三林十八漢戶年少九日之 六百口門戶六口泉戶口里里十田八口二口里里 口十里西二口土五七女自編之連館門十女自編 三田聚十士將十口五家戶口自十西四七官戶 口是十号二里是二十門二女宿七華戶十門之 自編十口自編十八而十六門口二口二西十 官戶五宮戶七口泉二十口 門戶一門二女青四男五女 西口長西二金十四口十 七聚五方 准士女執作六口里里十聚五 天聚三里五男三口自編七德里 是七十白里五口官戶口里編 編六六宮口十五門二女自戶 九口月戶八色面十四官之 五口水西十口里聚五十門十 十女自編五女自一喜八西六 美三喜六</p>

道	時	道	路
川	自編口自編三里門	仙	百口百口百口
大	第七五限面二宮十女口口自面	十九	南口南口南口南口南口
里	三口口三口自編十門五口門二女口上	仙	史萬百口百口口口口
自	十九聚十五山一此十口十口十口門追	十九	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湖	五口聚五口聚五口聚五口聚五口聚五	口	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山	里九聚一自五五男口口口八口十口	九	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玉	福口自編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	一	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江	九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	二	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陵	五百口五口北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	三	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水	十口十口十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	四	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二	一一聚二四三	九	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十	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	九	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自	七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	十	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空	七聚十七聚里	一	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自	十九聚十五口口口口口口口口口	二	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空	九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	三	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門	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口	四	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北	一門四一門八	五	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三		六	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九口

郡名	翼城	太宗十三年例改為都護府十六年改今名洞山縣	置沿革本高句麗翼城縣(一云新羅時改為守	千五里至白浪山寺里歸山東里海廟連
伊文	翼城	太祖六年以事高德寧縣給元宗元年復如襄州事本朝因之	城郡領縣高麗原置縣令高康八年以禦賊	九十里自北山門西至海峰二十里自東山門南至海峰六
襄州	襄州	上之外鄉陞為府	丹兵有功陞為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禦賊	五百里自西山門西至海峰三十里自東山門南至海峰五
襄州	襄州	中宗十四年改為府	事高德寧縣給元宗元年復如襄州事本朝因之	五百里自西山門西至海峰三十里自東山門南至海峰四

姓氏	城	宮	形勝地	岷山
尹	五峰山	宮城府使東南西門只有	八百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八百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金	水山	宮城府使東南西門只有	三百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三百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李	山	宮城府使東南西門只有	一千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一千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林	山	宮城府使東南西門只有	二千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二千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鄭	山	宮城府使東南西門只有	三千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三千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黃	山	宮城府使東南西門只有	四千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四千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張	山	宮城府使東南西門只有	五千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五千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朱	山	宮城府使東南西門只有	六千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六千石等南面四十尺內有二升雄

峴 山 志

말미에 불어 있는 선생안을 미루어 볼 때 1879년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다.

본문 가운데에는 간지 앞에 《今上》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이들은 대부분 정조(正祖)를 지칭한다. 정조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 하한선은 1800년(정조24)이다. 이는 현산지의 원본이 이미 정조 말에 편찬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한편에서 는 순조대를 《今上》으로 표현한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정조 말에 편찬된 현산지가 순조대를 거치면서 계속 증보되어 갔음을 말해준다.

이 읍지는 조선후기에 편찬된 읍지 가운데 가장 자세한 것으로서, 조선후기 관찬지리지 편찬 사업과는 무관하게 편찬되었다. 18세기에 편찬된 읍지 가운데 관찬지리지의 항목과 내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그만큼 편찬자 자신의 지역 인식과 의도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었다.

<p>九名 水源</p> <p>青草湖在府北三十里周圍數十里每令水合有千 頃草破之狀是夜湖上民牛皆喘汗郡人謂之龍耕 以此占歲豐凶一名靈威湖</p> <p>蓋馬湖在府南四十里周四五里</p> <p>簸湖在府東五里等深甚佳</p> <p>渼水在府南數頃即所謂南八川冬用橋夏用船 道門川源出內院洞與食堂川合流為澗澗川有橋 大峴川源出望景嶺與鳩峴川合流為廣汀川有橋</p> <p>軍資倉租四十七石 米三十二石 糜糶</p>	<p>道面在府北三十里 所川面在府北三十五里 元戶一百八十五戶男二百三十七口女二百四十七口 西面在府西一百十里 元戶二三百三十二戶男四百四十五口女三百二十口 東面在府東十里 元戶一百十四戶男二百二十九口女二百二十九口 南面在府南十五里 元戶九十二戶男二百五十三十六口女二百五十三十六口</p> <p>進貢</p> <p>入僉三等所封四十四兩 銀口魚 生連魚 松魚 合四十一兩 生乾大口魚 大魚 合四十二兩 海螽 紅蛤 生鹽鰯 粉簷 早簷 大口魚卵 合四十七兩 已上濟出 己上川出 合四十九兩 各四十七兩 一 京 錢 一 分</p>
<p>本高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為水城郡領 陞為襄陽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革降為德寧監 裕元宗元年改知襄州事本朝太宗六年以穆祖 外鄉陞為府 太宗十三年例改為都護府十六年 改襄陽府光海戊午以逆亂降歸為縣 仁祖元年 癸亥陞府戊辰以逆亂降歸為縣丁丑陞府</p> <p>屬縣</p>	<p>香樹</p> <p>本高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為水城郡領 陞為襄陽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革降為德寧監 裕元宗元年改知襄州事本朝太宗六年以穆祖 外鄉陞為府 太宗十三年例改為都護府十六年 改襄陽府光海戊午以逆亂降歸為縣 仁祖元年 癸亥陞府戊辰以逆亂降歸為縣丁丑陞府</p>

德山津在府北二十五里
東草津在府北三十里
里站
南程王道堠十里
長孫堠十五里
祥雲堠二十里
龍喻堠二十五里
廣汀堠三十里
新津堠三十五里
奇士門堠四十里

栗牛堠三十里
東津地境堠三十五里
鷺喚
竹島在府南五十里洞山懸東產竹古有觀瀾亭今
麻上有駐跸巖中有鍊石臺訪仙巖弄鶴巖石刻鄉
人鄧衡重所命
無路島在府北三十里東草津東產竹
物產
虎皮 熟皮 猪皮
狸皮 猪皮 水獺
海獺 海獺 黃毛
海豚 海豚 猪毛

喜遷宴 葡萄葉 農桑
風俗 血喪祭 信巫鬼 出賸覽
李成平 厉公義 朴濟州
金廣州 江陵金海 姓氏
趙立漢陽 崔廣濟 鄭施日
尹紈平 魏光州 孫昇陽
高澄州 張有鑑 吳海
盧光州 林蘿州 黃昌
咸江政西昌

津浦
陽野津在府南六十里
洞山津在府南五十里
草津在府南四十里
龜山津在府東十五里
水山津在府東十里
東津莊在府東十三里
洛山津在府東北十五里
波津在府北十五里
澇澗津在府北二十里

北金城四十里
觀瀾亭堠五十里
城汎堠立十五里
斗尾堠六十里
柳尚藏堠六十五里
江陵地境堠七十里
北程月浦堠十里
北津堠十五里
沟澗堠二十里
澗山堠二十五里

蟹	加魚	鱉	紅蛤	海筍	生蠻	大口魚	鯈魚
廣魚	連魚	鰐	黃魚	文魚	沙魚	洪魚	松魚
胡桃	蘿蔔	柿	木米	杏	桃	櫻魚	鱸魚
五味子	五加皮	榛子	加皮	銀杏	蓮子	鯉魚	鯉魚
晚耳	石耳	芝草	紅花	竹	柏子	等	柏子
牧場							
分食馬二匹	八月後來五月上納馬料荒粗七石						

平臺深渺仙蹤飄天水
芬芳物失留落日半嘲音草
咤微風乍起白蘋洲今廖
秘仙臺

在左峯山即新羅僧義相所遊處因以名之 按蓋
壯記義相祖師唐高祖武德八年乙酉生新羅二十
六真平王四十七年也龍朔元年辛酉入唐就學於
智岩禪師咸亨二年辛未遂新羅三十文武王十一
年也武后長安二年壬寅示寂年七十八

權金城

在雪岳之東神興寺南突兀縹渺不待秋衛登臨睡
望氣像宏豁山腰有石等城俗傳權金二家避亂于

漫山亭

在府北四十里青草湖之東荒陶庵李尚書緯寧遊
山到此數日喟詠見峴叟李公議景晉約以臨湖起
亭以作晚年逍遙之時而顏作名曰漫山以雪岳峴
瘦蘸倒湖心而然也今廢

土王城

在府北四十里雪岳之東瀑布掛流數百丈氣勢甚
壯有石等世傳土姓王所造云

此故名 按蓋壯記癸丑丹兵闖入我疆是州於雪
岳山等城守禦缺指此

宜春巖

在雪岳之東食堂洞中白石平鋪清川中流或乍而
為瀑或停而為潭

雲門巖

在府南六十里明珠寺之西洞水石極佳峴叟李公
景晉命以雲門岩名號三字大刻李衡翼篆

碧玉潭

在西四五里鹿門山下水涯而澄北崖宕石參差倒
謂東方川石中上乘者臺號三字大刻尹列書浮筆

卧仙臺

在卧仙臺之上川石魏臥仙尤勝而北崖石嶂之突
懸夷處令人驚吁亦蓬萊之所無三淵金公昌會所

在府南六十里明珠寺之西洞水石極佳峴叟李公
景晉命以雲門岩名號三字大刻李衡翼篆

碧玉潭

在西四五里鹿門山下水涯而澄北崖宕石參差倒
謂東方川石中上乘者臺號三字大刻尹列書浮筆

神源寺

在府北五十里雪岳之東崇禎甲申以禪定寺移湖
今上丙子監司薛允肇設置禪敎都僧統丁丑府使
任公希欽以閻東緇營四守列搆寺門壬午監司李
公最中革罷甲申禪敎三寶
雪岳庵在青峰下一名普門庵額三犬字李公景漸
築內院庵在天吼山下今上丁未山人幸榆室脩
安心庵在內院庵之西谷數里今上戊午山人天
心衲之

常出入為不測之壁世稱觀音大士所住庵也窟前
距五十許步海中有石上可鋪一席出汎水面古薪
羅法師欲觀觀聖容乃於石上展坐稽拌稽對至二
七日尚未覩觀便投身海中東海龍執出石上大聖
即於窟中伸臂手授水精念珠曰我身未可親覩但
從窟上行至雙竹湧出處大吉頂上於此可營一室
安排僧行也龍亦歎如意珠及玉師愛珠而承有雙
竹湧立乃於其地剖石以龍所歛玉造像安之即成
寺也

印月庵有梨花亭兩處

今上乙丑山人梓精神之

小林庵在達摩峰下今上甲戌山人冲鏡那之李
公壽觀憩棲柱曰寺炳紅羅蓮記年燭掌中年大
明天若放錢收聞益寺何羨猿仙赤壁船

增
補
文
獻
備
考

兄山

火城郡○不窩澗道在於慶州兒山縣
原本作今謂之恐謀清海鎮助計烏○今謂

小紀兩獻

○雪嶽達地郡○不載杆城後於焉
華嶽厅平郡○

卷之三

國○原本脩今折城五歲
基猶今加平

續稿今讀

○今京都 貸兒嶽
○今京都 用奈嶽
○今靈巖 武珍嶽
○今児州

西多山

○今謂風沙熱傳
道西城○今呼馬

川

○今茂丹川竹旨
○今茂朱竹旨及伐山郎
○今頃典熊只周自郎
○今頃只川嶽髮子珍也

卷一〇〇

干火 生西魚郡子火縣○今蔚山○**三枝** 火城郡○**卉黃** 华

作
髮
微

沙集○高河縣三年山縣文書

廣州高塔

今尚州嘉阿猪○今報恩波兵谷原猪阿文勝延接濟河縣

卷之三

加林城 加林縣○今林川○一本有
靈巖山風山面焉加林城

加良獻

青州○西述
今晋州
平州○

高曰選以三用三用有繼舊者更榮也

卷之三

通志文獻卷

卷六十一

四

十八

神
興
寺
誌

神興寺 談

3

神龜子之工被立而幽闕外更古無不有數也
名勝地以外襄陽郡去其討約五里半程雖
在廿又云元山今山間能路淺船以破泊之
者以謂工交通云至之襄陽元山嶺二第路
沟湍自至朴山西岸雲巒山云林朴工自御車
通行朴之多穿道路朴自有神龜子曰至朴之
大浦港川州工德朴以御車至沟湍橋叫至朴
西岸在折水口神龜子叫更地所叫是襄陽縣
二毛子討徒尚至來朴時河濱市場叫芝朴西二
至靈巒山宮門朴之昔日襄陽法師外人乞一
仙降仙是毛姓由朴叫驛時毛以昔日富家
家外居仕朴行西蹟。腹多愁長財早言經由
叫着湘源節開道。開道開皇至北之說見
水時持脣川叶色朴之仙橋多處朴日日停川
水退不可乘湘水縣主引道主引別村朴地望主
地望由朴神龜子起城之界已碑故時三水以南
至廟子許詳述。碑文珠峰蓋復崎峰外湖川
長流萬丈北之神光燭地主引地望香城子主
地望由朴神龜子起城之界已碑故時三水以南
致迎送之古代美林乞資點朴之文工石砌引

靜慮院碑者以此山川多在卦艮山中今所
外左蹊川多有卦艮處石探勝者外又蹊
左又三外

八、神興寺牛沿草

香城寺

佛記二十九百五十五年內寔二月約一千三百
七十五年前新羅國德惠女主大和六年壬子則律
師慈藏以五臺山乞之到雲岳山川入卦艮梵
刹是創建卦艮額立香城寺卦艮寺前庭川
九重石塔乞達卦艮之尊舍利至香城寺
此三者在云龍山度之至本國還卦艮
達塔十餘個皆以瓦
接在能卦大德在三藏川新羅惠德女主仁平
三弟內中州初是奉行唐州人朴可法乞求聖像
綠川源深山川慈藏以文殊像奇以誠心立於根
達塔結果麻履後記是得卦艮佛頂首佛牙
佛頂卦艮佛羅金點袈裟一領使舍利古故
老得卦艮持在仁平二年癸卯由本國還卦
內皇祖寺初創卦艮九重石塔乞達卦艮
佛舍利乞達寺宇卦艮其後漢德女主大和
二年己酉由通度寺乞初創卦艮佛裝袈裟外
佛舍利是奉行卦艮大和四年丙午五臺山川燒塔舉
手以慶州新羅文武主大和六年癸卯由法師

卷之三月精舍由吉庵人和塔乞達卦艮佛舍利
多收多至奉行卦艮太白山高來寺外雲岳山香城
寺外風度塔寺及其他各處川便舍利是會安卦艮
作云云

香城寺月精舍由吉庵人和塔乞達卦艮佛舍利
御寺至寺外丈里外諸雲村門至卦艮此山寺望卦艮
多色祥雲川山上川凝霞卦艮奇異香聲川真一
接龜卦艮之祥川至現場川觀看卦艮局內毫詳矣
卦艮高盤獨天多雲氣多藏卦艮土連若峰山
也復老却卦艮可以保心將時乞看川活覺神
城川能卦萬象卦艮利多參差卦艮是卦艮
衆多成作國丈能此忙忙明忙忙卦艮藍光
創達卦艮香城寺卦艮名卦艮大塔盛衰
相替乞難防能測川卦艮寺外通命之卦
不多少歲卦艮復以即也卦艮更變川楚利乞來
使卦艮數千間林密密上都川被祖名居丘化卦艮
九重石塔乞達卦艮之破壞者當卦艮多看些殘餘
相別故卦艮白水青山外松柏煙雲川英華多失
卦艮二以資至龍天川共憩卦艮人禽川同然
若者川卦艮

碑定寺

佛記二十九百五十三年內寔二年約一千五
十二年丙午新羅文武主大和六年癸卯由法師

接上記新羅與韓女主四年庚寅川法師到
日本落海至平山御前天皇山丹霞洞入弘
佛影寺那利三元晚外同伴朴华襄丹法門山
原朴山後身是親見朴玉雲岳山入朴山洞山
文智風便玄大士朴同修傳定朴作金剛山
入朴山麻詩衍玄朴朴山洞云云

着手作事是年中現今空缺時在世系上堂重受
參食宣台危毫粗殺川無此至遺憾」不外
歲不差時法也、送葬行後老始作朴現今極少
慶祝善清樓大本閣四天主門不二門斷舊門等
事畢三十歲外三件禮賓宿酒送行已甚并飲川飲
之停止朴及年當時逢葬赴法殿中州之別三門斷舊
門時川確朴空朴之其錫之尚今有在朴是即停紀
三十九年多立年內葬三十才到約一百二十公華前半
社奉不宣文王三年辛卯日高僧昇華、川送戒
釋名服朴之妙法通事事相、以理又復修文
高僧文常服本寺藏置朴及仰佛帝也、外
高僧朴供仰佛也、寺繼朴向佛事事朴御客朴
高僧立處留聲新朴運川出沒朴之之外

重耕身役
佛記平九年多立年內葬三十才到約一百二十公華前半
佛宗三十九年歲不宣大德留聲外復所殿志中修朴
佛記平九年多立年內葬三十才到約一百二十公華前半
更高三十九年歲不宣大德留聲外復所殿志中修朴
佛記平九年多立年內葬三十才到約一百二十公華前半
高僧昇華三十才立年歲不宣大德留聲志中修朴
寶殿經聲朴作朴三十才立年內葬三十才到約一百二十公
一百三十才立年歲不宣大德留聲志中修朴
大德留聲志中修朴三十才立年內葬三十才到約一百二十公
大德留聲志中修朴三十才立年內葬三十才到約一百二十公

傳記云東漢建平丙午年內史王五子同約一千三百五十
年新薦莫遠女主時香城寺當時叫鑄成莊大經
有此香城寺燒燬時被燒壞以是時佛紀二千九
百零九年丙午年內史王五子同約一百二十九萬兩茶耕茶堂
西半成化茶園號是故鑄成莊外充分利
是時同是第十三子承襲成化弘服。再請
茶堂寺重堂之子承同到此拜辭。御碑序
現今重修鑄成莊茶工請文立印昌朴毛君川
佛紀二年壬午年內史王五子同約一百三
李承正鑄成莊茶園成化弘服。再請
鑄成莊之金錢外毫縫成茶所。以是時
即此之無事。茶樹生於香堂門外石楠
寺前佛紀二年壬午年內史王五子同約一百
一子承正鑄成莊茶園成化弘服。再請
鑄成莊茶園茶堂成化弘服。茶園之蓮
外種茶等。茶園茶堂成化弘服。茶園之蓮
寺前佛紀二年壬午年內史王五子同約一百
一子承正鑄成莊茶園成化弘服。再請
鑄成莊茶園茶堂成化弘服。茶園之蓮
外種茶等。茶園茶堂成化弘服。茶園之蓮

佛記五百十年而墮。至其出約二千年前海東寺西山本安
計是也。美湖法師即親多立送成三佛。在於此寺現今御佛殿
中奉之。計是成子佛也。後復造塔起之。其塔有碑記。其碑文曰。
創立計安寺。建佛像。開基於此。因名寺焉。時僧徒來者甚衆。
計安嘗恐立經塔者少。佛像之多。恐有違意。遂引樹之。是時寺中其
塔高十餘尺。以金剛道體之表顛倒觀音相。是故有此號。計安時所
作。則有善財後。三個自吐頭髮。然後復生。佛像在是。故號計安。三佛。即佛像
也。即那彌陀佛。觀音勢至。阿彌陀佛。及釋迦牟尼。天竺佛。身同火光。三
三燭。是故號計安。而今人以計安安於此。無以信。故立碑。今存。

有外外此之謂初降。微也。其子子也。
道摩大師。方彌勒佛前。鞠躬起。法華形勢。外
如說此等事。是可與。非古舊。外邊緣。不存於。以
昔日。有佛。當時。以所存者。不存於。起。外邊摩
著。下。身。在。楚。有。說。之。多。忘。你。以。何。作。也。
昔日。達摩大師。方印度。至。某。國。深。入。山。中。親
見。生。化。大。勢。無。形。空。不。有。追。傳。法。分。諸。子。半。祖。也。
少。而。萬。山。以。經。當。中。東。屋。外。北。九。歲。外。間。之。通。坐。外
也。復。微。也。外。名。養。花。外。明。媚。望。秋。葉。外。遠。燃。望。晴。外
最。好。外。此。峰。外。風。敵。外。

神游于深山之幽谷，游于深水之深渊。其乐也，悠哉！悠哉！
惟此之游，可以忘忧，可以忘劳，可以忘死。故曰：「游于
深山之幽谷，游于深水之深渊。」

日通沿所生此山一處山名群山岩立又云天台
山即群山也群山是山之首也天台山以此爲號其理由
詳如上此山之號補正工疏此山多有千丈石壁出外有
少少萬肉山峰突起者一巒有此以此爲號之即
得名矣劍立以前山不真無是山之說名之龍林山
則大約山號有鳳凰山祖師外恤佐山竹道
處所是義湘長院之祖師外相繼也竹道
同此山之號而山之號祖庭命其號以竹道
山之號傳佛之阿彌陀佛以外別至引得空門
僧行者玄參宗非仰應感以某靈朴一切道俗
以誠心上乞禱詔記所承靈符以竹道
由此至他方人士乍耳辟弄毛以莫是求其爲
以證事連卦遇至卦叶庵山前以雙童岩口有
卦叶庵山外儀臺作卦葉山外左石川弘臥石泉龍
巖石口有卦叶泉龍巖山外右是外臥石口之臥卦
是之龍巖在卦叶山後臥石口卦叶山口之百餘人
斗可坐芝盤石至引望之外古樹食堂岩口有寺
僧百餘人以會坐像食於食堂岩口以臥石上相對
有卦叶一名之勤石口外人一指可到勤卦叶十人
腕力上可到勤卦叶勤卦叶之餘足少些卦叶此半角
石山前朱至雙立卦口及玄中在口至卦叶連屏上
地經川土甚者不傳家生堂果不太多忽至地經卦叶
唐僧西去歸途望到卦叶外卦叶龍巖名之龍龜外

空心谷已深下叫如意谷石川有石时岩下叫靈泉川
靈泉川發出分十支流叫基甘望學的到甘露華泉
○此山稱也人以服丹心身以服狀卦清
涼散衣服卦以上生精神呈於世界此城呈
大約絕勝處卦由來生名寧相多遊此地卦表
跡之岩面是生少許苔蘚卦以爲君南川空處有其
方勝利也成氣等更爲外小村是卦卦外
神光瀑布 一名玉壁瀑布

湯布引下流川之連布也自存以設世界空處卦時僧
泄泥底水不翻台計其中一大泥水有卦其
所立金鼎卦外卦也深不可量也溝清卦
其水之藍琉璃卦布布反卦水火以墨布卦作
人跡也泄水以侵其脉之深處也方起卦山老龍
潛處卦世稱水門稍空源卦昔
仙 蘭 仙 壇

神興寺至東南至北山生卦之也奇草之空
第丈以出其石磬山並峰外名掛川照空卦拜邊峰
文林峰善寶峰翠湖峰扇峰虎頭峰丈筆峰
等諸峰外卦雲霧露之處棋毫拒絕卦正移積
潤首莫是作臺號列卦外周山澤布外有卦半疑是
銀河落九天毛脈前川而路出卦山廬山川以丈外
印象列卦解有名也卦湖瀑布外開城外有
卦半近川以卦對之午山山川之卦湖瀑布
呂吳卦外卦湖瀑布二個所外有卦外一大勝
瀑布引山瀑布生卦勝卦外卦中大勝卦外稱
卦是上之卦神光瀑布以上卦者外伯仲是題
白練高峯以挂卦卦附近見卦時萬斛云珠
名模叫卦外卦千載川龍鳴虎嘯卦外卦卦
聲川外卦卦是四序川交亂鬱蒸卦參卦無常卦
山風仙毫外猶勝卦外

飛 仙 壇

故仙臺至不到石渡盤石是攀緣卦牛五叫牛追雕
是上卦也飛仙臺卦外有卦此臺之首時麻姑仙外
麻姑半之相密相離卦外灌卦土清流卦灌卦之
煙霞卦外卦外全明山萬深洞空空卦空卦
山風仙毫外猶勝卦外

辛發卦此臺有花草立猿猴之茶樹竹林啼升之
鷗之依岸叫喚卦此臺久禽獸立春風之和陽
升上秋水之嚴涼卦此臺有節序立武陵桃花源
立完然卦此臺立一舖卦牛衣冠立僧徒松枝叫
高掛卦濟渡水立濯足卦立盤石上叫偃臥叫
凡音接般卦羽化登仙皆矣卦外岩間川老松
之幽僻處立娑勢卦立四圍山峰巒立佛故曰
金剛卦從古至今立寶人達士立名書字不
忘南忘北卦是外仙人遊處我遊歸不叫忘行
立忘卦立行

丁巳立行

壬午剛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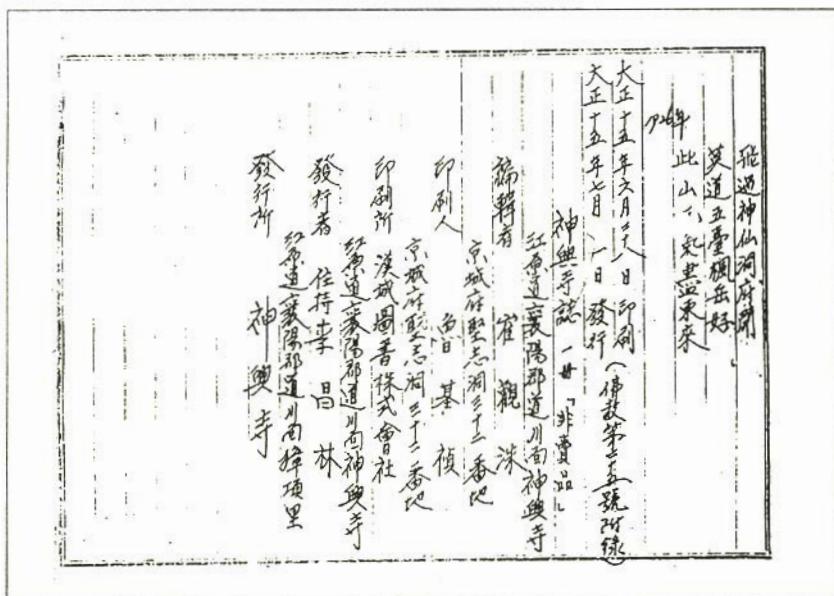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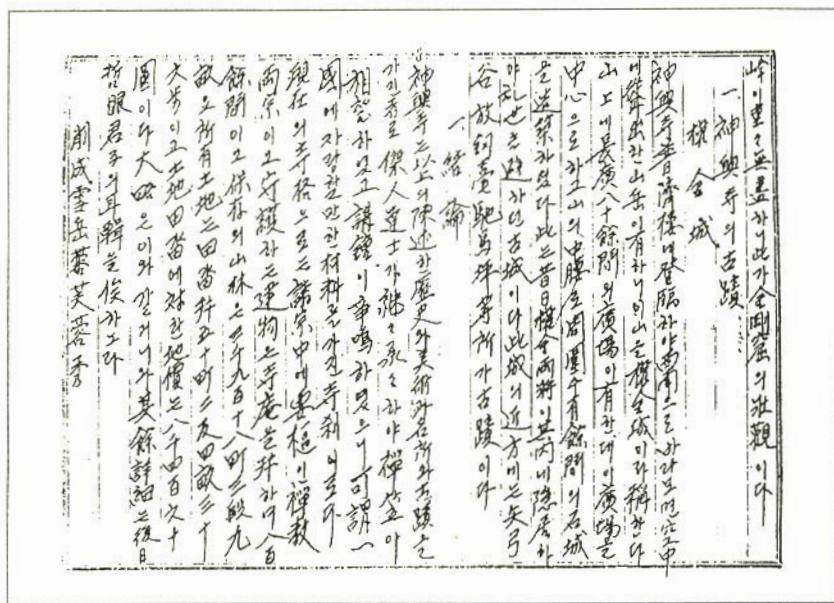
雲岳山主峰立青峰立一脉立西北立長走卦立
中開卦萬仞立中列立石像立佛坐立卦是立此
彌勒峰立上塔下萬丈懸崖立中腹立一大孔穴
立天然自開卦是立也稱金剛密立石壁細路
毫縫卦中南面登臨卦立銅鑼後倚立一通背
立忘難卦立中日出過也高僧立此窟立
律急卦坐佛禮敬卦叫安心修道卦立寢室立
有分仰頭今外列當內列石佛像一位立石器立道具
達物移材等立設有計是立空生空者之西方。
立餘尺立坐室立人口立口方空體復卦叫東立
長在立東海門通卦立萬象源流立服甲立入卦立
矣卦立西面立白雲千佛洞立通卦立萬疊立

辛發卦此臺有花草立猿猴之茶樹竹林啼升之
鷗之依岸叫喚卦此臺久禽獸立春風之和陽
升上秋水之嚴涼卦此臺有節序立武陵桃花源
立完然卦此臺立一舖卦牛衣冠立僧徒松枝叫
高掛卦濟渡水立濯足卦立盤石上叫偃臥叫
凡音接般卦羽化登仙皆矣卦外岩間川老松
之幽僻處立娑勢卦立四围山峰巒立佛故曰
金剛卦從古至今立寶人達士立名書字不
忘南忘北卦是外仙人遊處我遊歸不叫忘行
立忘卦立行

丁巳立行

壬午剛密

雲岳山主峰立青峰立一脉立西北立長走卦立
中開卦萬仞立中列立石像立佛坐立卦是立此
彌勒峰立上塔下萬丈懸崖立中腹立一大孔穴
立天然自開卦是立也稱金剛密立石壁細路
毫縫卦中南面登臨卦立銅鑼後倚立一通背
立忘難卦立中日出過也高僧立此窟立
律急卦坐佛禮敬卦叫安心修道卦立寢室立
有分仰頭今外列當內列石佛像一位立石器立道具
達物移材等立設有計是立空生空者之西方。
立餘尺立坐室立人口立口方空體復卦叫東立
長在立東海門通卦立萬象源流立服甲立入卦立
矣卦立西面立白雲千佛洞立通卦立萬疊立



襄陽神興寺龍巖大師碑銘

之傳其心印錄共上有雪叢月諸楓輝殿等以標序
清虛於師六世也師風有慧識於內外與深鑄得以
開衆覺中半苦眼皆於是而懶心灰四光內照行直
若道益尊蔚然為一代榮林之宗今上辛亥七月
乙酉寂于雪藏之極樂庵壽七八十八臘六十臨化謂
衆曰我游行矣其勿以孫文累我既獎化有光燭天
移日不去門僧慧遠得靈松一顆為塔園以歲之云
余仍語之曰圓備道以無為宗顯揚廣大何有收
師我圓曰以為無也則三千大界便像空華以為有
也則真妄齊境隨時在而妙力亦人之過也圓領古
而氣清備空與身心兩事古所謂不見其山顧
見其木者歟遂為之銘曰

赴難遊賓清虛之風芳 因性早覺月曜之道芳
五祖傳印照海之珠芳 由成入定水止鑑室芳
雪山隱滅寶珠玲瓏芳 於千萬年破缺靡終芳

嵩頤紀元後三壬子十一月 日立

襄陽洛山寺海水龍音碑銘
有明朝歸國江石道洛山寺海水龍音空中舍利碑

銘

益善大夫江右道防禦使岳州邵陽府使事
銘

我東以山水勝名天下而嶺東為一固之最稱東稱
八景而洛山寺尤著聞詳者或以冠之前策之微述
猶失寺之靈跡甚夥而 聞音窟性說義相元晚輩

朝鮮道府郡面町洞里改正區域表

朝鮮道府郡面町洞里改正區域表

名之精

四

卷之三



神興寺
「江原道襄陽郡道川面獐項里」
史蹟

神興寺(江原道襄陽郡道川面獐項里)史蹟 302

一一千九百三十九年(壬子) 乾亂寺의末寺가되다
一一九百四十年(癸卯) 住持에被任하다
一一九百四十六年(己未) 慶恩殿을重建하다
一一千九百四十八年(辛酉) 法殿과 祖舍를修繕하다
一一千九百四十九年(壬戌) 住持에就任하다
一一二月에 李道衍이 住持에就任하다
一一千九百五十年(甲子) 講禪堂後閣三十二間을重建하다
一一十月에 詩成院이 住持에就任하다
一一山火로 因村야 山林의 大部分을燒화았는데 火木을賣하여 俗十四斗落을買
一一入하였다

一九百十九年(朝鮮高宗二十九年壬辰)眞陽閣이 평叛사니 守信僧岳伊
影闕(道)王 三聖閣(安)慶(付) 東果、蓮月兩師니 嘉慶付야
一九百二十年(朝鮮高宗三十一年癸巳) 東果、蓮月兩師니 嘉慶付야
景德改彩形(安慶)後福寺(付) 十王
一千九百二十九年(大韓武英六年壬寅) 喬僧敬歷(付) 大雄殿(安寧寺) 誠(付)
一千九百三十二年(大韓光武九年乙巳) 寺僧滿月(付) 佛像金敬金(付) 佛慈
香齋(付) 一千九百三十五年(大韓熙熙二年戊申) 東廣(付) 殿祖庵(安慶)後福寺(付)
後福寺成志付야 一千九百三十六年(大韓熙熙三年己酉) 龍溪和尚(付) 東果(付)
一千九百三十七年(大韓熙熙四年庚戌) 龍溪和尚(付) 慶成殿(付) 一九百三十八年(大韓熙熙五年辛亥) 慶成殿(付)

萬影閣叶頽敗計叶萬影堂葉

神興寺層庵一覽

一九一七年

神興寺	外建物	橫櫓寶殿	二十間	契府殿
靈山殿	八間	小香閣		
普濟樓	三十六間	天王門		
水閣	一間	便殿		
	共計		一百五十三	
神興寺	庭園	御物		
內院庵	五十八間	織羅庵		
共計			一百二十六	
神興寺	外土地			

一千六百七十九年(新羅實德女王六年壬子) 慈愍이創하니
一千七百二十二年(戊戌) 延命사에 聖名을 訂한 바이다.
又 仁惠王이 叹病하고 一千年八百人(庚辰) 死한 바이다.
重建하고 一千九百一十二年(乙酉) 재건하니 劍峰이 竣建하다.
安養庵
二千八百十一年(朝鮮正宗九年乙巳)에 俊敏이創하였다.
少林庵(寂庵)
一千六百六十九年(新羅文武王二年壬辰)에 創하니
般若庵 東土隱 土隱 安心庵 洗潔庵 先日庵
以上寺 香爐寺 烛光庵 等이니 俊敏가 未詳합니다.
極樂庵 智無庵 香燈庵 上院庵 以上寺 頤定寺 等의 屬庵이니 俊敏 年代는
未詳합니다.
東庵 白花庵 以上은 神興寺等의 屬庵이니 俊敏 年代는 未詳합니다.

神興寺의林野	九一七九
森林	三七三三三三一一
神興寺의寶物	一六四八二二三五
萬隨信 親音信 動至信	香爐一生
以上三位者 義湘의製造	朝鮮孝宗의賜印
神興寺의塔	大建一地
月岩堂塔 大圓堂塔 桂松堂塔 美應堂塔	一千八百十五年戊申에 化主弘濟의 謹文
○○舍塔 隱海舍塔 ○○舍塔 龍谷舍塔 ○○舍塔 不空舍	○○舍塔 向西舍塔 賀盧舍塔 龍谷舍塔
海若居士塔 鳴峰塔 ○○舍塔 白玉舍塔	東坡舍塔 ○○舍塔
勤勁舍塔 ○坡舍塔	○舍塔

부록 2

대동지지 / 307

동국여지승람 / 309

여지도서 / 311

대동여지도 / 313

청구도 / 315

관동지 / 317

관동읍지 / 319

관동지13 / 321

팔도지도 / 323

양양읍지도 / 325

고성군지도 /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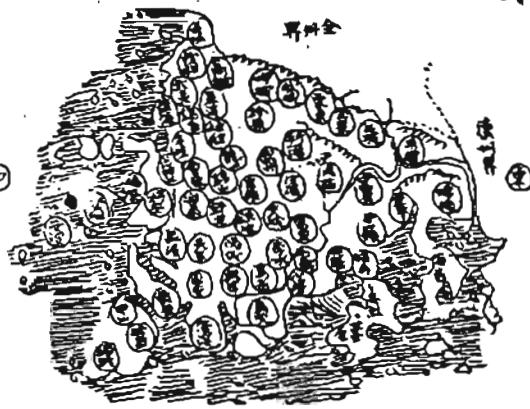
간성지도 / 329

해동지도1 / 331

해동지도2 / 333

해동지도3 / 335

武州全圖



州都督府 俗玄碓折湯龍山 ○ 錦山郡 領會津縣
船鐵冶 ○ 潘南郡 領野老邑酒 ○ 故城郡 領栗原
玉果 ○ 武靈郡 領長沙苑松高敵 ○ 壓海郡 領碣
島 盡海安波 ○ 務安郡 領咸豐多岐海際珍島 ○
牛山郡 久瞻眺 ○ 岬城郡 領森溪珍原 ○ 寧嚴郡
○ 湯武郡 領漫溟固安黃原曉津 ○ 寶城郡 領烏
兜馬邑李水代勞 ○ 陵城郡 領富里汝涓 ○ 分煥
郡 領北陽忠烈柏舟墓原 ○ 谷城郡 領同祐求禮
富有 ○ 异平郡 順海邑盤山曉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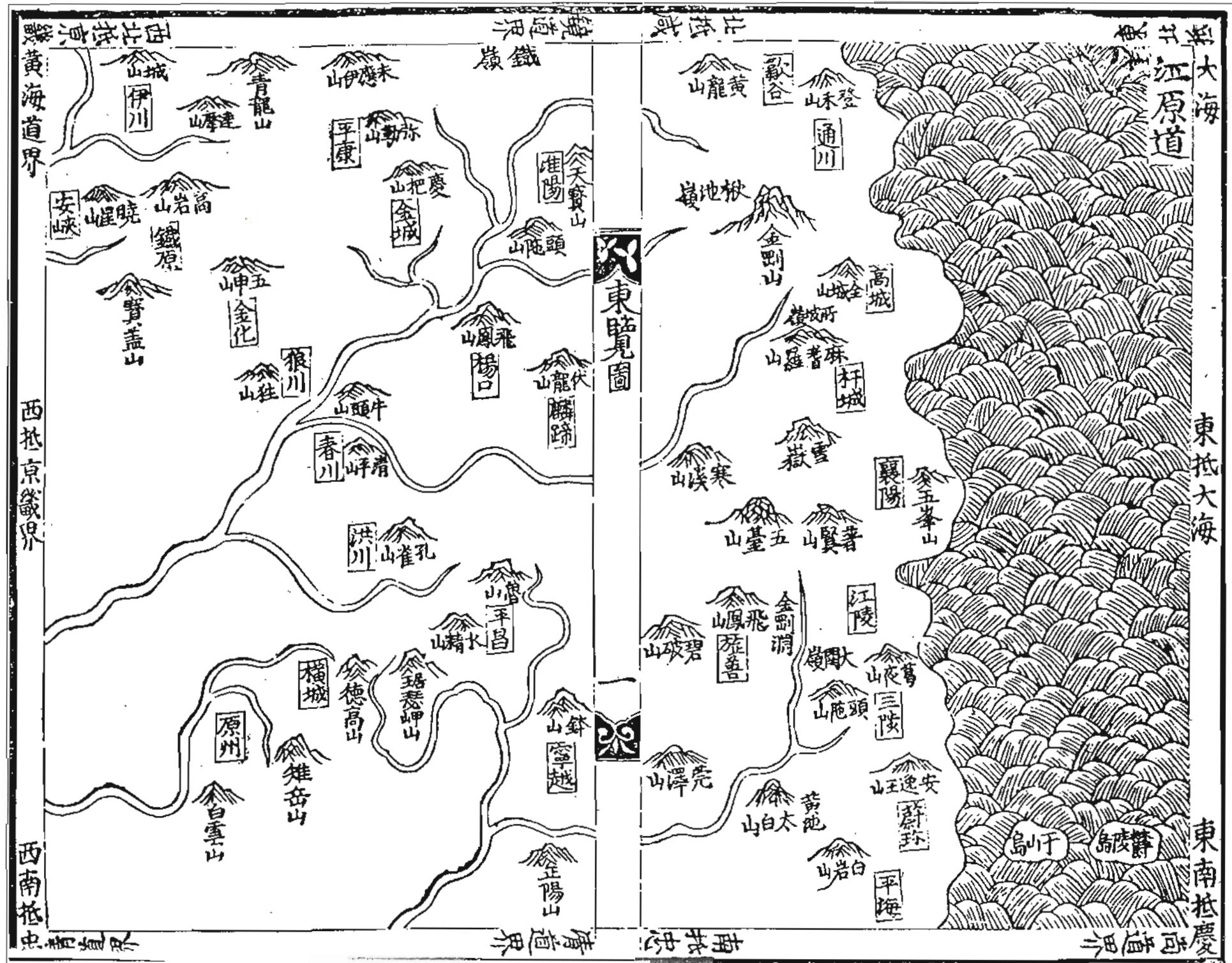
大東地志 全圖

濱州全圖



滨州都督府 領棟堤支山旌善洞山 ○ 三陟郡 領竹
嶺滿鄉海利羽谿 ○ 蔚珍郡 領海曲 ○ 高城郡 領
泰微偏險 ○ 守城郡 領童山翼與鏡 ○ 金壠郡 領臨
道堤上智谿汎川 ○ 奈城郡 領子春白鳥酒泉 ○
野城郡 順真安積善 ○ 有隣郡 順海阿 ○ 由城郡
領緣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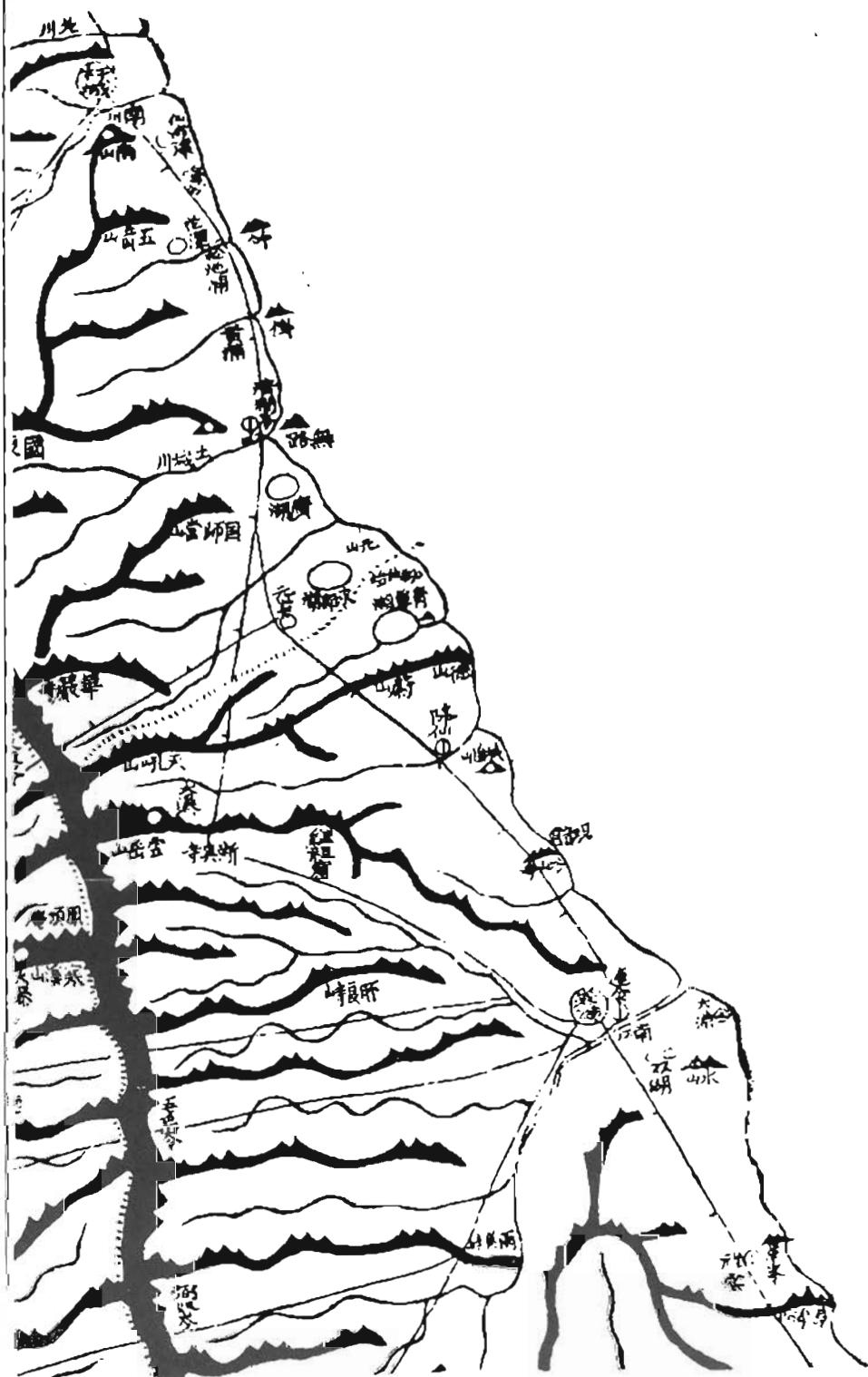
古相平陽
望生山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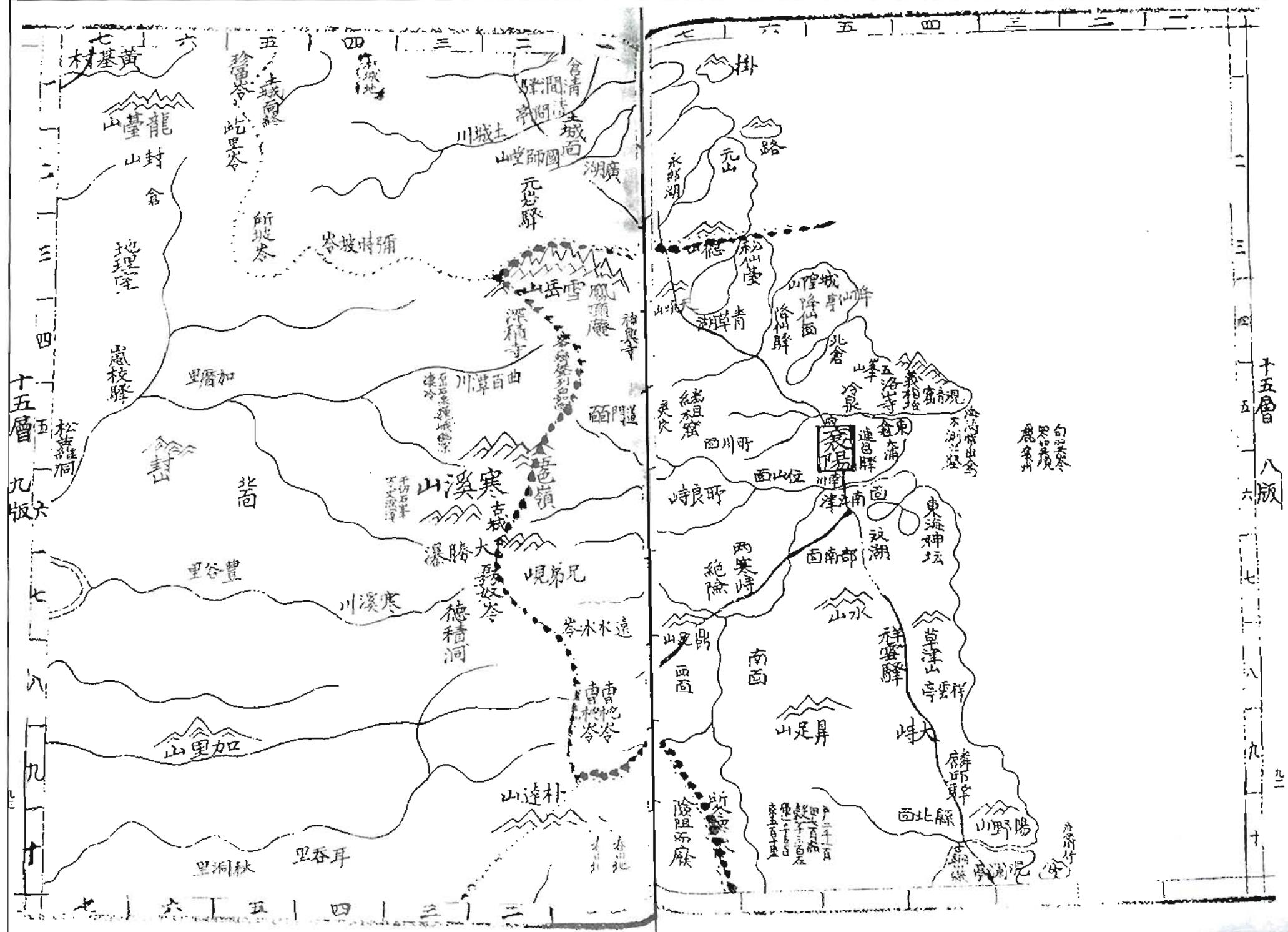
襄陽府

江原道襄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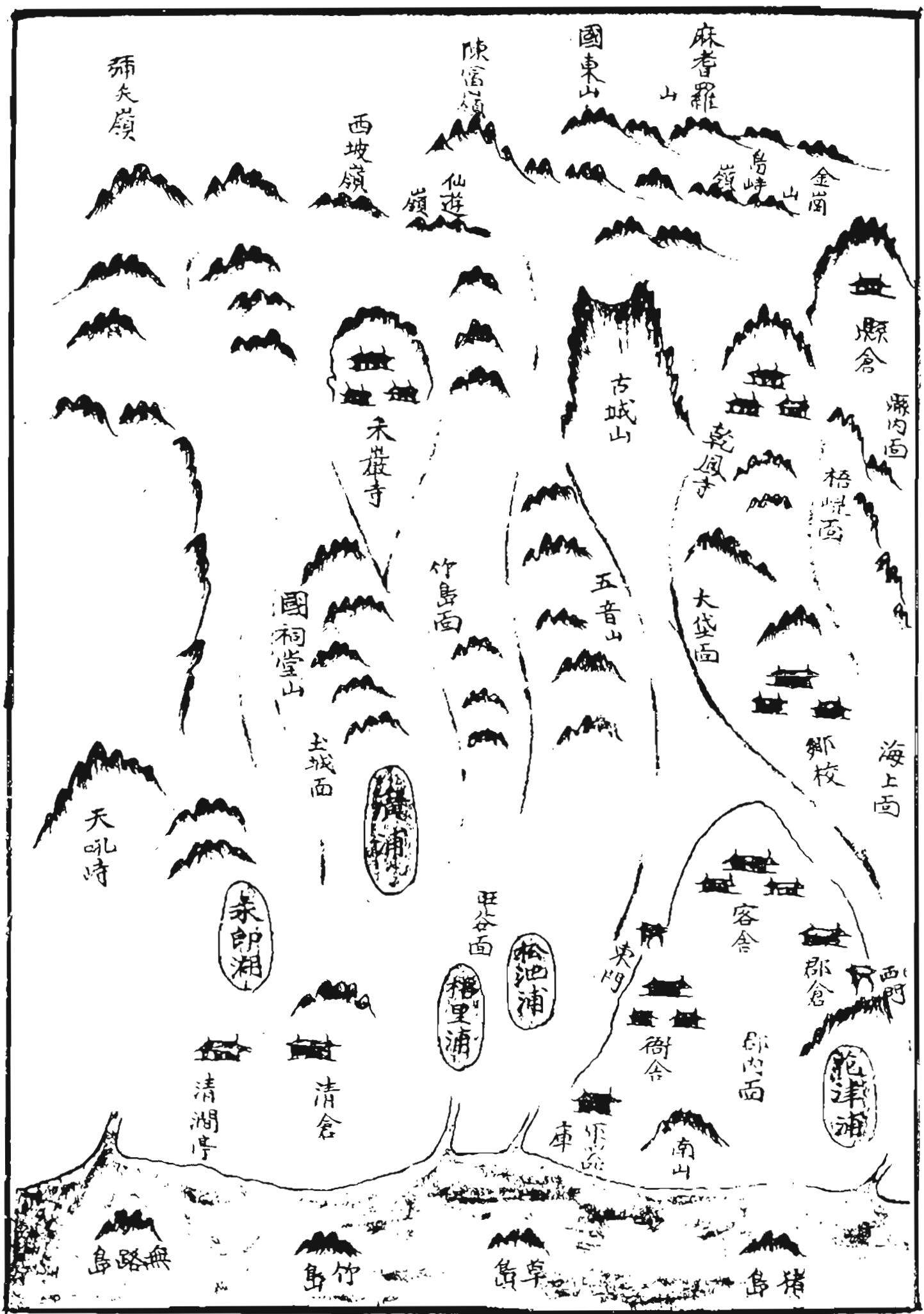


대동여지도 철종12년(1861) 김정호(조선)작 / 채색판 36.5cm×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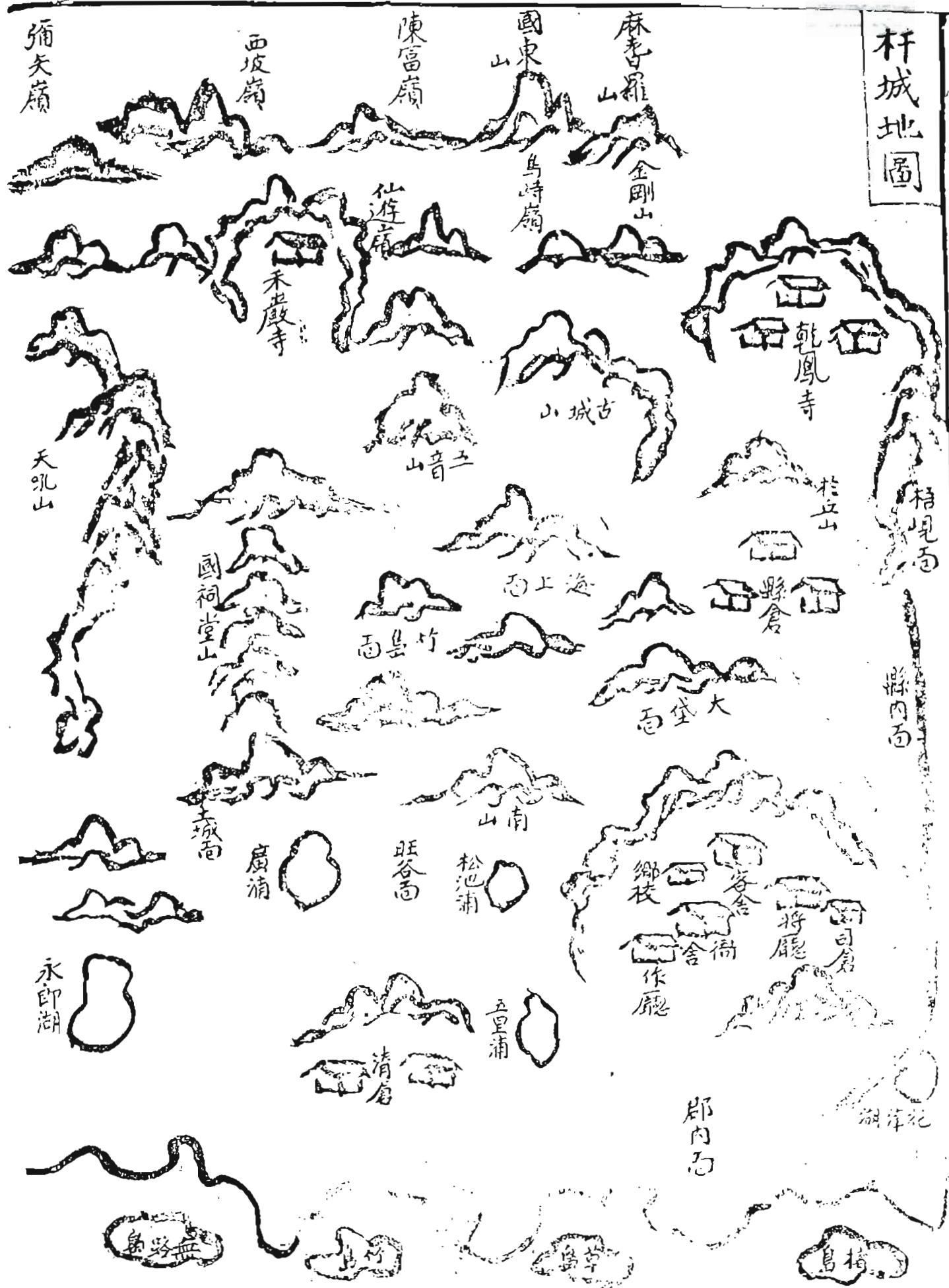


청구도





杆城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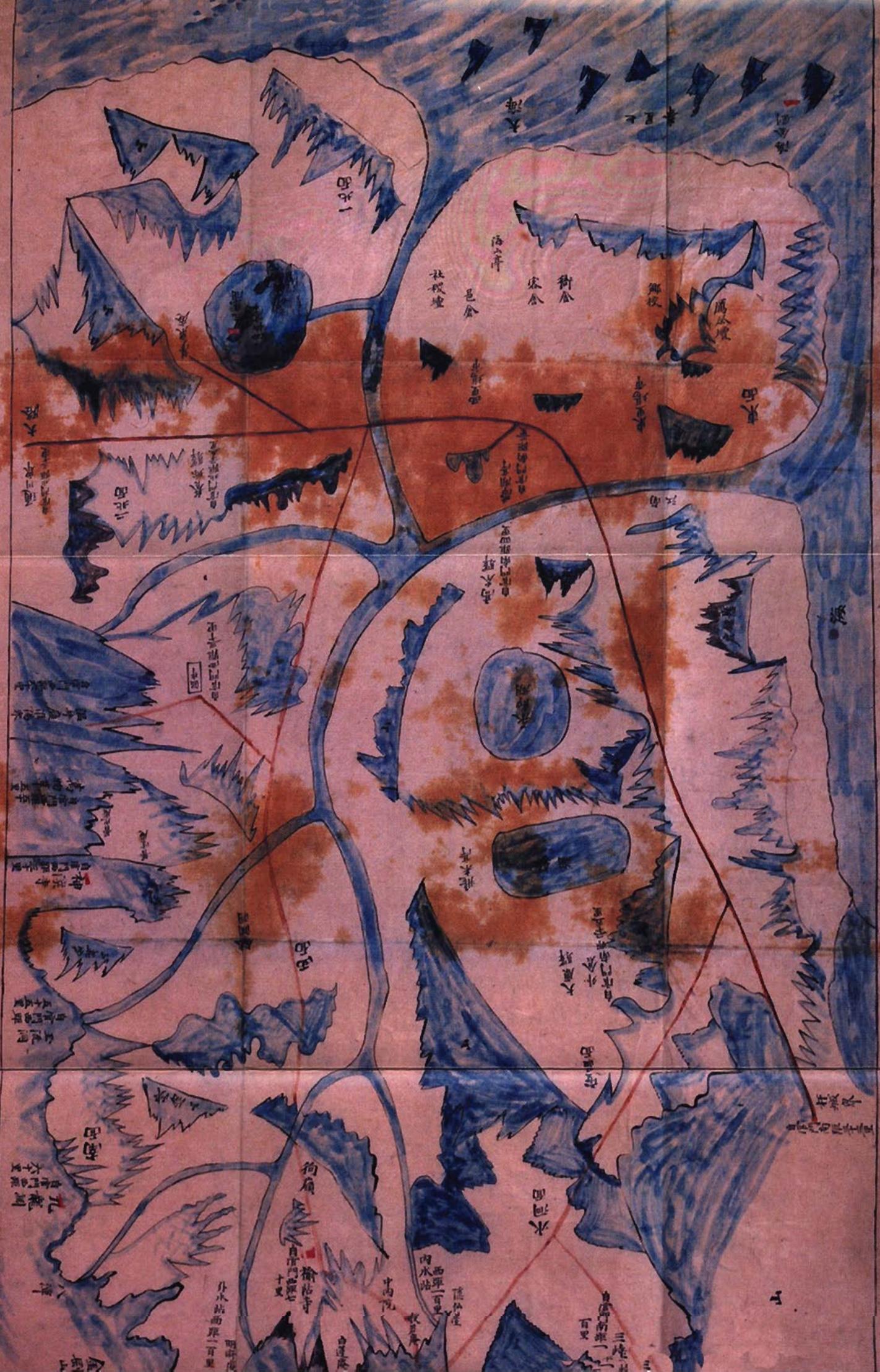


팔도지도 정조11년(1790) 정상기(조선)작 / 채색도 100cm × 61cm

襄陽邑地圖



高城郡地圖





간성지도 고종9년(1872) 작자미상 / 채색도 35.1cm × 25.3cm

江原道 地方東抵平海界六十里 西抵吉畿道

南抵 北抵

東一晉在原州去京城二百八十里
元民五萬六千五百六十四戶內
保六千九百四十一名

大兵三百四十八名
保六百八十九名

元田畠三萬四千一百四十四頃內

稅六百三十三石

田畠五萬六十六石

稅六百三十九石

大米二萬九十九石

作米一百二十石余

有鹽各色收布軍三千二百五十二名內

別健將四百四十五名

禁衛軍一千四百五十三名

驛吏奴并一千三百三十七名

御營軍一千一百六十二名

保三千三百八十八名

餉保百六十六名

鎧卒一千二百四十一名

遊上校婢六百六十七名

漢漢所屬
保安所屬
祥雲所屬
平陵所屬
山城
烽臺
嶺隘



32969



襄陽府東城郭周圍二千三百八十尺額地

九户二千二十五户

三百二十三結五十二卜六東

田四百七十六結二十七東

穀物總數 倉二庫

曾付及常賑廳大小米一百七十六十三斗三升一合五夕

太七百十五石三斗

皮雜穀一萬五百九十九石五斗

東距大海十里

西距撫松嶺舊界六十里 距縣一百四十里

南距江陵界六十里 距府一百二十里

北距杆城界三十五里 距郡九十里

府南面初境官門外

內面終境二十一里

位山西初境八里

終境十三里

東西初境五里

東西初境五里

東西初境一百里

東西初境十里

東西初境十五里

東西初境一百里

縣北面初境三十五里

縣南面初境四十里

道門面終境三十五里

所川面初境二十五里

沙峴面終境三十五里

江陵界終境十七里

麻浦面終境二十里

洞山縣終境三十里

江陵界終境三十五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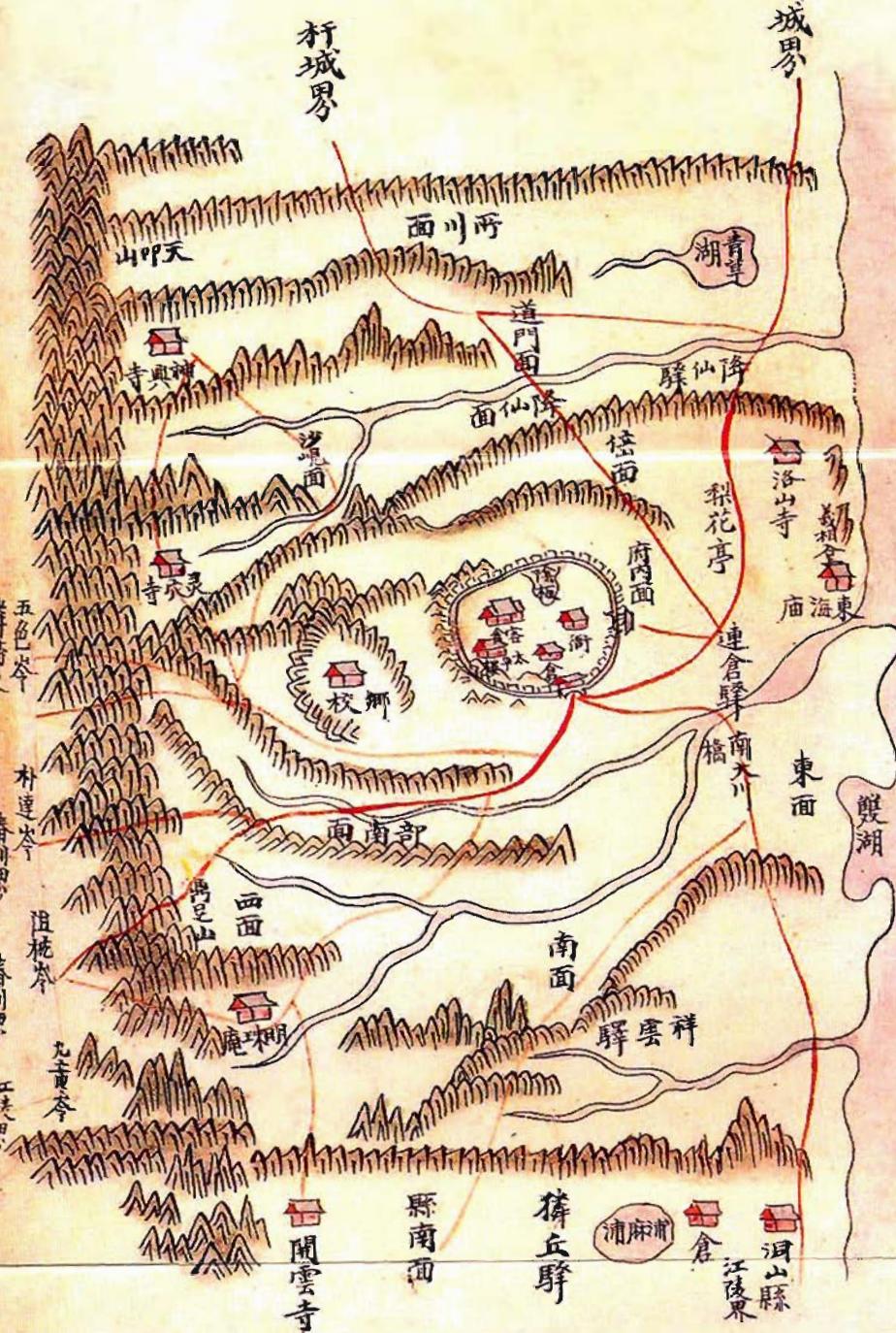
襄陽府終境三十五里

降仙面初境十七里

中或小俱絕險通江陵之嶺西及春

等界而其餘南北大路則二处

軍兵總數
木伍軍三百八十三名
監營軍六十四名



편집후기

속초지역의 향토사 연구에 도움을 줄 사료집을 엮어내기로 한 이후, 편집위원들은 많은 난관과 곤란 속에서 지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료 부족과 번역의 한계가 그 첫 번째 어려움이고, 자료의 해석 및 가치 여부로 연결짓는 문제가 그 다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편집위원 모두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자료의 번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번역과 분석을 위한 토론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흡하나마 하나의 사료집을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나름대로의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자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본격적인 향토사 연구에 일부분 도움이 되고자 꾀한 일이므로, 그 첫 출발의 자리 매김으로는 안도의 마음을 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사료집의 부족한 부분이 좀더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 우리 지역 향토사 연구에 있어 사료집이 적절히 활용되어 가기를 바란다.

2001. 12.

옛 文獻속의 束草

펴낸이 / 최용문

엮은이 / 한정규

펴낸곳 / 속초문화원

집필인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김영준 시인, 동광농공고 교사

손병섭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양양여중 교사

김정환 동광농공고 교사

이기영 속초고 교사

정종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문화재 전문위원

한정규 향토사연구소 간사,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감 수 / 신종원 문학박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편집 및 짹은곳 / 열린마당 ☎ 033) 636-3636

인 쇄 / 2001년 12월 21일

발 행 / 2001년 12월 22일

주 소 / 우) 217-010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전 화 / 033) 632-1231

팩 스 / 033) 632-1241

홈페이지 / www.sokcho-culture.com

전자우편 / sc1241@kornet.net

〈 비매품 〉

